금주의 법구–〈법구경〉

쉬지 않고 계속하면
마침내 이뤄진다.
시냇물이 마침내 바다로 가듯.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33 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1월 16일) 2019년 2월 20일 수요일



금강산 부처님께 한반도 평화 발원을… 한국 7대 종교 대표자들이 남북 불교교류의 상징인 북한 금강산 신계사를 참배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6 · 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금강산 일대서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을 개최했다. 400여 명의 남북 대표단은 13일 방북 행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2007년 남북이 함께 복원한 금강산 신계사를 방문했다. 사진 왼쪽부터 삭발염의하고 홍가사를 수한 북한 스님들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김희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등이 대웅전서 예불하는 모습. 〈관련기사 A3면〉 글=김지원 기자, 사진제공=새해맞이연대모임추진위원회

3월 1일 전국 사찰엔 태극기 물결 '넘실'

불교 등 종교계, 3.1운동 100주년 공동행사

3.1절 동시 타종식 비롯해
범종교 평화기도회 예정돼
불교계 학술세미나 · 전시 등
역사 재조명 사업 다채로워
지역 사찰 중심 만세 재현도

신성민 · 김지원 기자

불교를 비롯한 7대 종교계가 3.1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행사에 뜻을 모았다. 불교계는 종단협 소속 사찰 1만5000여 곳과 함께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타종식 및 전국 기념법회 등을 거행한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김희중, 이하 KCRP)는 2월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서 '종교지도자 초청 3.1운동 100주년 기념 주요기관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관련 행사에 국민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날 원행 스님을 비롯한 7대 종교 수장단은 범종교 연합행사와 각 종단 주요 사업 계획을 소개했다.

이 중에서 불교계는 타종과 함께 전국 사찰들이 일제히 3.1운동 10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할 계획이다. 서울 조계사 등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 소속 1만5500여 사찰은 3월 1일 오전부터 법회를 봉행한다. 불자들은 희생된 선열들을 기리고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데 마음을 모을 예정이다.

3.1절 당일에는 조계사 법당서 북측에 전달할 '통일염원 삼만 일천 염주 만들기'와 민족대표 33인에 포함된 만해 한용운 스님 유적지를 탐방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3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조계사 경내에 나라사랑 체험마당을 열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부스별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불교계 항일독립운동 및 통일운동과 관련한 사진전과 도서전은 각각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로비와 조계사 앞마당서 일주일간 열린다. 백용성 스님 등 항일독립운동에 참여한 불교의 업적을 조명하는 학술세미나도 마련된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원철)는 2월 27일 오후 1시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불교계 3.1운동과 항일운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백용성조사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잊혀진 백년의 진실: 태극기 사용과 대한민국 국호의 탄생' 세미나도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열린다.

종단협과 불교평론은 공동으로 2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또한 3월 1일 낮 12시에 종교계, 시민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타종 및 종교의식이 예정돼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과 사찰, 교회, 성당 등 전체 종교시설들은 3분간 타종하며 종교의식을 거행하게 된다. 현재 KCRP 측은 3.1운동100년범국민대회준비위원회와 이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지역 사찰들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준비 중이다. 특히 지역 사찰들의 행사는 잘못 알려지거나 잊힌 역사들을 조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눈길을 끈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경선)는 범어사 3 · 1운동과 명정학교가 만세운동에 미친 영향을 재조명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한다.

현재 공식적으로 부산의 최초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11일 일신여학교(現 동래여고)의 좌천동 거리 만세운동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부산불교계는 당시 범어사 명정학교 학생이자 스님이었던 김법린 선생이 중심이 돼 동래장터에서 선언문을 배포하고 만세를 부른 3월 7일이 부산 최초의 만세운동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범어사신도회와 금정중학교(前 명정학교)는 3월 7일 기념행사를 봉행하여 그 의미를 되새긴다. 또 100년 전 범어사와 명정학교 지방학림의 모습 등을 담은 특별사진전을 2월 27일~3월 3일 범어사역 역사서 개최한다.

한편, 범어사성보박물관과 부산근대역사관은 3 · 1운동 100주년 기념 공동기획으로 '저항×2-범어사 3 · 1운동과 명정학교' 특별전을 3월 1일부터 100일간 열어 관련 유품과 사진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구불교계도 3 · 1운동 100주년을 맞아 지난 1919년 대구에서 열렸던 3 · 8 만세운동 재현행사를 진행한다.

3월 1일 대구시의 주최로 열리는 재현행사에는 보현사와 달성공원, 청라언덕에서 시작해 국채보상기념공원까지 펼쳐지는 거리행진과 기념식이 열린다.

동국대 제19대 총장 윤성이 교수 선출

8일 이사회서 만장일치로 "건학이념 통해 소통 · 화합"



동국대 제19대 총장에 윤성이 동국대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사진〉가 선출됐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자광)는 2월 8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제317차 이사회를 열고 총장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윤성이 · 이은기(서강대) · 조의연 교수 등 3명의 후보가 올라왔으며, 이사진들은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윤성이 교수를 신임 총장으로 선출했다. 윤성이 교수는 3월 1일자로 동국대 제19대 총장으로 취임하며, 임기는 4년이다.

선출 직후 윤성이 교수는 공식적으로 소감을 밝혔다. 윤성이 교수는 "신임 총장으로 임명해주셔서 감사하다. 정말 가슴이 벅차고 떨린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건학이념인 지혜 · 자비 · 정진을 바탕해 부처님 광명이 동국대 모든 구성원들에게 널리 인식되고 사회에 전파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학내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 저의 강점인 소통과 화합의 능력을 발휘해 모든 구성원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선거에 참여한 10명의 선후배 후보들과도 화합의 장을 만들겠다. 초심으로 돌아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사장 자광 스님도 화합을 당부했다. 자광 스님은 "이번 선거에는 10명의 후보자들이 나와 경쟁했다"면서 "정견발표와 토론을 살펴보니 좋은 공약들이 있었다. 각 후보들의 장점을 통합해서 끌어안아 학교 발전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동국대 제19대 총장으로 선출된 윤성이 교수는 동국대에서 농업경제학과 경제학사를, 일본 쓰쿠바대에서 환경과학과 환경과학석사를, 도쿄대 지구시스템공학과 환경공학박사를 받았다. 동국대 교수 부임 이래 학내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고, 활발한 외부활동을 펼쳐왔다.

윤성이 교수는 '배려 · 존중 · 화합 · 소통'을 통한 '사람 중심의 경영'을 학교 운영의 제1 순위로 꼽는다. 그는 후보 당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교내 생활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흑자경영으로 전환이 아닌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다는 것에 기쁨을 느꼈다"며 "조직의 성과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그만큼 '사람 중심의 경영'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매번 느끼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불교집안에서 태어난 윤성이 교수는 현재에도 매일 아침을 기도로 시작할 정도로 돈독한 신심을 자랑하는 불자이기도 하다. 지리산 칠불사와 고성 무위사가 재적사찰이며, 법명은 도인(度仁)이다. 2009년 6월부터 2년간 동국대학 불자교수회 총무 소임을 담당하면서 불자 교수들의 신행활동을 권장하는 제도를 정각원과 함께 추진하고 활성화하는데 노력했다.

또한 한국사찰림연구소장 소임을 보면서 사찰림이 가지는 공익성과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는데 기여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진제 스님 "일념삼매 혼신의 노력을"

무술년 동안거 해제… 수좌 2033명 만행 나서

지난겨울 석 달간 선방에서 화두를 참구하며 깨달음을 얻고자 용맹정진한 2000여 수좌들이 산문을 나섰다.

이에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2월 19일 무술년 동안거 해제를 맞아 대중의 부단한 정진을 당부하는 해제법어를 발표했다.

진제 스님은 법어에서 "일념삼매를 이루기 위해서는 몸에 대한 애착과 일체분별, 시비장단을 놓아버리고 가나 앉으나 시끄러우나 고요하나 사위의 가운데 간절한 화두의심이 지속돼 모든 습기와 반연은 재가 돼야 함"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러므로 모든 대중에 해제에 상관치 말고 일념삼매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쏟을지어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가 전국 선원 정진대중 현황을 정리한 '무술년 동안거 선사 방함록'에 의하면 전국 100개 선원(총림8 · 비구선원56 · 비구니선원36)에서 총 2033명(총림300 · 비구1147 · 비구686)의 대중이 용맹정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정 · 방장 해제법어 A5〉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오대산 월정사 부설 | 불교한문 전문교육기관

탄허강숙

2019년도 1학기 강의 안내

탄허강숙(呑虛講塾)은 탄허 큰스님의 인재양성과 교육 정신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설립한 불교 한문 교육기관입니다. 2019년 1학기(3월-6월) 탄허강숙 강의는 [대승기신론](성본스님), [선문촬요](이상하 교수), [능엄경](선암스님) [선문염송](문광스님)을 강의합니다.

공부, 학문을 하지 않으면 무지해 지고 허영과 사치, 교만, 출세 등 천박한 가치관, 인생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고타마 붓다는 "방일은 죽음의 길이다. 노력은 불사(不死)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셨고, 탄허큰스님께서는 "법당 100채 짓는 것보다 인재 한 명을 기르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탄허강숙은 지성(知性)과 인격을 완성시키는 곳입니다. 함께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 1학기 강의 일정 및 장소

- 일 시 • 2019년 3월 4일(월) ~ 6월 27일(목) • 저녁 7시 ~ 9시
- 방 식 원전 중심 강의 (초심자도 누구나 수강 가능)
- 장 소 • 서울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 파빌리온 634호 • 지하철 ❶호선 종각역, ❸호선 안국역, ❺호선 광화문역 5분 거리
- 문 의 02-732-2403~4 또는 010-3731-1586, 010-5226-2149

2019년 1학기 개설 강좌 ❖ 2019년도 1,2학기 통산 출석 일수 3분의 2 이상 출석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함

요일	강좌 및 원전명	강사	강사소개
월	대승기신론 (大乘起信論)	성 본 스님	전 동국대학교 교수. 일본 고마자와대학 박사. 〈중국선종의 성립사 연구〉 〈임제록(역주)〉 〈무문관(역주)〉 〈벽암록(역주)〉 〈돈황본 육조단경(역주)〉 등
화	선문촬요 (禪門撮要)	이상하 교수	고려대학교 박사. 현 한국고전번역원(전 민추) 교수. 〈십지경론〉 〈십송률〉 〈경허집〉 〈월사집〉 등 다수의 번역이 있음
수	능엄경 (楞嚴經)	선 암 스님	능엄학림 졸업(월운스님 전강제자). 동국대불교학술원 전임연구원. 동국대 대학원 불교융합학과 박사. 불교한문학 박사(한문불전 번역 전공). 동국대 및 중앙승가대 강사
목	선문염송 (禪門拈頌)	문 광 스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철학과 박사. (현)조계종 교육아사리, 동국대 불교학술원 외래교수, 한국불교학회 학술이사

지원서 제출 및 등록

- 접수방법 • 이메일 : tanheogangsuk@naver.com • 전화 : 02-732-2403~4 또는 010-3731-1586, 010-5226-2149
- 수강료 • 과목당 1학기(4개월) 20만원(일시불) • 전과목 수강할 경우 55만원(4과목 4개월 일시불)
- 수강인원 • 과목당 25~30명(연령, 자격 제한 없음) • 선착순 마감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23502-04-145908, 윤재승(예금주) • 수강료 송금시 문자 요망. 교재비는 별도(3만원 이하) • 교재는 개강일 배포

올해 조계종 7개 본사 주지 선거

총림 3곳 포함, 선운사부터 23일 산중총회

올해 조계종 7개 교구본사가 주지 선거를 앞두고 있다.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 시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대중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현재 본사주지 임기만료를 앞둔 교구는 제4교구본사 월정사, 제7교구본사 수덕사, 제12교구본사 해인사, 제15교구본사 통도사, 제22교구본사 대흥사,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제25교구본사 봉선사다. 이 중 총림인 수덕사와 해인사, 통도사는 방장 추천으로 차기 주지를 결정한다. 4개 교구본사는 단일 후보일 때 산중총회 성원과 관계없이 무투표 당선되며, 2인 이상 후보일 때 산중 고유 방식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총의를 모으기 어려운 경우에는 선거로 최종 후보자를 선출한다.

가장 먼저 주지 임기가 만료되는 교구본사는 수덕사다. 현 주지 정묵 스님 임기는 3월 18일 만료된다. 하지만 현재 수덕사는 방장이 공석인 상태로 차기 주지 선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월 23일 방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가 예정돼 있지만 이날 차기 방장 추대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선운사는 차기 주지 선출 산중총회를 2월 23일로 확정했다. 현 주지 경우 스님 임기는 4월 3일 만료된다. 선운사 안팎에서는 현 주지 경우 스님과 한국문화연수원장 재안 스님의 2파전이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영축총림 통도사는 주지 영배 스님은 5월 29일, 해인총림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은 8월 18일 임기가 만료된다. 총림을 제외한 교구본사로는 대흥사 주지 월우 스님이 8월 12일, 봉선사 주지 일관 스님이 10월 8일 임기 만료다. 해당 본사들은 주지 임기만료일 전 30~50일 사이 산중총회를 소집한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내년 1월 29일 임기가 만료되지만 12월 중 산중총회를 열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법진 스님, 선학원 이사장 직무정지 될까

창건주 · 분원장 48人,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여직원 성추행혐의로 최종 징역6월형을 선고받은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

선학원미래포럼(회장 자민)은 "선학원 창건주와 분원장 48명이 2월 11일 서울지방법원에 법진 스님을 상대로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가처분 신청인에는 법인 현직이사인 현호 스님(지원정사)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선학원 현직이사가 법진 스님의 자격문제를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처분 신청인들은 "법진 스님은 2016년 12월 15일 선학원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해 더 이상 이사장 지위에 있지 않고, 2019년 1월 24일 이사회 결의로 사직서를 반려했다 하더라도 위임계약이 합의해지 되지 않은 것일 뿐 이사장 지위에 있지 않은 점은 변함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선학원 이사장의 지위가 고용계약이 아닌 위임계약 형태이므로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고, 해지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처분 신청인들은 "법진 스님의 이사 임기가 2019년 1월 2일 만료돼 다음날 중임한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명시됐지만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며 "또한 당시 법원 최종 판결 이후인 만큼 선학원 정관상 임원 선출 규정에 해당하는 '덕망 높은 승려'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진 스님이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뒤 2017년 서울 인사동서 열린 퇴진 촉구 집회. 현대불교 자료사진

이와 함께 승려관리규정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제적, 자격정지, 견책 등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 고 규정돼 있음에도 이사장이 실권자인 이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징계가 불가능한 상황인 점을 강조했다.

가처분 신청인들은 "선학원 이사장은 종교단체의 지도자이므로 도덕성을 갖추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며 "승려를 대표하는 자로서 성도덕에 어긋나는 파렴치한 행위를 할 시 전체 종교활동에 손상을 입혀 이사장으로서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종법령 광폭 제·개정 추진

중앙종무기관 입법계획… 포교원 등 각 부서별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올해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이 원활한 행정업무를 위해 광폭의 종법령 제 · 개정 추진에 나설 전망이어서 눈길을 끈다.

조계종 기획실(실장 오심)은 최근 '불기2563(2019) 중앙종무기관 입법계획'을 종단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입법계획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처는 포교원이다. 포교원은 유관 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포교법(3월)과 신도법(11월)의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포교법 전면개정의 골자는 1990년대 명시된 포교의 개념과 방향을 현대에 맞게 풀어내는 것이다. '불타의 교법을 널리 홍포하고' 등의 개념을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라는 현대어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삼보에 대한 굳건한 신심과 보살의 서원으로 교화한다' '동사섭의 정신을 사회속에 구현한다' 등 구체성이 떨어져 선언적인 의미로 굳어진 포교지침을 삭제하고, 포교의 의무를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조항을 다듬을 계획이다.

이외에 포교원 조직체계 개편을 명시, 국별 업무분장을 수정하는 한편 매주 교무회의를 통해 간단한 논의사항을 다루는 내용도 담긴다. 특히 현재 군종특별교구로 이관돼 포교원 업무가 아닌 군불교위원회 내용을 삭제하고, 그동안 종법에 담기지 않은 전법단 조항을 신설한다. 아울러 청소년지도사, 어린이지도사, 명상지도사 등의 자격 근거를 명시해 전문인력 활동에 소속감을 불어넣는 작업도 이뤄진다.

올해 말 전면개정을 목표로 논의되는 신도법의 경우에는 교육체계를 비롯해 신도가 됐을 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재정리하는 방향으로 수정된다. 또한 포교원의 지원체계와 신도단체들의 정체성도 정리할 방침이다. 종단교무금 납부에 관한 법은 원활한 교무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모색,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포교원은 종법 외에도 각 포교사 선발 및 자격관리, 전법중심도량, 전법단 등 종령을 일부 개정해 제도변화에 따른 내용을 수정하고, 신도 유관 종령의 종법 불일치 사항을 일치시키는 작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승려교육을 전담하는 교육원은 교육법과 승려 연수교육에 관한 령의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교육법에 연수의 범위를 승랍 10년, 20년, 25년 이내로 구분한 것에 30년차까지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힌다는 게 골자다. 이미 2015년부터 25~30년차에 대한 법계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2017년부터 종사법계 연수가 시행되고 있어 이를 명문화하기 위해서다.

사업부는 부서 명칭을 '사찰경제부'로 수정하는 총무원법 일부개정에 나선다. 단순한 종단수익사업 부서가 아닌 교구와 사찰의 경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서로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함이다. 부서 출범 4년차에 맞춰 '종단 산업재산권 육성' '사찰 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종단 내외 제안사업 심의' 등의 역할을 명시해 전문 행정지원 부서로 거듭난다는 복안이다.

문화부는 산사세계유단 등재 이후 통합 보호관리와 활용을 보증할 '한국의 산사통합관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령' 제정을 계획으로 세웠다. 산사관리단은 기존 등재추진위원회를 전환해 구성될 예정이며, 지자체 협의를 거쳐 7월경 출범할 전망이다. 또한 성보보존법 시행령을 제정, 성보대장에 대한 절차와 내용 등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별지양식 규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성보박물관 변화 내용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 불일치 사항 해소를 위해 '성보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령'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종령과 연계된 유물관리규정도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종법개정은 중앙종회 결의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중앙종무기관의 모든 입법계획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각 부서는 중앙종회 유관 위원회와의 지속적인 회의를 거쳐 종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종무기관 입법계획

포교법 · 신도법(전면개정)
- 법 조항 현대어로 재해석
- 포교 · 신도 의무 구체화 작업

교육법(일부개정)
- 25~30년차 승려 연수 명시

총무원법(일부개정)
- 사업부 명칭 '사찰경제부'로

문화부 종령(제정)
- 산사통합관리단 설립 · 운영
- 성보관련 세부시스템 정립

포교법 · 신도법 전면개정 눈길
교육원 25~30년차 승려 연수
사업부는 '사찰경제부'로 전환
문화부 '산사관리 종령' 계획

국민연금 지원 신청인원 화엄사 '최다'

55세 미만 재적승 중 44%
송광사 · 선운사가 뒤이어

조계종 2018년도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통계결과 24개 교구본사 중 가장 많은 재적승이 신청한 곳은 제19교구 화엄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뒤이어 제21교구 송광사와 제24교구 선운사도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이 높아 재적승 노후소득보장 제도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이 2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서 최초로 개최한 '2019 종단 지도자 포럼'에서 발표됐다. 종단 지도자 포럼은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소임자를 비롯해 교구본사주지, 중앙종회의원 등 종단 중진스님들이 조계종단 안팎의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종단 지도자 포럼에서 승려복지제도를 주제로 발제하는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이날 '승려복지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조계종 승려복지회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통계를 중심으로 출가수행자들이 국가 · 종단 복지제도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승려복지회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조계종 비구 · 비구니 스님 중 16.6%인 1,907명의 스님이, 55세 미만 비구 · 비구니 스님 중 32.1%가 보험료 지원 신청을 했다. 교구본사별로는 55세 미만 기준 화엄사(44.1%)-송광사(41.1%)-선운사(39.1%)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관음사(10.5%)-신흥사(12.7%)-봉선사(23.1%) 순으로 신청 비율이 낮았다.

덕문 스님은 "교구본사주지를 비롯한 본사종무소, 재적대중스님들의 승려복지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하는 통계수치라고 판단된다"며 "천주교와 원불교 성직자들은 교단차원에서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계종은 2011년 조사 시 가입률이 약 18%로 노후준비에 취약했다"고 설명했다.

덕문 스님은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승려복지회에서 스님들의 체계적인 노후준비와 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고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승려복지제도를 스님들 스스로의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도자 포럼은 이외에도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이 'AI(+생명공학)와 종교', 이영경 동국대 과학기술대학 조경학과 교수가 '국립공원 정책과 전통사찰의 가치'를 주제로 발제했다. **윤호섭 기자**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23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불교의식(범음, 범패)교육원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

본원은 불교 전통의식인 영산재(범음, 범패)를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받았으며 영산재를 계승 및 발전 유지하고
후진 양성에 그 목적을 두고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불교 문화재이자 민족의 빛난 문화유산인 불교전통의식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육기관입니다. 불교의 각종의식의 중요성을 인식은 하고 있었으나 배우실 기회를 놓치신 스님들께서는
종단을 초월하여 승려 양성에 목적을 두고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아오니 스님들께서는 수희동참으로 만학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 졸업자는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23호 영산재 보존회 회원자격 부여 ※

수료 과정 및 강주

모집반		교육내용	강주	요일	시 간	모집조건	교육기간
초급반	기본이론 기초과정	기본사물, 기본예불 불공 및 시식	호산스님	화, 목	오후2시~오후5시	모든 종단 승려	6개월
중급반	상주권공 I 기초과정	시련 / 대령 / 관욕 상단 / 시식 / 작법기초	혜령스님	수, 금	오후2시~오후5시	초급반 이수자	6개월
상급반	상주권공 II 전문과정	상주권공재의식 전문과정 작법 고급과정	혜령스님 호산스님 월인스님	화, 목	오후2시~오후5시	중급반 이수자	1년 과정

◈ 응시자격
- 입학과정 : 모든 종단의 승려
- 제출서류 : 입학원서 (본원의 소정양식) --- 1부
  주민등록등본 ---------- 1부
  반명함판 사진 ---------- 3장
- 전형일정: 2019년 1월 ~ 3월 5일
- 원서교부 및 접수처: 광주광역시 서구 화개 1로 53 (금호동) 법 륜 사
- 입학문의: 법륜사 종무소 062-655-7444, 010-6650-7444
  보존회 사무처장 (법진스님) 010-9606-3981
  교육원 교학처장 (명휴스님) 010-7941-0017

2019년 1월

사) 광주전통불교 영산재 보존회 부설 교육원

신계사 템플스테이 北 반응 '긍정적'

원행 스님, 조불련에 제안
금강산서 건립부지 상의도

김지원 기자 jayjace@hyunbul.com




2월 13일 강수린 조불련 중앙위원장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신계사 경내에서 템플스테이 제반시설을 건립할 부지를 상의하는 모습(사진 왼쪽)과 같은 날 오전 외금강 해맞이 행사에서 남측대표로 연설문을 읽는 원행 스님(사진 오른쪽). 사진제공=조계종

지속적으로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 실현 의지를 피력해온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강수린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장을 만나 가능성을 타진해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북측 불교계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신계사 템플스테이 사업이 탄력 받을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덕조 스님은 2월 14일 기자들과 만나 앞서 12~13일 금강산서 진행된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 참가 성과를 밝혔다.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 교구본사주지협의회 부회장 진화 스님(송광사 주지), 덕조 스님이 불교계 대표인사로 참가했다.

조계종에 따르면 원행 스님은 북한불교계를 대표하는 강수린 중앙위원장과 차금철 서기장을 신계사에서 만나 그간 국내에서 정관계 인사들에게 피력해온 금강산 템플스테이 사업을 직접 제안했다. 강 위원장은 원행 스님에게 템플스테이관 건립 부지를 먼저 제안해 상의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행 스님과 강 위원장이 직접 대면 접촉해 남북 불교교류 사업에 대해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덕조 스님은 "원행 스님과 강 위원장, 차 서기장은 식사를 하거나 행사장 내 이동 중 신계사 템플스테이, 점등식, 사찰림 조성 등 사업에 대해 실질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신계사 방문 시 강 위원장이 먼저 원행 스님에게 신축 건물을 세울만한 부지 선정에 대해 상의하기도 했다. 모든 사업에 대한 명확한 피드백은 없었지만 상호 의견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2월 14일 사회부 기자 브리핑
남북불교 최고 지도자 첫 만남
공동 봉축행사 등 협의 이어가
문화교류 협력사업 탄력 전망

앞서 조계종은 꾸준히 북측에 문화교류 협력사업에 대해 제안해왔다. 원행 스님은 연대모임 행사에서 범종교계와 함께 신계사를 참배한 뒤 법당에서 직접 공식 서한을 강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해당 서한은 남북 공동 부처님오신날 기념행사를 열기 위한 방북과 초청, 신계사 템플스테이 시범 운영과 전통문화유산 활용, 사찰림을 중심으로 한 양묘 사업과 복원 사업 등 구체적인 실무 협의 개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사회부는 사업 구체화를 위해 중국 심양서 대면 접촉을 추진하고, 조불련 측에 팩스 발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성과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사회부에 따르면 종단은 템플스테이 사업에 대한 북측의 이해를 돕기 위해 프로그램 구성, 행사 규모, 건물 단면도 등을 서류를 보내 실무적인 선에서 보다 진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덕조 스님은 "우리 불교계가 이룬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적인 장소인 신계사를 전체 참가자들이 방문하고 7대 종교 수장들이 함께 참배한 것은 무척 의미 있다. 지난 10년간 경색돼 있던 남북관계가 새롭게 나아가고 있는 분위기에 맞춰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대북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신계사 템플스테이를 계기로 다양한 사업을 통해 남북교류에 물꼬를 트는 날까지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대모임 행사는 1일차에 전체 모임 및 종교계를 비롯한 단위별 대표모임, 2일차는 외금강 해맞이 행사 및 원행 스님 대표 연설, 신계사 참배 등이 진행됐다. 종교계 대표모임은 양측 종교 지도자들의 상견례 차원서 진행됐다.

원행 스님은 둘째 날 삼일포 앞 바다서 일출을 보며 한국 대표로 "지난해 남북 정상의 만남이 곧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고 우리는 또 한 번의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100년 전 시작된 3.1운동은 이제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통일로 귀결돼야 한다. 차이와 다름은 구체적인 실천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연설했다.

올해 봉축표어 '마음愛 자비를!'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2월 13일 발표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가 올해 부처님오신날(5월 12일) 봉축표어로 '마음愛 자비를! 세상愛 평화를!'을 선정했다. 봉축위는 2017년부터 부처님오신날 기본 슬로건으로 '우리도 부처님같이'를 상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봉축표어를 별도로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 봉축표어는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갈등을 부처님의 자비정신으로 극복하면서 한반도에 온전한 평화가 자리 잡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봉축위는 "모든 존재가 존귀함을 선언하고, 모든 삶은 자신 스스로 주인공임을 선언한 것"이라며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삶의 주인인 자신을 알아 자비정신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고, 모두 함께하는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뜻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연등회는 5월 3일 전통등 전시회와 4일 어울림마당 및 연등행렬, 5일 전통문화마당 등을 중심으로 개최된다.

윤호섭 기자

탄허강숙 올해 1학기 4개 과목 개설

대승기신론 · 선문촬요 · 능엄경 · 선문염송 등

오대산 월정사 부설 불교한문 전문교육기관인 탄허강숙에 올해 1학기 〈대승기신론〉 〈선문촬요〉 〈능엄경〉 〈선문염송〉 등 4개 과목이 개설된다.

탄허강숙은 오는 3월 4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월~목 저녁 7시 서울 종로구 두산위브 파빌리온 634호에서 2019년도 1학기 강의를 실시한다.

강의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매일 다른 주제로 강연한다.

먼저 월요일 일본 고마자와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정성본 스님의 〈대승기신론〉으로 문을 연다. 화요일에는 이상하 한국고전번역원 교수가 〈선문촬요〉를, 수요일에는 동국대불교학술원 전임연구원 선암 스님이 〈능엄경〉을, 목요일에는 동국대 외래교수 문광 스님이 〈선문염송〉을 강의한다.

수강료는 과목당 1학기(4개월) 20만원, 전과목 수강 시 55만원이다. 과목별로 선착순 30명 마감하며 신청희망자는 이메일(tanheogangsuk@naver.com) 또는 전화(02-732-2403)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대승기신론〉을 강의하는 정성본 스님은 동국대 교수를 역임하고 〈중국선종의 성립사연구〉, 〈임제록〉(역주), 〈무문관〉(역주), 〈벽암록〉(역주), 〈돈환본 육조단경〉(역주) 등을 출간했다.

〈선문촬요〉를 강의하는 이상하 교수는 고려대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십지경론〉 〈십송률〉 〈경허집〉 〈월사집〉 등을 번역했다.

〈능엄경〉을 강의하는 선암 스님은 능엄학림을 졸업한 월운 스님 전강제자다. 동국대 대학원 불교융합학과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선문염송〉을 강의하는 문광 스님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철학과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조계종 교육아사리와 한국불교학회 학술이사 등을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本紙, '생명나눔' 운동 나섰다

생명나눔실천본부와
2월 12일 홍보 제휴 협약

장기기증 희망등록사업 등
연중 홍보 및 캠페인 진행
일반인 생명살림 동참 유도



박종수 本紙 사장과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이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本紙가 장기기증 활성화를 통한 생명나눔 실천운동에 나선다.

현대불교신문(사장 박종수)과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2월 12일 서울 종로구 생명나눔 법인 사무실서 '생명나눔운동 홍보 제휴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本紙는 신문 지면을 통해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진행하는 장기기증 희망등록,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환자치료비 지원, 자살예방 교육 등 다양한 생명나눔운동을 알리게 된다. 일반인들이 생명나눔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캠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도 홍보한다.

협약식에서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으로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주변의 많은 인연들이 십시일반 도움을 보태고 있다"며 "한 명 한 명의 생명이 고귀하고 소중하기에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밝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생명나눔 문화 진작에 힘 써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종수 현대불교신문 사장은 "생명을 나누는 일은 곧 '공생'이라고 생각한다.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것 역시 공생의 실천"이라며 "평소 생명나눔에 관심이 있었다. 추후 더욱 관심을 기울여 생명나눔을 위한 활동들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김주일 현대불교신문 편집국장, 정현숙 생명나눔실천본부 후원회장, 박종우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위원장, 찰리김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위원 등이 참석했다.

글=김지원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양산 통도사 등 문화재 안전진단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오는 4월 19일까지 양산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국보 제290호) 등 국가지정 및 시 · 도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등 전국의 주요 문화재 2,010개소에 대해 안전 실태를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시행한다.

문화재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은 해방기가 포함되는 2~4월경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문화재의 안전관리 실태와 방재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등을 점검하는 예방 활동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해빙기 대비 해당문화재 안전상태 △소방설비(소화기, 소화전 등)와 방범설비(폐쇄회로 TV 등) 작동상태 △전기 · 가스시설 안전상태 등 문화재 · 방재설비 내용 △현장별 재난대응매뉴얼 마련 여부 등이다.

문화재청은 "정기점검과 특별점검 등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충효 정신 고취 및 한국전쟁 중 희생된 미군을 위한
수륙영산대재 및 생전예수재 봉행
입재 2019년 6월 12일(음력 5월 10일) 회향 2019년 6월 16일(음력 5월 14일)
송탄 송덕사는 상월원각대조사님의 가르침에 따라 매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위한 천도의식을 봉행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때는 유엔군으로 참전했다가 희생한 각국의 고마운 군인도 많았습니다. 올해 본 사찰은 송탄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한국전쟁 당시 목숨을 바친 미군 전사자를 위한 수륙영산대재 및 생전예수재를 봉행합니다.
● 동참비 : 미군 전사자(35,686영가) 33위당 1등, 봉헌금 1만원, 영가당 10만원, 생전예수재 5만원, 조상 10영가 이상 100만원
● 계좌 : 기업은행 031-666-3180(송덕사) ● 장소 : 천태종 송탄 송덕사 ● 문의 : 031)666-3180
33인 등이란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대조사님께서 증명하신 등입니다. 33인이 모여서 하나의 원력을 만들어 부처님께 기원드리면 그만큼 속득 소원성취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대한불교천태종 송탄 송덕사

포교사단, 수행·교육·제도 정비 나선다

2월 12일 2019운영기조 공개

신행혁신 일환 1인 1수행 운동
지역별 포살 · 네트워크도 진행
13개 지역단 모바일 결제 보급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15기 전문포교사 졸업식. 올 한 해 포교사의 역량 강화 · 수행진작이 본격 진행된다.

조계종 포교사단이 새해 포교사들의 수행가풍 확립과 교육, 제도 정비에 본격 나선다. 지역별 포살법회를 비롯해 1인 1수행 운동 등을 전개하고 행정 전산화와 단복 개선 등 제도정비를 시작한다.

조계종 포교사단(사단장 윤기중)은 2월 12일 올해 포교사들의 수행 진작과 시대 변화에 맞는 행정 효율화를 최우선 과제로 사업을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운영기조로 포교사 수행 및 종단 내 역할 정립, 조직과 인적역량 강화,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꼽고 먼저 포교사들의 개인별 수행덕목을 지정하고 지역별 포살법회를 정례화 하기로 했다.

또 포교사단은 지역단별 수행점검을 확대해 지난해 포교원과 함께 진행한 신행혁신운동 '붓다로살자' 를 적극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포교사단은 현재 이에 앞서 나란다 스터디 등 포교사단 내 수행 · 교육 스터디를 구성해 매주 월요일 운영하고 있다. 나란다 스터디에서는 디지털과 사찰문화 교육을 현대화된 교육을 비롯해 금강경 등 다양한 불교경전 강독 등이 진행된다.

윤기중 포교사단장은 "전법 포교의 근간은 수행에 있다. 포교사들의 사경, 108배, 참선 등 다양한 수행을 장려하고, 수행일지 보급 등을 통해 개인별 수행을 지정해 이를 점검, 지도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그동안 산별적으로 진행된 지역단별 포살법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포교사단은 지난해 불교계 최초로 도입한 전자결재시스템을 각 지역단에 확대 적용해 행정 현대화와 표준화도 이뤄낼 계획이다. 포교사단은 지난해 1월 본단과 시범지역단인 서울지역단에서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했다. 상근 직원이 대부분 없는 포교사단 특성상 모바일 등을 통한 빠른 행정처리를 위해서였다.

윤기중 포교사단장은 "휴대폰을 통해서도 모바일로 결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는데 전 지역단이 다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금년에는 13개 지역단이 전자결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다양한 온오프 소통공간도 만들어 포교사들의 의견을 경청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포교사단은 인터넷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을 재편해 분야별 연수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단복 재개정 등 제도개선과 포교회관건립 기금 모금 활성화, 포교 낙후지역에 대한 포교사 양성 등도 추진한다.

윤기중 포교사단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포교 전법도 변화해 나가야 한다. 포교사의 위상 강화, 종단 내 역할 정립을 통해 포교사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수행을 통한 신심 증장과 전법 포교의 효율성을 함께 높이고자 한다. 포교사간 네트워킹을 비롯해 모바일 · 디지털 재교육 등을 통한 역량 확대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불교 통·번역가 도전해 볼까?

외국인들에게 불교 사상과 문화를 알리는 전문 인재양성 과정이 개설된다. 조계종 포교원 산하 국제전법단(단장 계성)은 3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비로자나국제선원에서 '불교 영어 전문 통 · 번역 연수 교육' 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불교 영어에 관심이 있는 스님과 재가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홍연주 전문 동시 통역사와 진우기 로터스 불교영어 연구원장 등이 강사로 나선다.

2019년 교육원 연수 인증 교육으로 국제포교에 관심 있는 스님과 재가자, 템플스테이 영어담당자 등 누구나 수강 가능하다.

부단장 자우 스님은 "이번 교육을 통해 스님들의 법문을 영어로 잘 전달하고 사찰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 불교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능력이 연마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국제네트워크를 구성해 한국불교 세계화에 밑거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070)7769-8985

노덕현 기자

"불교계 종합병원 발전에 써달라"

조계사, 동국대 일산병원에 발전기금 1억원 전달

2월 12일 조계사 대웅전서 전달
건강검진 협약 통해 신도 혜택도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사진 오른쪽)이 조성민 병원장에게 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2월 13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병원발전기금 1억원을 동국대 일산병원에 전달하고 건강검진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전달식은 스님과 신도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약에 따른 것으로 조계사 신도는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건강검진 시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스님들만을 위해 특화된 '승가케어 검진프로그램' 혜택이 주어진다.

또 동국대 일산병원 측은 이번 전달된 기금을 바탕으로 신규 의료장비 구입 및 호스피스 병동 구축 등 다양한 병원 발전을 도모한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기독교계 병원이 60여 개에 이르는 동안 불교계 병원은 일산병원을 비롯해 소수의 병원만 운영하고 있다. 동국대 병원 발전은 불교의료복지 수준을 높이고, 포교 활성화를 위해서도 매우 필요하다"며 "조계사 기부가 다른 사찰로도 이어져 동국대 병원이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종교계 최고의 병원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성민 동국대 일산병원장은 "불자들의 성금을 바탕으로 날로 발전하는 병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스님을 비롯한 불자들이 병원을 찾았을 때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명우 동국대의료원 대외협력관은 "불교의 자존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신교와 가톨릭병원에 버금가는 불교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스님과 불자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 일산병원은 불교계 대표 종합병원으로 지난해 4월 건강증진센터를 새롭게 확장 개소하고 검진프로그램 구성 강화 및 다양한 의료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다. 또 2017년 3월부터 조계종 승려복지회, 전국비구니회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님들이 안정된 수행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계종 승려복지제도 발전사업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지속가능한 실버일자리 확충"

종로노인福, 13일 기자회견

자치위원회 · 자문단 구성해
시니어 주도형 사업 활성화
노인 일자리 안정화에 역점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이 5개년 운영목표를 발표하고 있다.

어르신 재능기부를 바탕으로 한 일자리 확대에 힘쓴 종로노인복지관이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충을 위한 내실을 다진다.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2월 13일 관내 종로마루홀에서 이용자 · 기자 간담회 및 개강식을 열고 2019년 복지관 운영계획 및 중점사업을 발표했다.

정관 스님은 "복지관의 주인은 관장, 직원이 아닌 바로 이용자 어르신"이라며 "이용자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별 지역자문위원회 등을 운영해 기존 특화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일자리 규모를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복지관은 올해 이용자자치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복지관은 위원회를 통해 자치위원들이 낸 아이디어나 의견을 실제 행사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 간 갈등 발생 시 중재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교수진만 참여하는 기존 방식에서 사업별 지역기반 자문위원회를 통한 운영방식도 새롭게 바뀌는 부분이다. 복지관은 죽음준비 · 치매예방 · 시민민주주의 아카데미 등 사업마다 이용당사자, 봉사자, 시민,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또 고령친화 일자리 창출사업에도 더욱 주력한다. 종로구청, 마로니에공원, 복지관 본관서 운영 중인 플러스카페 1 · 2 · 3호점과 전통 장 체험관 · 카페는 복지관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이다. 현재 장 체험관 · 카페에 15명, 플러스카페에 총 어르신 50명 이상이 일하고 있다. 복지관은 올해 수익 안정화로 더 많은 실버인력을 확충하는 것에 역점을 둔다.

노인주도문화사업인 종로문화애향사업 '종로&장금이' 등은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정관 스님은 "확정 전이지만 소규모 장독모형에 담긴 전통 장을 지역에 전하는 찾아가는 장금이 사업도 서울시와 협업 하에 준비 중"이라며 "세대 간 전통문화를 교류 확산하는 분위기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2018년 참가자들의 호평이 있었던 시민민주주의 아카데미 2기를 8월부터 10월 경 진행하는 등 복지관은 회원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다양한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정관 스님은 "어르신들이 앞으로도 주인의식을 갖고 함께 복지관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이용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지원 기자 jayjace@hyunbul.com

맑고향기롭게 2019 장학생 모집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가 길상화 장학생을 선발한다. 길상화 장학생은 가정형편은 어렵지만 성실하고 밝은 심성을 가진 학생을 우선으로 선정하며, 일반고, 특성화고 학생과 한국 과학기술영재 발굴을 위한 과학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접수는 3월 15일까지로 서류 검사를 통해 선정된 장학생에게는 1년간의 수업료와 운영지원비 전액이 지급된다.

장학생 추천 자격은 전국 현직 교사, 전국 사회복지사에 한하며, 구비서류는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www.clean94.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한편,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는 무소유의 스승 법정 스님이 이끈 단체로 서울 성북동 길상사를 근본도량으로 두고 있다. 법정 스님이 수필집 〈무소유〉 인세를 어려운 학생들에게 나눠주었던 뜻을 이어 1994년 3월 26일 단체 발족과 함께 장학사업을 제정, '맑고 향기롭게-길상화 장학생' 으로 명칭을 변경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올해까지 25년 동안 장학생을 선정하여 총 674명의 중, 고등학생에게 약 10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 전수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기에너지체) 고요 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제6차크라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안국선원 수불큰스님의 선법을 전수 · 인가 받음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과학연구소(소장:처명)

부처님의 마음을 빗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 인 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

해제 상관치 말고 일념삼매 혼신을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고목용음진견도(古木龍吟眞見道)
촉루식진안초명(髑髏識盡眼初明)
소식진시희식진(消息盡時喜息盡)
당인나변탁중청(當人那辨濁中淸)

마른 나무에 용이 소리를 내니 참으로 도를 봄이요, 해골 뼈다귀에 분별이 다하여야만 진리의 눈이 처음 밝음이라. 소식이 다한 때에 기쁜 소식이 다했거늘 마땅히 사람이 이에 탁한 가운데 맑은 것을 가릴꼬?

금일(今日)은 무술년(戊戌年) 동안거(冬安居) 해제일(解制日)이라. 결제에 임한 이래로 하루가 한 달이 되고 어느덧 삼동구순(三冬九旬)이 지나고 해제일이 도래했음이라.

해제일에 이른 지금까지 방장실을 찾아와서 대장부의 기개(幾個)를 펼치는 이를 보지 못함은 어인 일인가? 그것은 온갖 분별(分別)과 망상(妄想)과 혼침(昏沈)에 시간을 다 빼앗겨서 화두일념(話頭一念)이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 석 달간 얼마만큼 마음에 우러나오는 화두를 챙기고 의심했는지 각자가 스스로 돌이켜볼지어다.

견성법(見性法)은 일념삼매의 과정이 오지 않으면, '나'라는 생각의 분별심이 터럭만큼이라도 남아 있으면 절대 진리의 문을 통과할 수 없음이라. 화두일념이 지속되어 보는 찰라, 듣는 찰라에 화두가 박살이 나고 태산이 무너져야만 진리의 세계와 대면(對面)하는 것이다.

이 일념삼매(一念三昧)를 이루기 위해서는 몸에 대한 애착과 일체분별과 시비장단(是非長短)을 놓아버리고 가나 앉으나 시끄러우나 고요하나 사위의(四威儀 : 行·住·坐·臥) 가운데 간절한 화두의심이 지속이 되어서 모든 습기(習氣)와 반연(攀緣)은 재[灰]가 되어야 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대중은 해제에 상관치 말고 일념삼매가 되도록 혼신(渾身)의 노력을 쏟을지어다.

중국의 당나라시대는 선가오종(禪家五宗)이 성립하여 선(禪)의 황금시대를 구가(謳歌)하던 때였다. 그 중에 운문종(雲門宗)의 문을 연 운문선사(雲門禪師)는 동진(童眞)으로 출가하여 위법망구(爲法忘軀)의 신심과 수행으로 일관하였다.

당시의 선지식인 목주선사를 참례하고는 팔부(八部)의 안목(眼目)이 열렸고, 설봉선사의 회상(會上)에서 일대사(一大事)를 해결하여 인가(認可)를 받고 법(法)을 잇게 되었다. 그 후 운문선사의 법이 널리 펴져서 선사의 법제자가 20명에 이르니, 운문종파를 이루게 되고 선사의 선법(禪法)이 중국천하를 풍미(風靡)하였다.

세월이 흘러 운문(雲門) 선사께서 세연(世緣)이 다해가니, 제자들을 모아놓고, 세 가지 법문을 물으셨다. 어떠한 것이 부처님의 진리의 도(道)인가? 어떠한 것이 제바종(提婆宗)인가? 어떠한 것이 취모검(吹毛劍)인가?

이 물음에 여러 제자들이 훌륭한 답을 했지만, 그 중에서 파릉(巴陵)스님의 답이, 어떠한 것이 부처님의 진리의



도(道)인가? "눈 밝은 사람이 우물에 빠졌습니다"

어떠한 것이 제바종(提婆宗)인가? "은쟁반 위에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가나제바 존자는 용수보살의 정법안장(正法眼藏)을 부촉(咐囑) 받은 부처님 심인법 제15조이시다. 가나제바 존자는 뛰어난 지혜와 방편으로써 당시 인도의 96종의 외도들의 굴복을 받고 귀의시켰다.

어떠한 것이 취모검(吹毛劍)인가? "산호(珊瑚)나무 가지가지에 달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운문 선사께서 이 답처(答處)를 듣고 매우 기뻐하시며 제자들에게 "내가 열반(涅槃)에 든 후, 너희들은 기일(忌日)에 제사상에다 갖가지 음식을 차리지 말고 항상 이 세 마디 법문을 일러주길 바란다"라고 이르셨다.

요즈음의 선지식들이 당기(當機)에 다다라 주저하게 되는 것은 견처(見處)도, 살림살이도 다 고인(古人)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무변대도(無邊大道)의 불법 진리를 바로 알려면 고인들의 법문 하나하나를 다 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중략〉**

그간 무수한 도인들이 각자가 깨달은 경지(境地)를 기량(氣量)대로 써왔다. 제 아무리 약삭빠른 이라도 엿볼 수 없고, 사량·분별을 붙일 수 없게끔 무진삼매(無盡三昧)의 공안을 베풀어놓은 것이다.

이러한 수많은 공안에 대하여 확연명백하지 못할 것 같으면, 크게 쉬는 땅을 얻었다고 할 수가 없고, 고인들과 같은 경지를 수용할 수도 없다. 그러니 모든 참학인(參學人)은 고인의 경지에 근간(根幹)을 두어, 중중무진(重重無盡)으로 베풀어져 있는 공안(公案)의 그물을 다 뚫어 지나가야 한다.

이처럼 당기일구(當機一句)의 기틀을 갖추지 못했다면, 접인(接人)할 능력도 없을뿐더러 알았다고 하는 것도 모두 망령된 사견(邪見)에 지나지 않는다. 고인들의 전지(田地)에는 꿈에도 이르지 못한 것이다.

시회대중(時會大衆)이여!

이 운문삼전어 (雲門三轉語) 법문을 안다면 한 산중의 방장(方丈)이 될 자격이 있음이라. 답할 자가 있으면 답을 가지고 오너라.

필경(畢竟)에 일구(一句)는 어떻게 생각하는고?

무운생령상(無雲生嶺上)하고
유월낙파심(唯月落波心)이로다

구름이 걷히니 산마루가 드러나고 밝은 달은 물위에 떠있음이로다.

납자 본분 잊지 말라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중국 당나라 때 배휴(791~870)라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 고을군수로 있을 때 대안정사(大安精舍)란 절에 들렀습니다. 마침 이 때 저 유명한 황벽(黃蘗)선사가 정체를 감추고 대중에 섞인 채 전당(殿堂)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지객(知客)의 안내로 대중 방에 들어가서 차를 마시면서 벽을 쳐다보니 그림 한 점이 벽에 걸려 있어서 물었더니,

지객 왈, "高僧의 초상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배휴 왈, "초상은 볼 수 있지만 고승은 어디에 있소?"라고 묻자 대중이 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배휴가 묻기를 "이 절에는 참선하는 스님이 없소?"라고 물었습니다.

지객이 말하기를 "요즈음 어떤 스님이 왔기에 절의 일을 시켰는데, 그가 참선하는 스님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배휴가 "그를 청해서 얻은 바가 있는지 물어볼 수 있을까요?"라고 하자, 지객이 황벽 희운 선사를 찾아오니 배휴공이 첫 눈에 보고 기뻐하면서 법거량(法擧揚)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한 가지 질문을 했는데, 여러 스님들은 대답을 아끼셨습니다. 이제 상인(上人)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라고 하니 황벽선사 왈, "상공(上公)의 마음대로 물으시오" 하니, 배휴가 앞의 말을 되풀이해서 물으니, 대사(大師)가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배휴여!" 공이 "네" 하고 대답하니, 대사가 말했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공이 당장 종지(宗旨)를 깨달은 것이 마치 상투속의 구슬을 얻는 것과 같았습니다. 공이 말했습니다.



"나의 스승은 참된 선지식(善知識)이십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지적하시거늘 어째서 이런 곳에 눌러계십니까?" 이때 절의 대중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우리 선문에서는 이처럼 스승과 제자는 종지(宗旨)로 계합하여 맺은 법연(法緣)이지, 한 갓 이름으로 맺어진 사제(師弟)가 아닙니다. 해제라고 해서 마음을 풀어 놓지 말고 몸은 비록 팔방(八方)에 있더라도 납자로서 본분을 잃지 않도록 바랍니다. **〈후략〉**

산에 오르며 산 찾는가

쌍계총림 쌍계사 방장 고산 스님

時會大衆元丈夫(시회대중원장부)어늘 如何曠劫沈愛河(여하광겁침애하)오.

一朝消盡無明業(일조소진무명업)하면 金烏夜半徹天飛(금오야반철천비)하리라.

시회대중은 원래 대장부거늘 어떻게 광겁에 애착의 강물에 침몰하는고? 하루아침에 무명업만 소멸하면 금까마귀가 한밤중에 하늘에 사무쳐 날으리라.

古人(고인)이 云(운) 身在井邊休覓水(신재정변휴멱수) 하고 日行嶺上莫尋山(일행영상막심산) 하라고 했으니 大衆(대중)은 善省察(선성찰) 하라.

夜夜抱佛眠(야야포불면) 하고 朝朝還共起(조조환공기)어늘 如何不了(여하불료)오?

良久(양구)에 一喝云(일할운) 疑團獨露(의단독로)하야 消盡妄想(소진망상)하야사 始得(시득)다.

求生必死(구생필사)하고 決死返生(결사반생)하니 決死精進(결사정진)하야 一刀兩斷(일도양단)하고 超佛越祖(초불월조)하면 眞是出格丈夫(진시출격장부)니라.

고인이 이르시되 몸이 우물가에 있으면서 물을 찾지 말고, 날마다 산위에 오르면서 산을 찾지 말라 했으니 대중은 잘 살펴보라.

밤마다 부처를 안고 누워 자고, 아침마다 부처를 안고 일어나거늘 왜 깨닫지 못하는고?

잠깐 있다가 "할"을 한 번 하고 이르시되 의심뭉치가 홀로 드러나서 망상이 소멸하야사 비로소 옳다. 살기를 구하면 반드시 죽고 죽기를 결심하면 도리어 살아나니 죽기를 결심하여 정진해서 한칼로 두 끝을 내고, 부처를 뛰어넘고 조사를 뛰어넘으면 참으로 이 격에 뛰어난 장부니라. **〈중략〉**



게송으로 이르시되 진로를 멀리 벗어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님이니 긴하게 고삐를 잡아 한바탕 공부를 지어라. 한 번 뼈에 사무치는 추위를 겪지 아니하면 어찌 매화가 코를 찌르는 향기를 내겠는가?

할 수 있을 때 공부하라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



금조상원절(今朝上元節)이니 설소견청춘(雪霄見晴春)이라. 장공월일륜(長空月一輪)하니 기찰등천점(幾刹燈千點)인져.

오늘은 정월대보름이니 눈발이 멈추면 해맑은 봄을 만나리라. 하늘에는 보름달이니 선당(禪堂)에는 얼마나 많은 법등이 켜질고.

동안거 해제일입니다. 동시에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였습니다. 보름달과 선문(禪門)은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고금이래로 달을 보며 수많은 선문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선가(禪家)뿐만 아니라 세속가(世俗家)에서도 '달은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본다'는 지월(指月)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며, '천강에 비친 달'이라는 월인천강(月印千江)도 사부대중에게 익숙한 용어입니다.

영가현각(永嘉玄覺)선사는 증도가(證道歌)에서 '월인천강'이라고 하였습니다.

"일월(一月)은 보현일체수(普現一切水)요 일체수월(一切水月)을 일월섭(一月攝)이라."

하나의 달은 모든 물에 두루 나타나지만 그 모든 달은 하늘에 있는 하나의 달이 포섭합니다. 그런 까닭에 천개의 그릇을 나란히 놓았을 때 각 그릇에 비친 천 개의 달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맑은 강물에는 한 개의 온전한 달이 홀로 비칩니다.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 맑은 물과 탁한 물, 달거나 쓰고 떫거나 짜거나 싱거운 맛 등의 갖가지 물에 이르기까지 두루 나타납니다. 이는 마치 한 개의 달이 물이 있는 곳이라면 강 늪 바다 시냇물 연못 등에 모두 비치는 현상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물에 비친 달을 하나의 달이 거둔다고 했습니다. 갖가지 물에 나타난 제2월(第二月)은 알고 보면 오로지 제1월(第一月)의 또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이처럼 선당(禪堂)에도 눈 푸른 대중의 숫자만큼 법등(法燈)이 함께 빛날 것입니다.

오늘 해제라고 하는데 진정한 해제는 공안을 타파해서 생사문제를 해결해야 진정한 해제라 할 것입니다. 이제 해제를 맞아 산문을 벗어나더라도 힘 따라 애써 정진해야 됩니다. 우리는 공부를 할 수 있을 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숨을 쉬다가 숨을 쉬지 못하면 내생(來生)입니다. 내생(來生)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초발심자경문〉에 금생에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물방울도 소화시키기 어렵다하고, 삼일 동안 마음 닦는 것은 천년 동안의 보배가 되고, 백 년 동안 물건을 탐하는 것은 하루아침 티끌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공부가 훤출하고 확연해야 됩니다. **〈후략〉**

활발발은 사회에 던진 시대정신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

결제대중들이 겨울 내내 정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겨울한기를 이겨내며 공부에 매진했을 텐데 스스로 마음에 흡족합니까?

저는 얼마 전 서옹 큰스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활발발지(活鱍鱍地)를 새겨보았습니다. 대혜보각선사 서장 가운데 삼돌장(三咄狀)을 읽다가 그리 되었습니다. 더불어 대혜 스님께서 묵조선을 비판하시고 간화선을 제창하신 뜻도 떠올렸습니다.

대혜 스님께서 사셨던 시대는 그야말로 천하대란의 지경이었습니다. 금나라에게 수도인 변량을 함락당해 황제였던 휘종과 흠종은 잡혀갔고 양자강 이남으로 피란을 하여 겨우 조정을 꾸려 버티던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송나라는 국초부터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풍조가 있었는데 오대십국의 혼란을 겪은 후 가급적이면 아무 일 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는 송태조 조광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나라와 사회에 가득했었고 점점 무사안일이 사회전반을 좀먹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게으른 것은 탈속(脫俗)으로 오도되고, 가만히 있는 것을 최고로 칠뿐 진취적인 기상은 죄악시 되었습니다.

본디 묵조선(默照禪)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수행방법이었으니 삿된 선(死禪)이라는 말이 맞지는 않습니다. 저는 대혜종고 스님께서 이런 비판을 왜 하셨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바로 사회뿐 아니라 절집 안에서도 마음 쓰는 것 없이 종신토록 멍청히 앉아 있던 그런 구태들을 쳐버리신 것으로 생각해봅니다. 한마디로 대혜 스님께서 말씀하신 활발발(活鱍鱍)은 당시 불교계와 나라와 사회에 던지는 일종의 시대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작금의 우리 사회와 절집을 대혜 스님께서 보셨더라면 무슨 말씀을 하셨을지 식은땀이 흐릅니다. 시대가 필요로 하는 정신과 수행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



들도 대혜 스님께서 일갈하셨던 삿된 선(死禪)을 행하는 것이 아닐까하고 말입니다.

우리 정진대중들은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공에 체하고 고요함에 파묻혀(沈空滯寂) 큰 잉어가 꼬리를 쳐서 물살을 헤쳐 나가는 그런 기상을 잃은 것은 아닌가하고 말입니다. **〈후략〉**

연화장세계 만들어내자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

毛呑巨海(모탄거해)요 芥納須彌(개납수미)로다.

碧漢一輪滿(벽한일륜만)하니 淸光六合輝(청광육합휘)로다.

踏得故鄕田地穩(답득고향전지온)하니 更無南北與東西(경무남북여동서)로다.

한 터럭이 큰 바다를 삼키고 겨자 속에 수미산이 들어가네. 푸른 하늘에 달이 밝으니 맑은 빛이 육합에 빛나네. 고향 땅 밟아 안온하니 다시 남북동서가 없네.

총림대중이 삼동결제를 성만하고 해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삼동결제를 성만한 인연은 옛 가르침에 대한 안거대중의 환희와 신심 있는 단월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안거법도가 원만하게 실천된 일은 크게 희유하다 할 수 있으며 안거를 통해 삼계대도사의 안목을 구족하게 된 인연도 또한 크게 희유한 일입니다.

삼동결제를 성만한 인연을 통해 안거대중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발걸음으로 산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선정으로 체득한 지혜안목으로 이제 수행자는 삼륜이 청정한 무주상보시를 행하고 사신(捨身)보시를 통해 무량공덕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지계바라밀을 실천하되 삼취정계의 보살계법과 최상승의 무생계를 실천하고, 능히 인욕바라밀을 실천하되 고통을 참는 일이 아닌 지혜와 능력을 증장하는 한량없이 즐거운 일로 기쁨과 환희 속에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만남의 인연이 참정진 아님이 없게 되었으며 그 결과 방편은 원만하고 원력과 지혜도 수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산문을 나서는 해제대중이여!

발길 머무는 곳마다 연화장세계가 이루어지도록 정진하는 일을 쉼 없이 해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고 발심하는 일이 곳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연화장세계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得之在心(득지재심)이요 應之在手(응지재수)라.



雪月風花(설월풍화)요 天長地久(천장지구)라.

朝朝鷄向五更啼(조조계향오경제)하고 春來處處山花秀(춘래처처산화수)로다.

얻는 것은 마음에 있고 쓰는 것은 손에 있네. 눈 위의 달빛과 바람에 흔들리는 꽃이여. 하늘은 높고 땅은 넓다네. 아침마다 닭은 오경에 울고 봄이 오면 산마다 꽃이 아름답네.

지면 관계상 법어 전문을 싣지 못했습니다. 전문은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새싹불자 음성공양 즐겨보자”

제3회 천진불어린이연합합창제 2월 23일 개최

어린이 포교의 새 장을 열고 있는 천진불어린이연합합창단이 올해에도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회장 성원)는 ‘언제나 기쁨으로 화합의 노래를’이란 주제로 제3회 천진불어린이연합합창제를 2월 23일 오후 5시 부산영도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한다.

합창제는 총 8개 사찰 △부산 관음사 선혜단이슬합창단 △영도 대원사 대원선재합창단 △ 흥법사 동림소년소녀합창단 △안국선원 안국어린이합창단 △함양 서암정사 상림어린이합창단 △울산 황룡사 나모라어린이합창단 △제주 약천사 리틀붓다어린이합창단 △신제주불교대학 보리왓 보리수어린이합창단이 참여한다. 공연은 합창단별로 3곡씩 준비해 무대를 장식하며, 각 합창단의 특색을 볼 수 있는 장이 될 전망이다.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는 3년 전 어린이 포교를 위해 창단됐다. 이후 전국 사찰을 다니며 합창단 창단을 권유하고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새로운 포교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 대광명사와 동화사는 어린이합창단을 창단했으며, 진흥사와 한국불교대관음사 등 각 사찰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현재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에서 활동하는 합창단의 포교 성과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새싹 불자 양성이다. 대원사의 경우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곳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대부분 초심자로 처음 절을 찾는 사람들이여서 의미가 더욱 크다.

회장 성원 스님은 “합창단 창단을 통해 불교 초심자들이 편하게 절을 찾고 불교와 친숙해져 더할 나위 없는 포교 성공 사례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빛고을 빛낸 불교계 자비나눔

신광사 · 연화사 등 입춘기도 회향 쌀 나눠

광주 신광사(주지 동현)는 2월 13일 입춘기도 회향을 맞아 신도들이 시주한 쌀 1,700㎏을 빛고을나눔나무 등 지역 불교단체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동현 스님은 “매년 1년간의 평안을 기원하는 정월에 시주한 쌀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으로 전달된다”며 “이 같은 공덕으로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늘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광주 지산동 연화사(주지 명신)도 같은 날 기도회향을 맞아 2,400㎏ 쌀을 광주지역 불교단체에 전달하고 신도들의 정성을 지역사회에 회향했다.

명신 스님은 “지역에는 정말 열심히 하는 불교단체가 많이 있다. 이 단체들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불교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신도들이 모은 자비의 쌀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리는 좋은 씨앗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광주지역은 20여 년 전부터 매년 정월기도와 입춘을 맞아, 신도들이 모은 쌀을 지역사회에 전달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부산불교교육대, 승가 교육도량 도약

승려연수기관 인증 특강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은 2019년 조계종 승려연수기관으로 인증받고 이를 기념하는 특강을 마련한다. 특강은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의 ‘화엄 세계의 이해’란 주제로 3월 12일 오후 7시 부산 서면 신동아오피스텔 5층 부산불교교육대학에서 진행된다. 이어 3월 19일~4월 2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는 신규탁 연세대 교수가 ‘경전에 근거한 재가불자들의 수행방법’을 강의한다. 특강 참가비는 무료다. 승려연수는 유식 30송을 주제로 올해 9월 열리며 이만 동국대 명예교수가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불교교육대학은 2019년 신입생을 모집한다. 정규 과정은 △기초교리학과 △불교학과 △대학원 △수화과 △다도과가 있으며, 힐링과정으로는 △웰빙힐링장생아카데미 △민요반 · 대금반 · 사물놀이단 △합창단이 개설된다. 특히 불교문화포교사에 도전할 수 있는 불교문화학과도 모집 중이다. 입학식은 3월 11일 오후 7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통알 삼배’ 새 불교문화로 확산

삼보종찰 새해 인사 순례, 역대 최다 인원 찾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설 명절을 맞아 불법승 삼보를 상징하는 불보종찰 통도사, 법보종찰 해인사, 승보종찰 송광사에 세배를 올린 불자들이 올해 역대 최다인 것으로 집계됐다. 각 개인 사찰에서 진행하던 ‘통알 삼배(삼보에 새해 인사를 올리는 문화)’가 삼보사찰을 직접 방문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전국 불자들의 신심을 고취하는 기도 문화이자 새로운 명절 문화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설 명절 연휴가 끝난 주말 2월 10일 새벽, 통도사 산문 앞에는 대형버스 행렬이 줄을 이었다. 새벽예불에 참석하고자 찾은 불자들의 행렬이었다. 삼보 사찰 순례 가운데 첫 번째 사찰로 통도사를 방문한 불자들이다. 통도사에 따르면 올해 가장 많은 불자들이 참여해 설법전에 들어가기 위한 줄이 이어졌고 지하 문수법당까지 자리가 가득 찼다.

이날 통도사 새벽예불을 찾은 삼보회 불자들만 800여 명으로 대형 버스 17대가 움직였으며, 금강자비회 및 신행단체 불자들까지 포함해 4000여 명이 새벽예불을 찾았다. 이날을 제외하고 설 명절까지 포함하면 통도사에는 1만여 명이 넘는 불자들이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보회는 17년 전 통알 삼배를 대중문화로 이어가도록 순례를 시작했으며, 현재 가장 많은 대중을 이끌어 통알 삼배에 동참하도록 돕고 있다.

해인사와 송광사에도 새해를 맞아 예불 시간에 맞춰 찾아온 불자가 역대 최다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광사 원주 시안 스님은 “최근 5~6년 사이 더 활성화 된 것 같다”며 “찾아오신 분들의 신심과 원력에 감사하고 요즘처럼 불자가 감소하는 시대에 정초 맞아 찾아주는 불자를 보면 힘이 된다”고 말했다.

통도사에만 1만여 명 몰려
해인사 · 송광사도 인산인해
새벽예불 맞춰 불자들 찾아
“몇 년 새 사람 부쩍 늘어”

정분남 삼보회 회장은 “매년 삼보사찰을 찾아다니지만 이렇게 설법전에 줄을 서서 들어가는 일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17년 전 버스 한 대로 시작해 꾸준히 사람이 늘어나더니 이젠 인원이 많아져서 보람도 되고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명절을 맞아 불법승 삼보를 상징하는 불보종찰 통도사, 법보종찰 해인사, 승보종찰 송광사를 방문해 세배 올리는 불자들이 늘고 있다. 사진은 10일 새벽 불자들이 통도사 전각 앞에 줄을 선 모습.

불자들은 각 사찰을 방문해 기도하며 공양비를 올리고 있다. 특히 삼보회는 참가자의 회비를 모아 버스 이용료를 제외하고 모두 대중공양금과 후원물품으로 회향하고 있다. 또한 각 선방을 방문해 유나 스님에게 대중공양금을 전하는 등 후원으로 첫 한 해를 시작한다. 대중 공양금 및 후원품에는 전국불자들의 십시일반 정성도 이어지고 있다. 순례에 동참하지 못하는 불자들은 미리 삼보회에 연락해 대중공양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삼보회 임원들은 대중공양을 조금이라도 더 전달하기 위해 밤새 직접 국을 끓이고 주먹밥을 손수 만드는 수고도 아끼지 않는다.

성희강 삼보회 총무는 “1년 전부터 준비해 버스 탑승 인원을 확인하고 음식도 준비하는 등 수고로움이 있지만, 매년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환희심에 정말 뿌듯하고 행복하다”며 “정초에 불법승 삼보에 세배함으로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분남 회장은 “삼보가 없으면 불교도 없다. 삼보의 소중함을 알리고 삼보 통알, 세배 올리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석하니 더욱 기쁘다”며 “새로운 불자들의 문화로 포교를 위한 방안으로도 기획되고 발전되면 더욱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전주에 세계평화명상센터 첫 삽

서고사 일원 100억 예산
2020년 완공 목표 공사



전주 서고사 부지서 진행된 명상센터 기공식.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세계평화명상센터가 전주에 들어선다.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주지 성우)는 1월 30일 전주시 만성동 서고사에서 세계평화명상센터 건립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과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 부주지 일원 스님, 남고사 주지 원혜 스님을 비롯한 본말사 대중스님들과 이근재 전북불교신도회장, 정동영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정운천 국회의원, 김송일 전북부지사, 김양원 전주 부시장 등 불자 150여 명이 동참했다.

월주 스님은 기공식에서 법어를 통해 “마음을 닦아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참선과 명상 등 수행을 통해 가능하다”며 “첫 삽을 뜨게 되는 세계평화명상센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풍요와 휴식을 제공하고 요익중생하는 도량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서고사에 건립하게 될 세계평화명상센터는 총 100억 원의 예산(국비 30억 원, 지방비와 자부담 각 35억 원)을 투입해 8만6% ㎡의 부지에 명상생활체험관, 교육복합관 등 총 3,358㎡ 규모의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올해 7월까지 부지조성공사와 명상체험관을 우선 건축하고 내년에 교육복합관을 건립해 2021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금산사는 세계명상센터가 건립되면 명상생활체험을 통한 평화와 공존의 정신 확산과 한류정신을 대표하는 전주시의 정체성과 종교문화 도시의 모델 구축, 미륵사지 및 한옥마을과 연계한 명상체험 관광지 조성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창군노인복지관 일자리사업 발대식

어르신 317명 활동 예정

고창군노인복지관(관장 대원)이 2월 11일 관내 대강당서 ‘2019년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 및 안전교육’을 개최했다. 발대식은 선배시민 대표 신형범 어르신의 시낭독을 시작으로 내빈소개, 축사, 참여자 선서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고창경찰서 조태송 계장과 이희종 석정웰파크병원 원장이 강사로 참여해 어르신들에게 교통사고 예방교육과 건강관리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고창군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공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관리 지원사업, 학교주변환경 안전계도관리 지원사업, 건강체조 및 취미여가 지원사업, 지역보육시설 및 아동센터도우미 파견사업, 행복나눔이 어르신문화체험 지원사업 등으로 구성돼 총 317명의 어르신들이 활동할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9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 집
-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9년 2월 27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 (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 ▶교학처 : (02)511- 2026, 2027 Fax (02)511- 2028
- ▶총장실 : (02)511- 1080
- ▶http://www.njutcm.co.kr

혜민 스님 특별법회

마음의 고통 원인은 생각에 있다

주제 :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마음치유학교장 혜민 스님



혜민 스님은… 1996년 캘리포니아주립대 버클리캠퍼스에서 종교학 학사를 받았다. 1998년 뉴욕 불광선원서 출가해 2000년 해인사서 사미계를 수계했다. 이후 하버드대 대학원 종교학 박사를 취득했다. 현재 뉴욕 불광사 부주지, 마음치유학교 교장을 맡고 있다. 사진제공=서울 봉은사

상대 변화시키려는 마음
이뤄지지 않으면 고통 돼
받아들이는 연습을 통해
마음의 고요함 느껴보자

우리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수용이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바꾸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 남편, 직장 상사를 내 마음에 맞게 바꾸고 싶어 하죠. 그런데 문제는 상대가 자기 마음에 맞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대를 계속해서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너는 지금 문제가 있다' '지금 이런 상태로 살면 안 된다' 등 변하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각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해주길 원하니까요. '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길 원하면서 남은 바꾸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상황, 상반된 마음 두기

제가 워싱턴 D.C.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기차를 타러 뉴욕에 있는 역으로 가려는데, 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려고 했어요.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뉴욕 지하철은 24시간 운영돼요. 만들어진 지 100년이 넘었고요. 그렇다보니 매우 낙후되고 고장이 잘 나겠죠? 하필이면 제가 타야하는 그 시간에 라인이 고장나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멀리 돌아서 가야하게 됐어요. 원래 12시 기차를 타야하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딱 12시 1분이었어요. 1분 차이로 제가 기차를 놓친 거예요. 제가 마음을 어떻게 잘 먹느냐에 따라서 고통스러울 수도, 수용해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 상황에서 많은 분들은 억울해하거나 뉴욕 지하철을 탓하며 화를 낼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한테만 손해예요. 저는 이때 '마음을 잘 먹어야지.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나를 지금 상황에 피해자로 만들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내가 지금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하고요. 그런데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간 일주일 동안 뉴욕에서 지내면서 운동을 못했어요. 날이 추워서 밖에 나가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그날 제가 지하철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엄청 뛰었어요. 덕분에 운동을 아주 제대로 했다고 마음을 먹게 됐죠.

두 번째는 정시 기차를 탔으면 허겁지겁 타느라고 기차 식당 칸에서 샌드위치 같은 것으로 대충 식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 기차 시간을 보니 1시예요. 갑자기 1시간 여유가 생겼잖아요. 이건 '제대로 밥을 먹으라고 우주가 나를 배려해준 거구나' 했지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보니까 지금 상황이 수용하지 못할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살다보면 우리에게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가운데 내가 마음을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곳에 두는지, 긍정적인 곳에 두는지 살펴보세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건 내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하죠. 날씨나 기차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할 순 없어요. 하지만 그 날씨에 대한 나의 반응, 기차 시간에 늦은 내 마음은 나에게 달린 것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울 때 오늘 날씨가 추워서 '안 좋다'라고 부정적인 곳에 내 마음을 둘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도 또한 부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반대로 오늘 날씨가 춥지만 미세먼지가 없어서 좋다고 생각하면 어떤가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는가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도, 못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수용하지 못하면 내가 고통스러워집니다. 일어난 일들을 내가 바꿀 수 있으면 좋겠지만 바꾸지 못하는 일들이 훨씬 많아요.

병에 걸렸을 때를 예로 들어볼게요. 병을 없애면 좋겠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 때도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는가에 따라서 스스로를 이 상황의 피해자로 만들 수도, 상황을 수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플 때 '지금 이 정도라서 다행이다' '이보다 더 나쁠 수도 있는데 다행이다'라고 마음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남은 생은 가족들과 여행도 가고 그동안 하지 못한 따뜻한 말도 하고, 평소 말로만 불자로 살았는데 조금 더 제대로 수행이나 기도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마음을 돌리면 지금 불행한 것이 오히려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마음 아닌 생각 알아차리기

물을 보면 물 자체는 아무런 모양이 없어요. 그런데 물을 어느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로 어떤 모양이 정해져있지 않아요. 내가 마음을 생각이란 어떤 형태에 담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마음을 부정적인 생각에 두면 부정적인 모양으로 바뀌고 긍정적인 생각에 두면 긍정적인 형태로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내 마음이 고생스럽고 힘든 순간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 마음이 힘든 이유가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이 아닌지를 관찰하세요. 내 마음의 고통의 원인이 바로 생각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고통 속에서 나올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 속에 빠져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수레바퀴 속에서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고 그 생각이 진실이자 현실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 빠져있을 때에 힘든 거예요. 눈앞에 일어난 지금 상황이 아니라 과거나 미래의 일에 대해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내가 자꾸 나쁜 생각을 일으키거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그게 현실이 아니고 또한 진실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셔야 해요. 이를 알아차리면 고작 생각이었다는 걸 알게 됨과 동시에 생각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부담감'으로 괴로워해요. 미래에 '혹시나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경우가 많죠. 걱정스런 생각을 떠올려 밤잠을 설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 경험이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이나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란 생각으로 인해 불안해지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미래에 대한 생각과 불안감의 95%는 쓸데없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거나 만약 일어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들이라고 해요. 불안해한다는 생각이 있을 때마다 고작 내 생각에 불과하지 진실이 아니라고 여겨보면 어떨까요? 생각 속에 빠져있으면 내 앞에 정말 맛 좋은 차나 음식이 있어도, 좋은 사람과 즐거운 이야기를 해도, 아름다운 풍경을 봐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어요. '아차! 내가 생각 속에 빠져 있었구나.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 스스로 생각을 일으켜 불안하게 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앞에 놓은 커피를 마셔보세요. 바로 눈앞에 있는 것에 관심을 두면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돼요. 커피가 맛있다고 느끼면 동시에 생각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또 숨을 편하게 쉬어 보세요. 현재 일어나는 편안한 숨의 감각을 통해 생각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스님들이 명상수행을 할 때 처음 숨에 집중하라고 하죠. 숨을 가다듬으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수식관이에요. 몸의 감각으로 돌아오거나 숨에 집중하는 방법을 한 번 써 보세요.

고요함과 친해져 마음 바로보기

이제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고요할수록 밝아진다는 말을 듣자마자 무슨 뜻인지 딱 감이 오나요?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고요해지면 생각이 없어져요.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에 빠져있구나'를 알아차리는 순간 생각에서 빠져나와 있어요. 이를 선사들은 성성적적(惺惺寂寂, 깨어있되 번뇌가 없는 상태)이라고 하셨고 다시 현대말로 푼다면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전에 제가 쓴 책 제목 중에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도 지관(止觀, 마음을 고요히 하여 진리의 실상을 관찰하는 수행법)을 쉽게 풀어낸 말이거든요.

불교에서는 아는 것, 알아차리는 것을 빛(光)에 비유합니다. 마음이 밝아진다는 것은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뜻입니다. 고요하면 마음 자체의 성품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를 과거 큰스님들은 공적영지(空寂靈知)라고 했어요. 공적은 텅 비고 고요한, 영지는 신령스럽게 깨닫는다는 의미인데요. 우리 마음의 성품을 알아차린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이 고요해지면 아무 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앎의 작용은 한순간이라도 멈출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눈 감고 귀를 닫은 채로 아무 것도 알지 않겠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소리가 들리지도 깜깜해서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을 모르지 않죠. 앎 자체를 멈출 순 없어요. 이미 내가 갖고 있는 부처의 성품을 항상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불성은 마음의 성품이자 곧 앎입니다. 앎은 내 몸 밖에도 있고 몸 안에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부처 성품입니다. 내 몸 안의 상태와 밖의 상태를 다 아는 거예요. 이 앎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앎의 상태는 모양이 없어요. 세상으로 몸을 나툰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한 순간이라도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항상 쓰고 있는 것이 불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불성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양이 있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을 둬요.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나면 그때는 마음이 고요한 채로 앎의 활동이 있는 바탕을 견지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생은 부처 성품을 갖고 살면서도 모르고 살지요. 그래서 고요함과 친해지셔야 해요. 생각이 사라지는 자리에 마음이 고요한 채로 아는 앎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찾는 부처님입니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2월 10일 경내 법왕루서 혜민 스님을 초청해 특별 일요법회를 봉행했다. 혜민 스님은 "긍정적인 마음먹기를 통해 나에게 일어난 상황을 수용한다면 괴로움을 줄일 수 있다"면서 "생각에 사로잡힌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안의 불성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리=김지원 기자

대원불교문화대학 신입생 모집 2019년 1학기

대 학 | 2년 4학기

불교심리 상담학과 (• 주간·야간 • 수, 금요일)
불교심리학 / 유식심리학 / 명상심리학 / 상담심리학 / 발달심리학 / 심리검사 및 평가 / 통합적상담방법론 / 철학적 인간학 / 마음챙김 명상과 행복 / 성격심리학 / 집단상담Ⅰ / 철학과 심리 / 명상과 치유 / 긍정심리학 / 바디-마인드 심리치료 / 삶과 죽음의 심리 연구 / 자아초월과 심리치료 / 상담 면접기술 등

명상학과 (• 주간·야간 • 수, 금요일)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 / 불교수행과 실습 / 뇌, 불교수행 그리고 인식 / 마음챙김 명상과 행복 / 철학적 인간학 / 비교명상의 이해 / 유식심리학 / 철학과 심리 / 명상교수법 / 명상과 치유 / 동·서양 철학의 행복론 / 불교심리학 / 사마타와 위빠사나 실습 / 불교와 마음치료 / 삶과 죽음의 심리연구 / 명상심리학 등

입학자격 정규 고등학교 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이상을 이수한 분
강의시간 – 주간 : 제1교시 14:00~15:30 / 제2교시 15:40~17:10
– 야간 : 제1교시 19:00~20:30 / 제2교시 20:40~22:10
수 업 료 300,000원(학기당)

대학원 | 2년 4학기

불교심리 상담학과 (• 야간 • 수, 목요일)
자아초월과 심리 치료 / 뇌과학 과 심리치료 / MBSR 과 수용 전념치료 / 개인상담 사례연구 및 실습 / 마음챙김 명상과 행복 / 철학적 인간학 / 집단상담Ⅱ / 부부 및 가족상담 / 유식심리학 / 철학과 심리 / 불교심리학 / 명상과치유 / 정신병리학 / 불교수행과 정신치료 / 명상심리학 / 삶과 죽음의 심리연구 / 상담과 철학 등

입학자격 – 본 대학 또는 불교교양대학 불교심리상담 과정을 이수한 분
– 정규대학 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이상에서 상담 관련학 전공으로 졸업(예정)한 분
강의시간 야간 : 제1교시 19:00~20:30 / 제2교시 20:40~22:10
수 업 료 400,000원(학기당)

특전
특전 ❶ | 장학금 수여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 수여
특전 ❷ | 수업료 할인 스님, 가족동반(부부,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1인에 한해) 등록금 50% 할인

원서접수 및 문의
접수처 : 대원불교문화대학 학사관리처
홈페이지 : www.kbpf.org
전화 : (02)707-1072, 팩스 : (02)3273-1618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불교방송) 3층 대원불교문화대학

제출서류 및 전형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www.kbpf.org 접속 후 대원불교문화대학에서 접수가능)
전형방법 : 서류전형(심사 후 개별통보)
교부 및 접수기간 : 2019년 3월 5일까지
개강 : 2019년 3월 6일 (수) (주간 오후 2시, 야간 오후 7시)

오시는 길
서울 지하철 5호선 마포역 4번 출구 다보빌딩(불교방송) 3층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www.kbpf.org

예술은 짧고, 인생은 길다



김원숙의
불교와 미학

③ 백남준의 〈백팔번뇌〉



백남준의 '백팔번뇌'. 1988년 경주 문화엑스포 행사를 맞아 제작한 것이다. 108개의 모니터로 광복과 전쟁 등 한국의 근현대사를 담았다. 작품 앞에 서면 과거 · 현재 · 미래가 윤회전생처럼 펼쳐진다.

누군가 백남준에게 물었다. "선생님 작품이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백남준의 대답이 걸작이다.

"메시지는 뭔 메시지...메시지를 전하려면 말로 하지, 그걸 왜 어렵게 작품으로 합니까? 나는 메시지 전달엔 흥미 없고, 또 돈 많은 헐리우드 영화업자에게 당할 재간 없지요."

그는 서양 아방가르드 흐름에는 공(空)의 사상이 자리 잡고 있다고 자주 언급했다. 한 인터뷰에서 질문자가 "존 케이지의 전위음악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 난해하고...더구나 자주 접해보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관객들은 난해하게 여길 터인데 존 케이지의 작품세계에 대해 말씀해주시죠"라고 했다.

백남준은 "그럴 리가요? 존 케이지는 불교나 동양사상에 심취한 사람이라 우리에게 오히려 익숙할 텐데요?"라고 대답했다.

또 어떤 문화계 인사가 자신의 예술관을 꽤나 길게 이야기한 다음 백남준에게 물었다. "저는 이러이런 걸 예술이라고 생각하는데 백 선생께서는 무엇을 예술이라 보시는지?"

백남준이 대답하기를 "흠… 예술에 대해 꽤 아시네요. 난 잘 모르는데! 다음 질문?" 그러자 좌중에 폭소가 터졌다.

"예술은 사기다."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지만 값비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다이아몬드고, 다른 하나는 예술작품이다." 등 그가 세상에 던졌던 촌철살인의 한 마디 한 마디는 마치 선승의 화두와 같았다.

1984년 벽두, '굿모닝 미스터오웰'이라는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 작품이 인공위성 생중계로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 TV 방송에서 동시에 송출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의 이름은 우리나라에 그다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 방송 예고를 보던 많은 사람들은 "코미디언 백남봉은 알겠는데, 백남준은 도대체 누구냐"며 의아해 하던 사람들이 많았다. 물론 지금까지도 백남준은 국내보다는 해외 미술계에서 평가가 더 높다. "나는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아니라 세기(世紀)적인 아티스트다"라고 말한 그는 미술의 역사상 세기적이며 동시에 세계적인 탁월한 아티스트였다.

백남준은 20세기 중반 이후 모더니즘의 쇠퇴와 더불어 일어난 플럭서스 그룹에서 활동했다. 플럭서스는 라틴어 'fluere(흐르다)'에서 비롯된 말로 우연적이고 불확정적이며 무상하고 역설적인 성격을 지닌 그들의 예술세계를 함의하는 대표 어휘이다. 이 그룹에는 〈4분 33초〉라는 작품의 실험적인 전위음악으로 잘 알려진 존 케이지, '죽은 토끼에게 어떻게 그림을 설명할 것인가'라는 퍼포먼스로 유명한 요셉 보이스 등이 있다. 존 케이지는 미술사적으로는 마르셀 뒤샹의 정신을 계승하였으며, 정신적으로는 선불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진다.



선불교 영향을 받은 故 백남준 선생.

세계적인 아티스트 평가
근간에는 선불교 사상이
무상한 삶, 작품에 녹여내



석굴암 본존불을 형상화한 '백팔번뇌'.

〈백팔번뇌〉는 1998년 열린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행사 중 하나였던 '국제 멀티미디어 아트쇼'의 출품작이다. 이 작품을 통해서 백남준은 108개의 모니터로 8.15광복과 해방공간의 혼란, 동족의 참화였던 6.25전쟁을 표현했고, 1990년대 대중문화의 아이콘이었던 서태지와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한국 근대사를 담고 있으며, 동시대의 동서양 문화 역사 등을 아울러 보여 주고자 했다.

백남준은 일제 강점기였던 1932년 서울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비록 유복한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유년 시절을 보내기는 했으나, 광복과 전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그에게 나라와 민족의 역사적 질곡은 번민으로 다가왔다. 동경대 미학과 졸업논문이 '아르놀트 쇤베르크 연구'였던 걸 보면, 그는 애초 시각예술 장르보다는 음악에 더 관심을 가졌다.

음악가의 꿈을 안고 떠났던 독일 유학에서 그는 일군의 전위 예술가 그룹과 조우하게 되었고, 1963년 첫 개인전을 출발점으로 자신의 예술 세계를 차츰 알려나갔다. 그가 떠났던 1951년은 전쟁의 참화가 나라를 폐허로 만들었던 시점이라, 1980년대 이후 일련의 작업을 위해 다시 찾은 모국의 모습은 그의 마음에 적지 않은 감회를 일으켰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점에서 작품 〈백팔번뇌〉는 백남준 개인의 번뇌이기도 하며, 자신의 여정과 정신적 고뇌를 이야기한 하나의 연대기처럼 느껴진다.

작품 앞에 서면, 백 여덟 개의 화면들이 만들어내는 현란한 파노라마에 잠시 어지러움을 느끼게 된다. 하나하나의 TV 모니터는 인간의 오감과 희로애락의 감정이 빚어내는 온갖 번뇌들을 보여준다. TV라는 매체가 작동하는 원리처럼, 시간의 흐름 속에 명멸하는 이미지들은 무의미하고 분절된 찰나들의 무한한 반복이기도 하고 (실제로는 약 1/20초로 나눠진 전자공학적인 여러 프레임들의 연속), 동시에 삶에서 부딪치는 수많은 사건들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회하는 윤회전생처럼 펼쳐진다. 백남준의 미디어작품 〈백팔번뇌〉를 지켜보고 있자면,

법신을 깨달음에 한 물건도 없으니
근원의 자성이 천진불이라
오음의 뜬 구름이 부질없이 가고 오며
삼독의 물거품은 헛되이 출몰하도다.

法身覺了無一物(법신각료무일물)
本源自性天眞佛(본원자성천진불)

五陰浮雲空去來(오음부운공거래)
三毒水泡虛出沒(삼독수포허출몰)

– 永嘉 玄覺, 〈연등회요(聯燈會要)〉권30 '증도가 證道歌' 중에서

당대의 승려였던 현각(665~713)이 조계(曹溪)의 혜능(慧能)을 찾아 문답을 통해 깨치고 그 깨친 경지를 노래한 시가 중 한 구절처럼 떠오른다. 마치 영원한 바다에 모든 것이 속절없이 오가는 생멸변화의 뜬구름과 번뇌의 물거품만이 일었다 사라짐을 마주하는 듯하다.

가야금 명인 황병기 선생을 만난 자리에서 백남준은 "예술은 짧고, 인생은 길다"고 말했다. 기원전 그리스 의학자 히포크라테스의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Ὁ βίος βραχύς,ἡ δὲ τέχνη μακρή)"라는 경구를 뒤집어 이야기한 것이다. 히포크라테스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바는 익혀야 할 의술은 많은데 인생이 짧다는 의미였다. 영어 '아트(art)'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테크네(τέχνη)'는 의술, 건축술, 요리술, 전술, 정치술, 처세술, 웅변술, 경작술 등 기술일반까지를 포함하는 용어였다가, 18세기 이후에 이르러 비로소 인간의 다른 여러 기술, 즉 수공예나 기계적 기술과 구별하여 오늘날 회화, 조각, 건축, 문학, 연극, 무용, 음악과 같은 예술 장르를 가리키는 미예술(fine arts)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백남준에게 기술이든지 예술이든지 그것은 인간의 삶만큼이나 본시 덧없고 무상한 것이었다.

동양에서 온 작은 체구의 한 청년이 서구 예술세계에서 이목을 집중시킨 계기는 1963년 독일 부퍼탈에서 개최된 첫 번째 개인전 '음악의 전시-전자 텔레비전'이었다. 이 전시에서 그는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자신의 예술 세계를 표현했는데, 이 해는 또한 마키우나스가 플럭서스 선언문을 세상에 내놓은 때였다. 플럭서스 작가들이 주요한 표현 수단의 하나로 사용했던 퍼포먼스, 행위예술이 이러한 우연적 특질, 덧없고 일시적인 특질을 나타낸다.

모든 새로운 예술 사조는 그 새로움에 대한 충격으로, 혹은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사람들에게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흔하다. 플럭서스 자체가 "기존 부르주아의 병폐와 지적이고 전문적이며 상업화한 문화를 추방하라"고 선언하며 일어났지만, 역설적으로 예술의 지위를 덧없고, 일시적이며 폐기 가능한 것으로 전락시켰기에 대량생산, 대량소비 시대의 부정적 양상과 유사한 자체 모순을 지닌다는 점을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서양 문명사의 흐름은 한편으로 기독교적 신앙을, 다른 한편으로는 플라토닉한 이상을 가지고 항구적이며 영원불멸한 존재인 신 또는 관념적 이데아를 추구하는 정신적 경향이 주류였다. 반면, 동양의 정신세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생멸하는 삼라만상의 이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한다. 불가의 사상이 그러하며, 노장사상이 그러하다. 플럭서스의 작가들은 동양사상에 심취하였고 이를 자신들의 작업에 반영하기를 원했다. 백남준의 퍼포먼스와 〈백팔번뇌〉를 비롯한 많은 비디오 아트 작품에서 보듯 부서지는 것, 깨어지는 것, 덧없이 흘러가고 사라지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 그들의 창작 의도 가운데 하나였다. 백남준은 플럭서스 그룹의 동료들과 함께 동양의 정신과 서양의 예술이 만나는 지점을 처음으로 마련하였고 미술의 역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2006년 백남준 타계 이후 2007년 2월부터 그의 유골함은 서울 봉은사 법왕루에 있고, 세계 곳곳의 수명이 다한 부품들로 인해 하나씩 꺼져 가는 그의 작품을 놓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란이 무성하다. 현재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 작품들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가동하기가 쉽지 않다. 옛 방식의 브라운관은 일정한 수명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곳이 없어 수명이 다하면 새 것으로 조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예술은 짧다'는 그의 말처럼 백남준이 만든 작품 역시 덧없는 모습으로 남아 있다. 다만, 생전에 황병기 선생을 충격에 빠트렸던 그의 말을 회상하자면, "예술이 오래갈 필요가 있느냐"고 특유의 무심한 말투로 한마디 던질 것 같다. 세상에 불변하고 영속하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기 마련이다. 예술도 마찬가지다.

〈미술학자〉

남갤마다라니

남갤마다라니는?

부처님께서는 33도리천에서 제석천에게 천자가 죽은 후 축생으로 태어나는 과보와 수명연장과 모든 업에서 벗어나는 법을 말씀하시었다. 이때 말씀하신 법이 "남갤마다라니"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제석천은 음성이 아닌 정수리의 육계를 통해 말씀을 전해 들었다.**

남갤마다라니

액자 (37×37㎝)

❶ 황금판
❷ 특수인쇄

액자를 구매하신 분은 남갤마다라니 21일 기도 축원해드리며, 차량 부착용 2매를 드립니다.

가격 : 100,000원

남갤마는?

"모든 것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다라니를 지니거나, 보거나, 듣거나, 염송하면 **"모든 악업이 닦이고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며, 부처님 정토에 태어나는 위신력이 있다"**하셨습니다.

차량운행 중 어쩔 수 없이 **동물이나 미물**들이 차에 부딪히거나 바퀴에 깔려 죽게하는 **살생(불살생계)**도 **과보가 무겁다** 했습니다. 차량에 남갤마다라니를 부착하면 죽어가는 **축생과 미물**들이 "천도"되어 운전자는 그 공덕으로 **살생의 과보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한 어떠한 **장애에서도 벗어날 수 있으며,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남갤마다라니의 위신력으로 사고방지와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지켜줍니다.

12cm

남갤마다라니
차량스티커

❶ 남갤마다라니
❷ 부처님의 [가사]색
❸ [불]을 형상화
❹ [옴]
❺ [팔길상] 상스러운 문양
❻ [금강저] 결계를 상징

가격 : 10,000원

디자인 의장등록 출원

붓다평화위원회 평화실현 기도도량 인천선원

문의 032)522-5554 010-6272-1655

농협 351-0982-3791-83 예금주 : 제드붓다 위원회



각 분야별 권위 있는 교수진의 열정적인 강의

나와 세상을 바꾸는 불교, 베품과 자비·지혜의 가르침

2019학년도 **불교학과 54기 신입생 모집**

불교학과 2년 과정
2019년 3월 7일(목)
오후 2시 개강

주간반 [매주목요일오후2시]
저녁반 [매주목요일오후7시]
통신반 [녹음CD배송 (동산불교대학 홈페이지 사이버아카데미에서 음원으로 강의 청취 가능)]

1년차	과목	1. 인도불교 2. 중국·한국불교 3. 법화경 4. 화엄경 5. 정토사상 6. 대승불교와 밀교
	교수진	법산 경일대종사(학장), 황순일 교수, 김경집 교수, 차차석 교수, 정성준 교수, 정엄스님
2년차	과목	7. 불교의 체계적 이해(아함경1) 8. 불교문화 9. 선불교 10. 근본불교(아함경2) 11. 반야사상 12. 유식사상
	교수진	이미령 교수, 최종석 교수, 윤열수 교수, 법인스님, 김호귀 교수, 활안스님, 최봉수 교수, 묘주스님

■모집 인원(불교학과) : 100명(주간반·저녁반·통신반 각 30명)
■제 출 서 류 : 입학원서1통, 반명함판사진2매, 입학금20만원
■원서교부 및 접수 : 2019년 1월 19일 ~ 3월 6일
■문 의 : (02) 732~1206~8
*2년 과정 졸업 후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한불련) 포교사고시를 거쳐 포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불교대학원 불교학과 개강
•행복한 화엄경 3월 5일(화) 오후 7시
•유 마 경 3월 5일(화) 오후 8시 20분
•대 반 열 반 경 3월 7일(목) 오전 11시

불교 관련학과 개강
•불교다도학과 3월 5일(화) 오후 2시
•불교미술학과 3월 7일(목) 오전 10시 30분
•전통범패의식 3월 6일(수) 오후 2시
•한글불교의식 3월 9일(토) 오후 2시/4시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
사무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동산불교회관)
Tel : (02) 732-1206~8 Fax : (02) 732-1207 http://www.dongsanbud.net

佛法은 심신 건강, 질병예방의 방편



임종욱의
붓다와 마주한 인생독법

③ 약사여래(藥師如來)와 사인사질(斯人斯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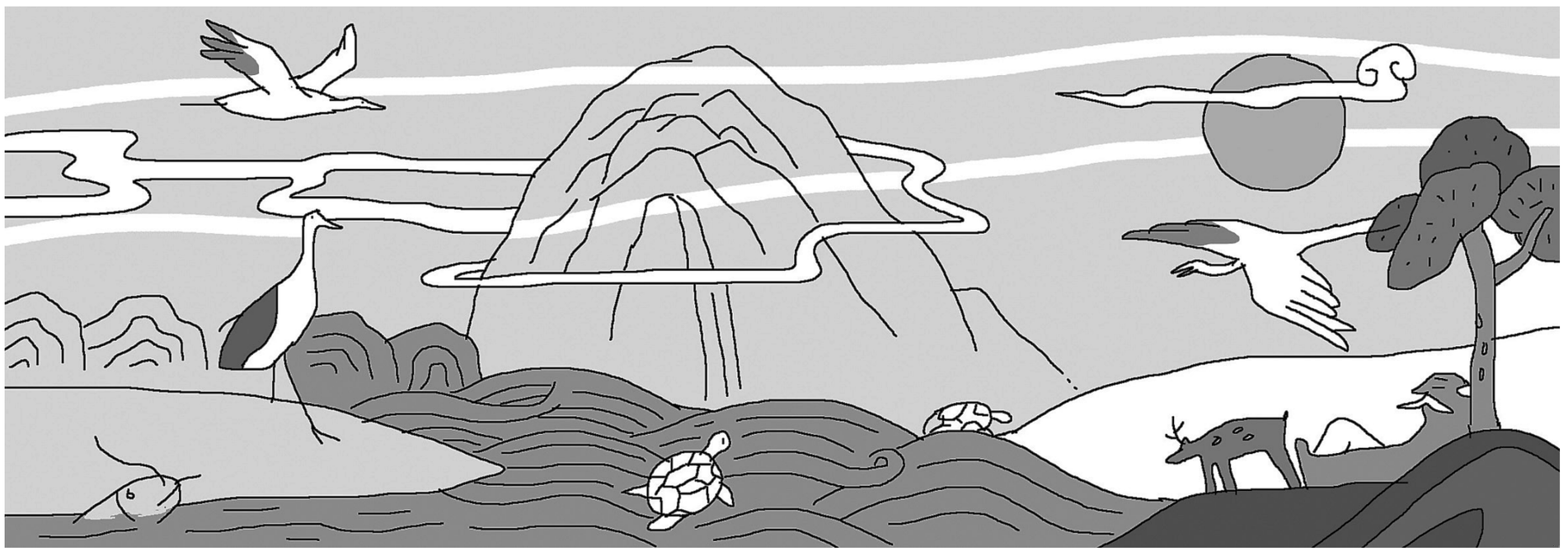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질병만큼 큰 괴로움은 없다

언제 사람은 나이가 들어 늙어버렸다고 느끼게 될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이들이 성장해서 애인을 집에 데려오거나, 결혼식에 자신이 혼주로 참석하게 되면 세월의 흐름을 실감할 듯하다. 또 어린 시절 뛰어놀던 고향의 언덕이나 강가가 문득 떠올라 아련한 그리움에 메마른 미소가 스쳐도 그런 기분이 들 것 같다. 더 이상 맡을 역할이 없어져 퇴직하고, 임기가 차서 은퇴하는 처지가 되어도, 젊은 시절은 가뭇없이 지나버렸고 조락(凋落)의 시간만 내게 남았다고 여겨지겠다. 아내나 남편의 얼굴에 언젠가부터 주름살이 느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왠지 모를 허탈감에 마음이 흔들려도 늙었구나 하는 울적한 회한에 빠질 수도 있겠다. 그러나 내 몸이 병들어 아프거나 주변 친지들의 와병 또는 부고가 전해질 때만큼 하염없이 세월의 무정함을 절감할 때가 있을까.

지난해부터 얼추 일 년 사이에 그간 알고 지내던 분들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자주 접했다. 아직 세상을 떠나지는 않았어도 치유할 수 없는 병환으로 희망을 놓아버린 지인의 사연도 심심찮게 귓전을 스쳤다. 얼마 전에는 남해에 내려와 자주 뵙던 한 작가의 문상을 다녀왔다. 건강이라면 늘 자신감에 넘쳤던 그 분은 덜컥 암에 걸리더니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건너가 버렸다. 게다가 그 기간 동안 조금씩 무너져내리는 모습이라니.

질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겪어보지 않고서는 잘 모를 것이다. 죽음의 고통보다 더 크고 잔혹한 것이 질병 때문에 찾아오는 통증이라고들 한다. 죽음의 고통은 생명이 끊기면 함께 사라지지만 질병의 고통은 병이 나을 때까지는 더욱 악착스러워지는 데다 치유되어도 후유증에 따른 고통은 여전히 남는다. 질병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했으면 병을 가리키는 '질(疾)'이라는 글자가 '미워하다(질시疾視)'는 의미로도 쓰였겠으며, 고통이 얼마나 빠르고 계속 이어졌으면 '빠르다(질주疾走)'는 뜻으로도 쓰였겠는가.

세상의 모든 종교는 결국 질병과 죽음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도 어쩌지 못하는 인간의 나약함이 빚어낸 산물이란 생각이 든다. 시간의 흐름은 강철도 녹슬게 만들고 단단한 바위도 모래로 만드는데, 하물며 피와 살과 뼈로 만들어진 연약한 사람의 몸이야 감당할 재간이 없는 게 당연하다. 서양의 종교는 영생(永生)의 논리를 내세워 신국(神國)에 가면 영원한 안식과 평화가 있다면서 죽음의 공포를 지우려고 한다. 모든 액운을 신의 무한한 섭리와 신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으로 푸는 일은 어떤 면에서는 참 실용적이고 속 편한 대안이다. 내게 던져진 절박한 불안을 타자의 처분에 맡기고 일시적일지라도 안도할 수 있으니, 그도 한편으로는 유익해 보인다.

동양의 종교가 죽음에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의타적이기보다는 능동에 가깝다. 남의 도움보다는 나의 노력을 앞세운다. 유교는 죽음보다는 삶에 충실하라고, 그러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다고 가르친다. 도교는 죽음이 두렵다면 아예 안 죽으면 되지 않느냐고 갈파하더니 장생술(長生術)이나 신선술 등을 설파하면서 이를 통해 불사의 길을 모색하라고 권한다. 불교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한다. 바로 윤회(輪廻, saṃsāra)다.

질병과 죽음도 하나의 과정이다

이 사상은 〈미린다팡하(彌蘭多王問經)〉라는 경전에 그 의미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단다. 이 경전에 따르면 윤회는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죽고,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은 저 세상에서 태어나며, 저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저 세상에서 죽는데, 저 세상에서 죽은 사람은 다시 다른 세상에서 태어난다"는 간결한 인과관계로 삶과 죽음의 연속성을 이야기했다. 과일나무가 열매를 키우고, 그 열매 속의 씨가 땅에 뿌려져 다시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듯이 윤회는 끝없이 이어진다고 한다. 다만 선업을 쌓아 선과를 얻으면 인간으로 태어나지만, 악업을 쌓으면 악과를 받아 축생(畜生)이나 그보다 못한 미물로 태어난다고 해서 자기 갱신과 수행에 힘쓰라고 일깨운다.

이처럼 죽음이라는 육신의 소멸과 그 소멸의 징조인 질병의 고통을 털어내고자 여러 답안이 나왔는데,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무뎌지지 않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러니 질병과 죽음은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으니, 새로운 결실을 위한 발걸음의 한 부분이라고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간이라면 피하지 못하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직접 목격하자 세상의 모든 부귀와 명예를 버리고 깨달음을 얻고자 출가를 단행했다. 그래서 해탈을 이루었다. 돌이켜보면 늙음은 세월이 가져오는 당연한 부산물이고, 죽음은 내세의 삶을 여는 문이라 항상 열려 있다. 다만 만물은 늙어 죽지 못하고, 늙고 '병들어' 죽으니 대자대비한 손길을 거둘 수 없었다. 질병은 죽음도 부르지만 죽음을 고통스럽게 맞도록 부추긴다. 질병은 예방도 가능하고 또 때로 치유할 수도 있다. 질병은 막무가내로 덮치기도 하지만, 인간의 안이한 태도나 무지 때문에 자초하는 경우가 많다. 늙음은 아주 천천히 오는 변화이고, 죽음은 느닷없이 닥치는 변화이다. 그것이 빠르든 짧든 거기에 맞춰 대처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그런데 질병은 대처가 쉽지 않다. 질병이 오면 몸과 마음이 다 아프기 때문이다.

> **고통서 중생 건진 부처님**
> **죽음은 내세 삶 여는 문**
> **이웃 고통 살피는 지혜 얻길**

석가모니 부처님은 한없이 큰 깨달음으로 해탈의 세계로 만물을 이끄셨지만, 질병으로 고통 받는 중생의 아픔도 외면하지 않았다. 부처님은 정사에 머물며 법문을 베풀면서도 환자들이 신음하는 병실을 방문하는 일을 거르지 않으셨다. 거기서 사람들이 버려둔 병든 수행승을 발견하자 손수 돌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을 돌보는 일은 나의 시중을 드는 일과 같다." 그 시중이 어찌 물질적인 헌신만을 뜻하겠는가. 부처가 되는 그 모든 수행을 비유한 것이었다. 병자를 돌보는 수행으로 부처가 되라는 일깨움이었다.

석가모니께서는 질병의 고통에서 중생을 건지고자 약사여래(藥師如來)라는 또 한 분의 거룩한 부처와 동행했다. 약사여래는 세상에서 질병으로 고통 받는 중생들의 수호신이다. 약사여래는 보살의 몸으로 수행하면서 12가지 대원(大願)을 세웠는데, 일곱 번째 대원이 제병안락(除病安樂)이었다. 모든 병을 없애고 즐거움에 편안하도록 하겠다는 서원이었다. 약도 없고 의사도 없이 고통에 문드러지며 죽음만 기다릴 때 병자가 자신의 명호 '약사여래'를 한 번이라도 들으면 몸과 마음이 절로 편안해질 뿐더러 아무런 장애도 없이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꼭 병들고 나서야 약사여래를 찾는 것도 좋지만 건강할 때 약사여래를 거듭 외며 상기하라고 말하고 싶다. 그게 바로 질병을 예방하는 방편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질병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되새기자

공자도 병든 이의 실상을 안타까워하며 그 고통을 무한히 연민하고 동정했다. 그리고 누구보다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고 한다. 〈논어〉 술이편(述而篇)에 보면 "스승께서 삼가신 일들은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하시는 것과 싸우는 것, 그리고 질병이었다(子之所愼 齊戰疾)"는 구절이 나온다. '제(齊)'는 몸과 마음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배려한 태도를 말하고, 싸움 때문에 상처를 입으면 질병으로 악화될 수도 있으니, 결국 사람이 살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일이 질병에 걸리는 것이라고 공자는 믿었던 듯하다.

〈논어〉 옹야편(雍也篇)에 보면, 제자 염백우의 문병을 갔을 때 그 고통을 차마 보지 못하고 깊이 탄식한 대목이 실려 있다.

"염백우가 중병에 걸렸다. 스승께서 문병을 하실 때 창문 너머로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럴 수는 없는데, 운명이로구나. 이런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리다니, 이런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리다니!' (伯牛有疾 子問之 自牖執其手曰亡之 命矣夫 斯人也 而有斯疾也 斯人也 而有斯疾也)"

염백우는 덕행이 안연과 민자건에 버금간다는 칭송을 들은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라면 질병에도 소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뜻밖에 '문둥병'이라는 몹쓸 병에 걸려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고 말았다. 아끼던 제자가 불치의 병에 걸려 죽음만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그저 손을 잡고 위로하면서 하늘이 내린 운명이라고 하소연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 공자도 병에 걸린 적이 있었다. 증세가 상당히 위중했는지 제자 자로가 귀신에게 빌어보자고 제안할 정도였다. 이에 공자가 의문을 나타내자 예전에도 천지신명에게 빈 일이 있다면서 강권하니, "그 일이라면 내가 빈 지 오래되었다.(丘之禱 久矣)"(〈논어〉 술이편)면서 거절의 뜻을 나타냈다. 귀신에게 빌어 치유를 꾀하는 어리석음을 꾸짖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병에 걸리도록 조심하지 않았던 자신의 불찰을 탓한 말로도 들린다.

올해는 간지로 따져 돼지의 해라고 한다. '돼지'가 좋은 비유로는 잘 쓰이지 않는 동물이지만, 돼지는 무엇이든 잘 먹고 잘 소화시켜 항상 건강한 짐승이기도 하다. 병을 모르고 사는 삶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큰 축복 가운데 하나라면, 부처님과 공자의 사람의 고통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본받으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로 '돼지'를 부적삼아 초심을 지키는 태도도 지혜의 실천이 아닐까 싶다.

〈소설가〉

명산 대찰 수억대의 복잡한 시설보다

본사의 방송시스템은 앰프다루기 1초! 가격은 1~2백만원대 이지만 소리가 월등하고 염불이 아주 편하다는 입소문의 힘으로 영남권 1천여의 사찰에 시설이 되었던 시스템을 차에 그대로 재현하였으니 염불 인생들은 이 소리에 내 염불을 한 번 실려 보시지요.

▣ 본품은 염불전용 개발품으로 시중에 없음. 있을시는 천만원 포상! (지금 이 글은 법적증서)

염불 전문시설 외에도

▣ 각종 방생용 앰프 구경 ▣ A/S는 본사의 생명
▣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월등한 소리

▣ **상담 구경 조건으로**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 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명품 대표 박 청 락**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대학장 / 대학원장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통신대학 | 기 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나란다삼장불교대학 ..... 강원 교육

학 장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 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9년 1월 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강 | 2019년 3월 6일 수요일
교수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 박사님 외

불교예술대학 ..... 범패 · 작법무

교 수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상단권공
원서교부 | 2019년 1월 부터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개강 | 2019년 3월 5일 화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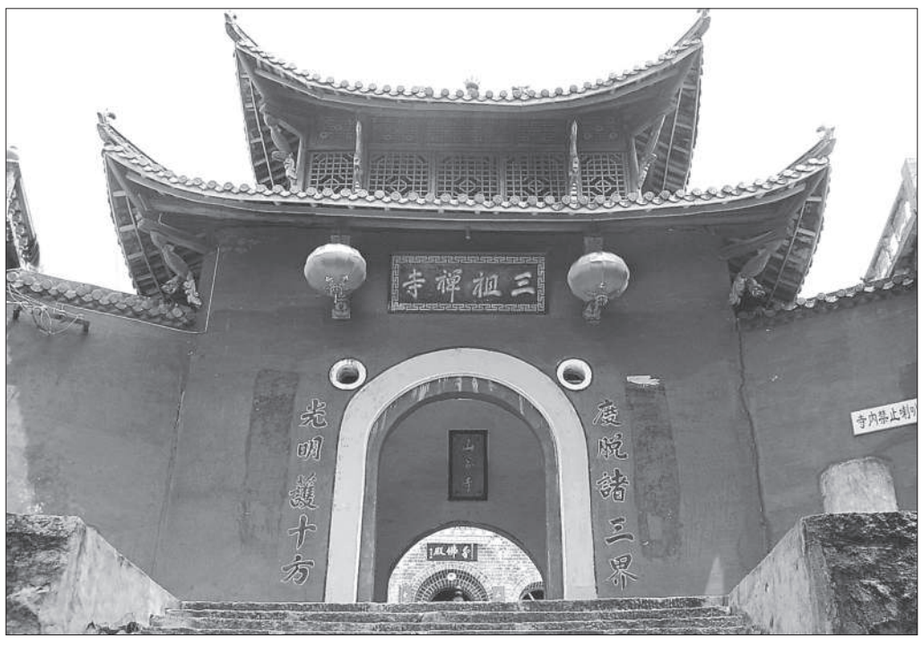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 www.kumgangnet.com | **Tel** 02)969-2410, 4981 **Fax** 02)964-2433

번뇌는 보리요, 생사가 열반이라



정운 스님의
禪의 르네상스 이끈 선지식들

③ 3조 승찬과 4조 도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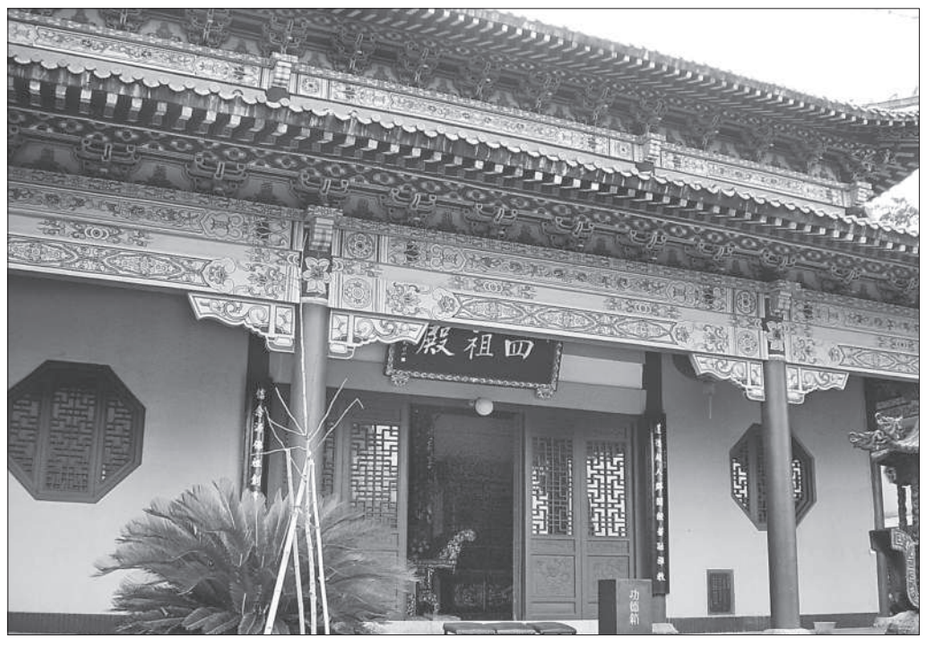


사진 왼쪽부터 중국 안휘성 잠산의 삼조사 도량 입구와 호북성 황매 사조사 사조전의 모습. 3조 승찬과 4조 도신은 공성에 입각한 사상을 갖고 있었다.

마음은 모자라지도 넘치지 않는다

죄명은 문둥이…/이건 참 어처구니 없는 벌이올시다./아무 법문의 어느 조항에도 없는 내 죄를 변호할 길이 없다./옛날부터/사람이 지은 죄는/사람으로 하여금 벌을 받게 했다./그러나 나를 아무도 없는 이 하늘 밖에 내세워 놓고./죄명은 문둥이…/이건 참 어처구니 없는 벌이 올시다.

– 한하운(1925~1975) '벌'

한하운 시인은 병으로 고생했고 가슴 저린 명시를 많이 남겼다. 한하운 시인과 비슷한 병을 앓고 있는 수나라 때, 선사가 있었다. 이 선사는 40세 무렵, 2조 혜가 앞에 나타나 말했다.

"저는 오래전부터 풍병을 앓고 있습니다. 무슨 죄가 그리도 많은 지 스님께서 참제해 주십시오."

"죄를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없애 주리라."

"죄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覓罪不可得)."

"그러면, 너의 죄는 벌써 없어졌다. 앞으로 불법승 삼보에 의지하라."

"스님이 계시니 승보는 알겠지만, 무엇이 불보와 법보입니까"

"마음이 부처요, 마음이 법이다. 부처와 법이 둘이 아니니, 승보 또한 그러하다."

"오늘에서야 비로소 몸과 마음이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나의 보석이다. 승찬이라 하리라."

이 이야기는 551년 무렵으로, 앞의 선사는 3조 승찬이다. 승찬(僧璨, ?~606)은 혜가의 법을 받은 3조이다. 승찬은 풍병 환자로서 혜가를 만났다고 했는데, 현대어로 말하면 한센병이다. 오늘날이나 예전이나 가벼운 병이 아닌지라 그 심정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간다.

〈천수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 "죄에는 본 성품이 없고 단지 그 마음에 따라 일어나니, 만약 그 마음이 멸한다면 죄도 또한 없어지고 죄와 마음, 이 두 가지가 모두 사라지면 곧 진실한 참회이다(罪無自性從心起 心若滅是罪亦忘 罪忘心滅兩俱空 是則名爲眞懺悔)." 이 내용은 단순한 참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낸 두려움, 비굴함, 자괴감, 낮은 자존감으로 자승자박한다.

허상으로 만든 것에 스스로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고 괴로워한다. 죄의식이라는 것도 번뇌가 만들어낸 뜬구름과 같은 것이다. 곧 죄라고 하는 경계와 그 마음에서 만들어낸 두려움, 두 가지에서 모두 벗어나야 자유로울 수 있다. 생각과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이든 사라질 것이다.

승찬에 관한 생몰연대는 정확한 기록을 알 수 없다. 〈전법보기〉에 의하면, 승찬이 출가하고 수행한 때는 남북조시대(420~589), 5호 16국시대로 왕조의 흥망성쇠가 잦은 난세였다. 승찬은 수나라 문제 때인 590년 무렵부터 서주(舒州) 산곡사(山谷寺)에 머물러 10여 년 동안, 은거하면서 수행하였다. 승찬은 법회를 하다가 큰 나무 아래서 합장한 채 서서 열반했다. 선사들은 생사해탈이 자유로운 이들이 많았다. 경허선사의 제자인 혜월도 만년에 부산 선암사에서 소나무 가지를 붙들고 선채로 입적했다. 조선시대 벽송지엄(碧松智儼, 1464~1534)은 〈법화경〉을 강설하다가 '방편품'에 이르러 "이 노승은 여러분을 위해 적멸상(寂滅相)을 보이고 가리니, 여러분은 밖에서 찾지 말고 더욱 정진에만 힘쓰라"고 당부한 뒤에 좌선한 채로 입적하였다.

사람들이 산곡사에 묘를 써서 스님의 법체를 묻어 주었다. 훗날 이상(李常)이라는 사람이 신회에게 물어서 산곡사 도량에 묘를 파서 선사의 유골을 화장하니, 사리가 300여과가 나왔다. 승찬이 열반한지 150년 후 현종이 '감지선사(鑑智禪師)'라는 시호를 내렸고, 탑 이름을 '각적(覺寂)'이라고 했다. 현재 중국 안휘성(安徽省) 잠산(潛山) 삼조사 도량 내에 각적탑이 모셔져 있으며, 10여 명의 승려들이 수행하고 있다. 사찰 도량 곳곳에 '해박정(解縛亭)', 승찬이 고행하였다는 동굴 등 선사의 행적을 상징하는 곳들이 있다. 승찬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게송집으로는 〈신심명〉이 있다.

세속의 인연도 따라가지 말고 출세간의 법에도 머물지 말라.

참됨을 구하려 하지도 말고 망령된 견해만 쉴지니라.

두 견해에 머물지도 말고 그것을 쫓아 찾으려 고도 하지 말라.

잠깐이라도 '옳고 그르다'는 시비를 일으키면 어지러이 본 마음을 잃으리라.

신심은 둘이 아니요, 둘 아님이 바로 신심이니라.

한센병을 앓았던 3조 승찬
자신의 업보를 혜가에 질문
"죄를 가져오라" 답에 大悟

"누가 그대를 묶고 있는가"
승찬의 경책으로 도신 깨달아
열반마저 없는 본래자리 강조

〈신심명〉의 형식은 4언 절구 운문체로, 총140구 584자다. 절대무위를 설한 영가현각의 〈증도가〉, 대상과 혼연일체가 되는 회호(回互)의 원리를 설파한 석두의 〈참동계〉 등과 함께 예로부터 동아시아 선자들에게 가장 많이 애송하는 선시이다. 〈신심명〉은 승찬의 설이 아니라는 이의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승찬의 작품으로 본다. 이 작품은 깨달음의 본체인 신심(信心)에 새겨놓으라(돌에 새기듯이)는 선사의 간절함이 담겨 있다.

너를 묶고 있는 것은 무엇이던가

선종의 4조 도신은 7세에 출가하여 여러 스승을 섬기다가, 14세 때 서주 완공산에서 3조 승찬을 만났다. 4조 도신이 물었다.

"스님의 자비로서 해탈법문을 하나 주십시오."

"누가 그대를 해탈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가?"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묶은 사람도 없는데, 무엇을 벗어나려고 한단 말이냐?(何更求解脫乎)" –〈경덕전등록〉中

묶임은 외부에서 묶은 것이 아닌 자신이 묶고 있으며, 그 풀음도 자신이 해야 한다. 원래는 묶여 있는 것도 아니건만, 번뇌와 고통이라는 올가미를 스스로 만들어 쓰고 있다. 달마가 혜가에게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나 혜가가 승찬에게 '죄를 가지고 오라는 것'이나 승찬이 도신에게 '누가 그대를 묶고 있는가' 등은 모두 본래성불된 그 자리, 공성(空性)에 입각해 있다. '불안한 마음자리'는 곧 공성의 측면에서 볼 때, 깨달음의 자리인 것이다. 불안한 마음(번뇌)이 곧 안심(安心[菩提])의 자리인 번뇌즉보리(煩惱卽菩提), 생사즉열반(生死卽涅槃)이다. 번뇌를 끊고 열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을 얻을 필요도 없는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도신(四祖 道信, 580~651)은 사마 씨로 호북성(湖北省) 기춘(蘄春) 출신이다. 3조 승찬과의 선문답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뒤, 13년 동안 스승 문하에 머물렀다. 이후 도신은 여러 지역을 행각하였다.

도신의 선사상은 '일행삼매(一行三昧)'인데, 〈문수설반야경〉에 의거한다. 도신이 27세 무렵, 길주사(吉州寺. 현 강서성 길안)에 머물렀을 때, 길주성이 70여 일간 도적떼들에게 포위되어 있었다. 성 안의 우물까지 말라 백성들이 곤경에 처했는데, 도신이 길주사에 도착하자, 우물이 솟았다. 또 도신이 백성들에게 '반야(般若)'라고 크게 염송을 시켰는데, 갑자기 성의 사방에서 대력사(大力士)들이 나타나자, 도적들이 허둥지둥 달아났다는 내용이 〈고승전〉 '감통(感通)' 편에 전한다. 도신은 여산의 대림사 등 여러 곳에서 수행하다 마지막으로 쌍봉산에 정착하였다.

선사는 호북성(湖北省) 황매현(黃梅縣) 쌍봉산(雙峰山)에서 30여 년간 주석하셨다. 그곳에서 법을 펴고 제자들을 이끌었는데, 이를 동산법문(東山法門, 5조 홍인의 사상까지 아울러 동산법문이라고 함)이라고 한다.

4조 도신이 선풍을 펼칠 때, 천태종의 천태 지의(538~597)가 〈마하지관〉에 의해 선법(禪法)을 일으키며 활동하던 시기와 비슷하다. 달마 이래 선사들은 두타행자였는데 동산법문 때부터 대중생활을 하였다. 동산법문에 500명이 넘는 수행자가 운집했다고 하니, 최초로 선종 교단이 형성된 셈이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집단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당시 천태종만 해도 천태산의 교단을 유지하기 위하여 황제의 원조에 의지한 반면 동산법문 교단은 노동에 의한 자급자족의 체계를 확립하면서 농민층의 신뢰와 지지를 얻어 식량을 얻을 수 있었다. 초기불교에서는 수행자가 노동을 하거나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계율에 위배되지만, 동산법문과 이후 선사들에 의해 발전된 일상에서의 선이 완성되면서 노동은 수행의 연장선으로 발전된다. 이 점이 훗날 백장(720~814)에 의해 제정된 청규(淸規)이다. 여기서 발단되어 현재 한국 승려들이 울력하는 것도 당연시 된 것이다. 당나라 태종이 도신을 뵙고자 세 차례나 입궐할 것을 권했으나 도신은 한사코 거절했다. 화가 난 태종이 네 번째 입궐할 것을 권하며 '이번에 입궐하지 않으면, 목을 베어오라'는 명을 내렸다. 그런데도 도신은 이에 굴하지 않고, 쌍봉산을 벗어나지 않았다. 도신의 사찰인 황매현 사조사는 정혜(1932~) 방장이 완벽하게 불사해 마친 대가람이다. 도량 내의 당우를 단순한 문양으로 단청했는데, 10년이 흘렀는데도 뇌리에 각인되어있을 정도이다. 정혜 방장은 허운대사(1840~1959)의 제자이며, 운문종 13세 종통을 계승했으며 임제종 법맥도 함께 받았다.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출강 및 통신 2019학년도 28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학인 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 (1년제)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28년의 전통과 학적으로 자랑과 긍지를 삼고 있으며 법사 활동과 위상 정립에도 기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 * * * * * * * * * * *

①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②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 교육합니다.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④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9년 2월 22일까지 (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제주교육원 (☎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www.pubsa.net FAX : 02)737-5305

(사)대한불교 대경조계종 종도모집

(사)대한불교 대경조계종은 본종에 등록한 사암의 재산에 대하여 일체관여하지 않는 종단으로 사암 및 종도님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지원을 하면서 고통 또한 같이 감내하는 종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불교발전과 포교에 수희 동참하실 사암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 입종구비서류 ◆

① 사찰 및 승려등록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반명함판 사진 3매
④ 사암 안팎 사진 1매(사찰등록 하실분)
⑤ 타 종단 수계첩 또는 승려증 사본 1부

◆ 사찰 및 종도님께 발급하는 서류 ◆

① 사암 가입증명서
② 주지 임명장
③ 승려증(법사증)
④ 간부스님에 한하여 위촉장 또는 추대장을 수여합니다.

※ 본 종단은 모든 종도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정책에 반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社團法人 大韓佛教 大京曺溪宗
종무원 : 경북 안동시 향교1길 27-15 (송천동) 천룡사 ☎: 054)823-6777 H.P : 010-4053-2722

진정한 공양은 재물 아닌 마음



新 불교사자성어

⑥ 빈자일등(貧者一燈)

'가난한 자의 등불(貧者一燈)'이라는 뜻이다. 가난한 여인이 정성스럽게 올린 초라한 등불이 부자들이 올린 화려한 등불보다 더 밝았다는 뜻에서 '빈여일등(貧女一燈)'이라고도 한다. 현명함과 어리석은 행동을 비유한 경전인 〈현우경(賢愚經)〉 '빈녀(貧女) 난타품'에 있는 고사성어이다.

줄거리는 이렇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이다. 기원정사는 고대 인도 코살라국의 수도인 사위성(舍衛城, 사밧티; 슈라바스티) 남쪽 약 1.6km 지점에 있었던 사원이었다.

기원정사는 '기수급고독원'이라고도 하며 왕사성 죽림정사와 함께 당시 가장 규모가 컸던 2대 사원이었다. 부처님께서 교화 기간 45년 중 약 24년을 머문 곳이기도 하다. 부처님께서는 이곳에서 많은 불교 경전들을 설하셨다.

사위성 안에는 '난타'라고 하는 가난한 여인, 걸인 여성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매우 가난하여 구걸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난타는 부처님을 매우 존경했지만 가난하였기 때문에 아무 공양도 올릴 수가 없었다.

코살라국의 아자타삿투 왕과 고위 관료, 그리고 많은 이들이 부처님과 승가 교단에 많은 보시와 공양을 베풀고 있었다.

난타는 생각했다.

'나는 과거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되었으며, 부처님 같은 분을 만나고도 가난하여 아무런 보시도, 공양도 올릴 수가 없는 운명을 타고난 것일까?'

그녀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해 얻은 돈으로도 하루 세끼를 연명하기 급급했다.

난타는 부처님께 조그마한 등불 공양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애써 돈을 모았다. 겨우 1전을 모아 기름 파는 집에 가서 기름을 사고자 했다. 기름 가게 주인은 의아해서 물었다.

"기름 1전은 너무 적어서 쓸 데가 없을 텐데 어디에 쓰려고 하오?"

난타가 자세히 사정을 얘기했더니 기름집 주인은 그녀를 기특하게 여겨 기름을 후하게 주었다.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등불 하나를 만들어서 기원정사로 달려갔다. 기원정사에는 이미 화려하고 큰 등불이 많이 걸려 있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처님 오신날'에 밝히는 화려한 연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교하면 난타의 등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초라한 등불을 기원정사 한 구석에 걸고 나서 서원을 세웠다.

"저는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이 작은 등불 하나만을 부처님께 공양하나이다. 바라옵건대 이 인연 공덕으로 저도 내생에 지혜 광명을 얻어 일체 중생의 어두운 마음을 소멸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서원을 세우고는 부처님께 예배를 하고 물러났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다. 이날 등불을 지키고 거두어들이는 책임자는 목련존자였다. 그는 동이 트기 전, 등불을 거두어들이기 위하여 밖으로 나갔다. 크고 화려한 등불은 모두 기름이 다하여 꺼져 있는데 난타가 올린 초라한 등불만이 마치 금방 켠 등불처럼 독야청청(獨也靑靑) 빛나고 있었다. 가난한 여인인 난타가 정성스럽게 올린 등불만은 꺼지지 않고 동이 틀 때까지 샛별처럼 빛나고 있던 것이다. 사람들이 손이나 입으로 불어 꺼트리려고 해도 등불을 끌 수 없었다. 부처님께서는 난타를 불러 그녀에게 장래 깨달음을 성취할 것이라는 수기(授記)를 주셨다. 난타는 수기를 받고 기쁜 나머지 부처님 앞에서 출가하기를 원했다. 부처님께서는 쾌히 승낙하시고 그녀가 비구니가 되도록 허락하시었다.

이 일화가 시사하는 것은 무엇일까? 빈자일등(貧者一燈)', '빈여일등(貧女一燈)'이 시사하는 바는 돈이 아닌 '정성'과 '마음'이다. 또 호화로운 등불은 꺼져도 가난한 여인이 올린 초라한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이 일화는 가난한 자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일 것이다.

성경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者)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하였다. 여기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무욕한 자일 것이다.

요즘은 금수저, 은수저 등 사치와 허영이 사회를 지배하는 시대이다. 외형이 좌지우지하는 시대이다. 진실은 여간해서 통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실은 통한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뿐이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설두가 말하는 덕산 '示衆'은?



격절록 강설

⑥ 덕산시중화 평창 4

[評唱 4] 雪竇一似古人 先拈他兩人語道 "此二老宿 雖善裁長補短 捨重從輕" 且道 甚麼處是裁長補短處 什麼處是捨重從輕處. 此兩箇分明點檢德山. 雪竇拈來 為甚麼却道 "要見德山 亦未可" 雪竇後面也 只要見德山 這些子也難. 後來人便邪解道 "法眼圓明 只是裁長補短 捨重從輕" 只管作露布 有什麼交涉.雪竇拈道 "德山似箇什麼 如闍外將軍相似 有威有權 為他有箇劒 當斷不斷時 也不招其亂" 雪竇如此拈也 有錯會者不少.

설두는 마치 고인(古人)과 같아서 먼저 두 사람의 말을 염(拈)해서 말하기를 "이 두 노숙(老宿)이 비록 긴 것을 재단해서 짧은 것을 보완하고, 무거운 것은 버리고 가벼운 것을 따르는 것을 잘했다"고 했다.

자, 말해보라! 어디가 긴 것을 재단해서 짧은 것을 보완한 곳이며, 어디가 무거운 것을 버리고 가벼운 것을 따른 곳인가?

이 두 마디 말은 분명 덕산을 점검한 것인데, 설두는 염하면서 어째서 도리어 "덕산을 보고자 했지만 역시 보지 못했다"고 했는가? 설두가 뒤에서 다만 덕산을 보고자 했다는 이것이 조금 난해하다. (그런데) 뒷사람들이 그릇되게 알고 말하기를 "법안과 원명이 다만 긴 것을 재단해서 짧은 것을 보완하고, 무거운 것을 버리고 가벼운 것을 따랐을 뿐이다"고 단지 주장(露布, 일반에게 널리 퍼뜨림)할 뿐이니,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설두가 염해서 말했다.

"덕산이 어떤 사람과 같은가? 마치 변방의 장군과 같아서 위엄도 있고 권위도 있다. 그에게는 하나의 검이 있는데, 마땅히 끊어야 할 때 끊지 않아도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검이다."

설두가 이렇게 염(拈)을 했는데도, 역시 잘못 알고 있는 이가 적지 않다.

雪竇前面拈了 為什麼又拈道 "諸人要識新羅僧麼 只是撞著露柱底瞎漢" 諸人且道 什麼處是 這僧瞎處. 人多情解道 "等他德山道 你是什麼處人 當時便以坐具劈面摑" 癡人若如此 德山便放你也. 且道 畢竟什麼處是這僧瞎處 師便打.

설두는 앞에서 염(拈)을 마쳤는데, 어째서 또 염해서 말하기를 "대중은 신라 스님을 알고자 하는가? 단지 노주에 부딪친 눈 먼 놈이다"고 했는가? 자, 모두들 말해보라! 어디가 이 스님이 눈 먼 곳인가? 사람들이 많이들 정식(情識)으로 이해해서 말하기를 "저 덕산이 '그대는 어디서 온 사람인가?' 라고 물었을 때, 그때 좌구(坐具)를 정면으로 던져버렸어야 했다"고 한다. 어리석은 사람이 만약 이와 같이 했다면 덕산은 누구라도 바로 놓아줬을 것이다.

자, 말해보라! 필경 어디가 이 스님이 눈 먼 곳인가?

선사가 (선상을) 쳤다.

※선문염송집의 덕산시중화에 대한 원오의 송(頌)을 소개하며 1칙을 모두 마친다.

대장장이(大冶)가 금을 불리는데 / 홀연히 번개가 쳐, 봄을 놀라게 하네. / 초목엔 빼어나게 싹이 트고 / 찬란한 빛은 나날이 새롭네./ 털 끝 만큼의 힘도 쓰질 않고 / 천하의 기린을 잡아 / 온전한 위엄으로 죽이고 살리기를 자재하니,/ 천고에 눈부시게 빛나 달(氷輪, 달의 異名)과 같네.

말이 두 개의 말뚝이 되어도 말에 안목(眼)은 살아있고 / 용두사미가 되었지만, 손가락으로 손가락을 깨우치네. / 기둥에 부딪친 눈 먼 납승, / 목구멍이 막혀 숨도 내쉬지 못하네. / 머뭇거리며 찾으면 만산(萬山, 첩첩이 둘러싸인 산) 만큼이나 벌어지니, / 웃고 우는 혀끝이 삼천리로다.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⑥ 믿음 편 6

소원에서 서원, 행원으로

언젠가 개신교를 믿다가 불교로 개종한 젊은 여성의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다. 교회를 다닐 때는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만 하면 됐는데, 절에서는 모든 것은 자기가 지은 것이니 스스로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가뜩이나 직장과 육아, 가족 간의 갈등으로 힘든 일이 많아 의지할 곳이 절실한데, 불교에서는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니 너무 힘들다는 하소연이었다.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장면이다. 불교가 아무리 자기성찰의 종교, 자력신앙의 체계라 하더라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부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기복의 힘을 통해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의 기본적 기능이다. 물론 소원을 비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소원(所願)에서 서원(誓願), 행원(行願)으로 숙성되어야 삶의 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종교인들은 대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을 질적으로 성장시켰다.

소원은 말 그대로 원하는 것을 '~해주세요.'라는 구조로 되어있다. 어린 시절 절이나 성당에 가서 부처님이나 하느님께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유형이다. 각종 시험의 합격이나 사업의 번창, 가족의 건강 등을 위해 소원을 비는 행위 역시 이런 구조다. 이러한 기복이 종교의 가장 원초적인 기능이라는 점에서, 무언가를 바라는 소원은 '어린 아이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불교신앙은 소원에서 멈추지 않는다. 기복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도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구조로 되어있다. 즉, 무언가를 '~해주세요.'보다는 '~하겠습니다.'라는 서원을 더 중시한다는 뜻이다. 조금 과격하게 말한다면 불교는 소원을 비는 종교가 아니라 서원을 세우는 종교라 할 수 있다. 불교의식을 마치면서 행하는 사홍서원(四弘誓願)이 '중생을 건지고 번뇌를 끊으며, 법문을 배워 불도를 이루겠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는 것도 이를 잘 보여준다 할 것이다.

소원에서 서원으로의 전환은 종교적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준다. 기도의 내용과 질 또한 달라진다. 소원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라면, 서원은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굳은 다짐이기 때문이다. 종교적 신앙은 서원에 이르러 비로소 어린 아이의 단계를 벗어날 수 있다. 각자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겠다는 발원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준다. 이러한 서원은 아이의 단계에서 벗어나 삶의 지표를 세운다는 점에서 '청년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불교신앙은 서원에서 완성된다고 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서원도 수없이 다지고 다져야 더욱 단단해지고 힘이 생긴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다지고 다졌다 해도 현실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다. 땅에 씨를 뿌린다고 해서 모두가 잘 자라는 것은 아니다. 거름도 주고 김도 매주어야 잘 자랄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세운 서원이 현실에서 잘 실천되지 않으면, 참회와 발원을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서원은 더욱 굳건해지고 현실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우리의 삶은 이러한 실천을 통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이처럼 서원을 바탕으로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것이 행원이다. 행원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종교적 삶이 익었다고 할 수 있다. 〈화엄경〉의 결론이라 불리는 〈보현행원품〉은 보현보살의 10가지 행원을 다루고 있는 경전으로서 실천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부처님을 예경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자신이 지은 모든 공덕을 중생들을 향한 회향(廻向)으로 마무리되는 보현행원은 불교신앙의 지향점이 어디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행원은 어린 아이와 청년의 과정을 거쳐 한층 성숙된 '어른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신앙이 기복의 차원에 머무르는 한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인격(人格)에서 불격(佛格)으로 전환은 소원이 아니라, 서원과 행원을 통해서 완성된다. 우리는 지금 어느 지점에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볼 일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김해 불모산 관음정사 제1기

불교대학원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김해 불모산 관음정사 불교대학원에서 각단 불교의식 및 범음범패를
여법하게 봉양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각단 불교의식 과정(초급) | 6개월

범음범패 과정(중급) | 1년

교육안내 6개월 과정 수료 후 **수료증**, 1년 과정 졸업 후 **법사 호품수증서**를 수여해 드립니다.

- 도량석, 종송, 향수혜례, 삼보통청, 각단불교의식, 관음청, 지장청, 신중청, 시달림, 방생의식, 상용영반, 구병의식, 신중39위작법, 관음시식, 초발심자경문
- 사물 : 북, 태징, 목탁, 요령

모집안내 문 의 : 055-342-3679 / 010-4940-8979 / 교육원 010-9326-6071

- 모집대상 : 스님 및 출가예정자, 재가자, 사찰운영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본 교육원에서 교부)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 개강일시 : 2019년 3월 9일 (토) 오후 2시
- 수업일시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5시
- 준 비 물 : 목탁, 요령
- 장 소 : 김해 불모산 관음정사 경남 김해시 진례면 평지길 299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고즈넉한 산사에서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느껴보세요.
불모산 관음정사 템플스테이와 함께 하세요.

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장 묘각 합장



“문화재 대한 인식 전환 필요”

원행 스님, 이우성 종무실장 예방서

“사찰과 불화 등 전통 문화 · 문화재는 국가의 재산이기도 하다. 불교 문화유산을 종교적으로만 인식하지 않아야 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2월 11일 이우성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의 예방을 받고 관계부처의 인식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행 스님은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원칙으로 한다면 원만 해결돼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어긋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감사 등에 있어 전문 인력이 대행하는 일을 소홀히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불교계 현안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스님은 “정부는 개별 문화재만을 인식하는 것 같다. 문화재를 관리하는 인적, 공간 자원도 필수적이기에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면 단위로 생각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이우성 문체부 종무실장은 “세속 법에서 원칙을 삼아야 하긴 하지만 종단의 목소리를 듣고 불법의 원칙도 함께 소통하고자 한다”며 “협의 중인 사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답했다. **김지원 기자**



출가상담사로 재위촉된 은산 스님(사진 왼쪽)과 위촉장을 전달한 교육원장 현응 스님.

출가상담사 은산 스님 재위촉

조계종, 2월 12일 위촉… 2년간 활동

조계종 교육원(교육원장 현응)은 2월 12일 교육원장 집무실에서 비구 출가상담사 은산 스님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은산 스님은 출가상담사로 지난 2017년 2월부터 활동했으며, 재위촉돼 앞으로 2년간 활동하게 됐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전화 · 입문교육 상담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출가의 인연을 맺어주고 있다”면서 “출가상담사 스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간 수고하셨고, 향후 2년 동안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은산 스님은 “사찰의 은사부터 선후배 스님들까지 모두가 출가상담사라고 생각해야 한다”면서 “출가를 발심한 사람들이 좀더 편안하게 불연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가상담사로 위촉된 은산 스님은 2001년 구족계를 수지하고 동국대를 졸업했다. 이후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종교상담사 양성과정 강사, 행자입문교육 상담, 거창군 삶의 쉼터 복지관 관장 등으로 활동했다. **신성민 기자**

“부처님 유적지에 연화세계 구현을”

Interview

룸비니에 연꽃 심는 성원 스님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인도 대림정사를 시작으로
8대 성지에 연 보급 계획
현지인 소득사업 도움 되길

“현재 우리나라는 연(蓮) 시장이 과거보다 많이 발달했습니다. 관상용과 식용 가릴 것 없이 대중화됐죠. 하지만 부처님의 발길이 닿은 인도 · 네팔은 그렇지 않은데요. 관상용 연이 대부분이고, 식용 연이 있어도 활용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룸비니동산을 비롯해 인도 8대 성지에 연을 보급해 연화세계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20여 년째 연을 유기농으로 재배하면서 연잎차, 연냉면, 연비누 등 각종 연 제품을 만들며 연 대중화를 이끈 강화 선원사 주지 성원 스님이 인도 8대 성지에 연꽃 심기 운동을 펼친다. 성원 스님은 2월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도 내 식용연 보급 의지를 이 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성원 스님은 앞서 지난해 11월 인도성지순례 중 최초 비구니 유적지인 바이샬리 대림정사 입구인 콜후차지역에 30여 통에 달하는 연근을 분양했다. 이 연근은 선원사에서 재배한 것으로 식용연근인 홍련과 백련이다. 스님은 마을주민 협조를 얻어 대림정사 입구에 위치한 상가에 각각 한 통씩 연근을 분양해줬다.

“부처님께서는 연꽃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성지에 연꽃이 많지는 않더군요. 그래서 1단계로 부처님 성지에 연을 보급하고, 2단계로 현지인들이 연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도와주고, 3단계로 연 농사가 소득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원 스님은 이를 위해 오는 3월 16일부터 9박10일간 인도 · 네팔 성지순례를 하며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동산에 연을 분양할 예정이다. 장소는 108산사순례회가 네팔정부로부터 제공받은 2000여 평의 평화공원이다. 성원 스님은 이미 혜자 스님을 만나 연 분양에 대한 논의를 마쳤으며, 3월 21일 현지서 혜자 스님과 함께 기념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네팔과 인도에 연을 보급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부처님의 나라에 부처님께서 좋아하신 연을 보급하는 것, 연이 보급되면 주변 환경이 정화돼 환경운동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 연 시장이 개발되면 지역민들이 수익사업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죠. 현지인들 반응은 좋습니다. 부처님이 좋아한 연을 식용으로도 쓸 수 있으니 얼마나 뜻 깊겠습니까?”

성원 스님은 이뿐만 아니라 스리랑카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 연꽃을 국화로 삼은 국가에도 연 활용법을 전파한다는 원을 세웠다. 우선적으로 캄보디아에 연 아이스크림, 연냉면, 연국수 기술을 지도해주기로 협의한 상태다. 이는 성원 스님이 국내에서 개발해 특허를 얻은 연 가공품들이다.

“캄보디아는 국가차원에서 연사업을 대중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에 한 차례 의견을 주고받았고, 빠른 시일 내 특허기술을 전해주는 자리를 마련키로 했습니다. 국내 연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만큼 앞으로는 불교국가, 그리고 전 세계에 연을 알려 사람들의 건강과 자연환경에 도움이 되는 일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미얀마 건조지역 물탱크 준공

동대 일산병원 연우회 후원
미얀마 내 식수시설 41번째

국제구호NGO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가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연우회의 후원으로 미얀마 3대 건조지역 중 하나인 만달레이주 냥우타운쉽 깐따야 마을에 생명의 물탱크를 준공했다.

이번 준공한 물탱크는 지구촌공생회가 미얀마에 건립한 41번째 식수시설로 동국대 일산병원 연우회 지도법사 덕유 스님과 회원들의 후원, 지역 주민들의 기여 및 노동력 지원 등 적극적인 참여로 의미를 더했다.

1월 26일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연우회와 지도법사 덕유 스님은 물탱크 준공을 축하하고자 직접 미얀마 깐따야 마을을 방문, 생명의 물탱크 41호기 명판식과 준공식을 진행했다.



깐따야 마을 생명의 물탱크 명판식.

준공식에 참석한 덕유 스님은 “안전한 식수 공급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이 건강해지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또 연우회는 물탱크 준공식 이후 깐따야 마을의 한 중학교를 방문해 전교생에게 학용품을 나눠주는 등 아이들의 꿈을 위한 응원도 아끼지 않았다.

이번에 준공된 41호기 물탱크는 총 용량 3만7854L(1만 갤런) 규모로 주민들과 학생 1,700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지구촌공생회는 향후 식수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주인의식 고취와 사후관리 중요성 인식을 위한 교육 · 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생명의 물탱크 준공으로 깐따야 마을 주민들은 안정적인 식수원이 확보돼 수인성 질병에서 벗어나고, 물을 구하러 다니는 수고를 덜게 됐다.

연우회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교직원으로 구성된 불자모임이다.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방문 봉사, 지역사회 연계봉사 등을 통해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단체로, 2018년 12월 미얀마 깐따야 마을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물탱크 건립비 및 학용품 지원비를 지구촌공생회에 후원했다. 이에 지구촌공생회는 12월 한 달간 물탱크 건립을 위한 지역조사를 진행한 끝에 여러 마을 중 주민들의 협조도가 높은 깐따야 마을을 건립 후보지로 결정, 1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지난달 준공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법사대학 법사법위 품수법회

“법사 법기 호지하는 선도자 되길”



한국불교법사대학(학장 지일)은 2월 10일 동국대 만해관에서 2018학년도 제27기 대학 졸업 및 법사법위 품수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150여 대중이 동참했으며, 법위품수는 (사)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총재 회암 스님이 증명했다. 학장 지일 스님은 “법사의 법기를 잘 호지하는 전법포교의 선도자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

‘통일불교’ 서원 하심원 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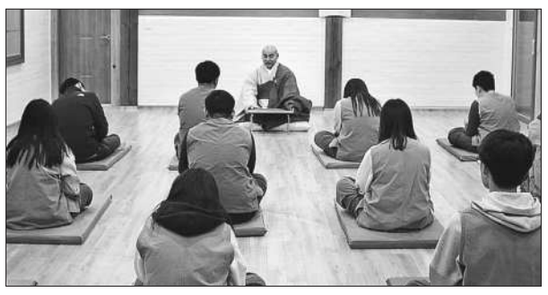
2월 12일 칠곡 석정읍 소재 도량 마련



칠곡 하심원(주지 도선)은 2월 12일 석정읍 소재 부지서 개원 및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구미지역 동남아 다문화 가족 등 50여 명이 동참했다. 주지 도선 스님은 “지역사회에 통일불교라는 서원 아래 여유를 갖고 대중이 소통하는 보금자리로,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소중한 원을 세워 도량을 개원하게 됐다”고 개원 취지를 밝혔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장애청소년 나눔템플스테이

안동 희망샘 아동지역센터와 연계



고운사(주지 자현)는 2월 7~8일 안동지역 희망샘 아동지역센터 청소년 14명을 대상으로 ‘나눔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 고운사는 이틀에 걸쳐 스님과의 차담, 소나무 숲길 걷기 명상, 108배, 단주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또한 새벽 및 저녁예불을 통해 장애청소년들이 불교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윤호섭 기자**

(사)청암봉사협의회
지역사회 자비나눔 전달

(사)청암봉사협의회(회장 석지암)는 지난 1월 29일에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자비의 온정을 전달했습니다.

1월 29일	여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쌀 600kg, 라면 5박스 전달
1월 29일	여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꿈이룸터에 쌀 100kg과 라면 3박스 전달
1월 29일	여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 쌀 100kg과 라면 5박스 전달
1월 30일	여수시 돌산읍 세구지 노인정에 쌀 50kg 전달
1월 30일	여수시 돌산읍 지역아동센터에 쌀 50kg 전달
1월 31일	여수시 국동 노인정에 쌀 50kg 전달



(사)청암봉사협의회
회장 | 석지암 부회장 | 해군법사 총무 | 묘화심

2019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11기 수강생 모집

그동안 제1기에서 제10기까지 전국에서
1,0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2019년에도 스님과 불심 깊은 불자들에게
무료로 명리학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대 상
1)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총무보살
2)불심 깊은 불자님들

◆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① 교육기간 : 2019년 3월 12일 ~ 9월 3일까지
② 수 강 료 : 약 6개월 교육 전기간 강의료 무료
③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4시(3시간)
④ 개강일자 : 2019년 3월 12일(화요일) 오후 1시
⑤ 책 자 :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책자대금 : 20만원 준비)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제13기- 수강생모집 송강범음범패전승회

전통범음범패 의식에 관심있는 학인들을 모집합니다

개강일시
• 2019년 양력 3월 8일 입교시작
• 처음 입학시에만 입회비 20만원

수업형식
• 수료 1년과정, 무료특강 (2년 코스)

교육시간
• 매주 금요일만 수업
•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강자격
• 불교의식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

교육내용
아침예불 / 종성 | 사물다루는 법 (목탁, 요령. 북, 태징) | 천도재 (49재의식) | 천수바라 | 사다라니 | 도량게 | 다게

교육시간표 (매주 금요일) *수업은 시간강사 개인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오전	09시	49재 의식	문곡스님	
	10시	49재 의식	문곡스님	
	11시	바라춤 연습	문곡스님	
오후	1시	아침예불	법원스님	
	1시	태평소	시우스님	
	2시	육임/명리	해각스님	
	3시	귀장술	원기스님	

교육장소 문의 : 진효 010-5306-0856
• 봉운사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고목길 51-142(고은리)

각종 행사 문의
| 회장 | 도연 010-8249-1259 | 강주 | 문곡 010-3727-0870 | 부회장 | 일구 010-2370-2953 |

송강범음범패전승회 회장 도 연 合掌

티베트 천년 벽화, 도록에 '총망라'

美 작가 〈티베트의 벽화들(Murals of Tibet)〉 출판

박영빈 객원기자

티베트 고원에 잠들어 있던 고대의 불교벽화들이 다시 살아났다. 미국의 사진작가 토마스 레이어드는 10년간의 노력 끝에 초대형 도록 〈티베트의 벽화들(Murals of Tibet)〉을 최근 출판했다.

지난 2월 8일 인도의 인터넷 매체 '퍼스트 포스트'는 작가와의 단독 인터뷰를 게재하며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레이어드 씨는 "1986년 처음 티베트를 여행했다. 처음 벽화들을 보는 순간 불교철학의 증거와 정수가 여기에 담겨있음을 직감했다"고 당시의 소감을 전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벽화들의 보존상태가 좋지 않아 점점 훼손되고 있었다. 또 일반인들이 쉽게 친견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 사진으로 남기자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사찰의 반응은 냉랭했다. 오랫동안 예경의 대상이었던 벽화들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에 대한 걱정과 낯선 서양인들이 현대의 기자재들을 법당에 설치하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레이어드 씨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렸다. 스님들에게 이 작업은 그냥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닌, 역사를 남기는 것이라고 설득했다"며 당시 고충을 설명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촬영이 허가 되지 않은 사찰과 법당들의 벽화까지 촬영할 수 있었다.

〈티베트의 벽화들〉에 실린 벽화 중 가장 오래된 것은 9세기경 제작돼 서부 티베트에 남아있는 불화이며, 가장 근래의 것이라도 약 500년 전의 벽화들이다. 벽

수많은 벽화 훼손 막고자
사찰 끊임없이 설득 나서
10년간 촬영 · 편집 작업
"위대한 유산 후대 전하길"

화들은 사진기를 이동식 프레임에 고정, 고속으로 연속 촬영하는 스티치 시스템으로 촬영됐다. 촬영된 사진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씩 연결됐다. 이 과정을 통해 굴곡지거나 꺾인 구조의 벽에 그려진 벽화가 하나의 대작으로 연결됐다.

레이어드 씨는 "촬영 작업은 단순했지만 벽화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은 고도의 집중력과 인내심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 덕에 실물크기의 벽화를 완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출판기념회에서 도록을 설명하는 작가 토마스 레이어드(가운데). 사진출처=타스첸

또한 단지 사진작업에만 집중하지 않고, 티베트 불교와 불교미술의 권위자들에게도 자문을 구했다. 그는 "예를 들어 현대 인도에서는 고대불교미술의 맥이 끊겼다. 그러나 티베트의 불교미술에는 아직도 고대인도 불교의 상징과 양식이 그려지고 있다"며 이 작업이 불교미술사의 연구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자부했다.

도록은 지난해 독일의 예술사진 전문 출판사 타스첸사(社)에서 가로 50㎝, 세로 70㎝에 총 498페이지의 초대형판으로 인쇄됐다. 레이어드 씨는 "촬영은 10년이었지만 벽화의 해석과 연구에 들인 시간까지 더하면 30년이 넘는 작업이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유산을 후대에까지 남기게 된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전했다.

출판사는 단지 도록으로만 남기지 않기 위해 티베트학의 권위자들이 집필한 해설서도 함께 출판했다. 해설서에는 특별히 불교의 개론을 담은 달라이라마의 서문이 첨부됐다.

가장 처음 인쇄된 도록은 달라이라마에게 헌정됐다. 특별히 달라이라마는 저자들의 요청에 응해 한정판으로 인쇄된 998권의 도록에 모두 자필 서명을 남겨 출판을 축복했다. 달라이라마의 서명이 들어간 한정판 도록들은 전 세계의 대형 박물관과 도서관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호주 해안서 명시대 금동불 출토

유럽 앞선 중국인 호주 진출 가능성 제기

호주 중서부 개스코인의 해안에서 중국 명시대의 금동탄생불이 발견됐다. 지난 2월 3일, 호주의 '더 시드니 모닝 해럴드' '더 오스트렐리안' 등 주요매체는 이 신비한 발견에 대해 특별보도했다. 이번 불상의 발견으로 유럽인들이 호주대륙을 발견하기 거의 200년 전에 중국인들이 먼저 호주를 발견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불상을 발견한 레온 데샹과 셰인 톰슨은 영상제작회사인 '핀 필름스(Finn Films)'의 운영자로, 다큐멘터리에서 필요한 영상을 위한 현지답사 중에 불상을 찾았다고 밝혔다. 둘은 "19세기 초, 서부호주를 다녀간 프랑스 탐험대가 탐험한 지역에서 당시 그들이 사용하던 물건들을 찾기 위해 금속탐지기로 지면을 수색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데샹은 "큰 소득이 없어 탐색을 포기하려던 찰나, 탐지기에 지면 가까이에 대형 금속이 묻혀 있다고 감지됐다. 처음엔 20세기에 유행한 촛대장식으로 생각했다"고 발굴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모래 속에서 발견된 것은 작은 금동불이었다.

둘은 즉각 서호주 해양박물관에 발굴을 보고하고 발굴당시 촬영한 영상과 고화질 사진을 전송했다. 박물관은 서


금동탄생불이 발굴된 모습. 사진출처=유튜브

호주 중국인 협회와 중국대사관과 접촉, 전문가들은 사진과 영상을 검토한 결과 불상이 명시대의 금동불일 가능성이 높다는 데에 모두 동의했다.

중국호주이민자 역사박물관의 마크 왕 부관장은 "이 불상이 정말 명대의 진품이라면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불상이 발견된 것엔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15세기 정화의 대원정이고, 하나는 오래전부터 호주와 교역한 말레이계 중국인들"이라고 중국인들의 호주 방문 가능성을 피력했다. 반면 일반교역품으로 불상이 전래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주호주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추가적인 유물이 있는지 파악 중이며, 자세한 의견은 충분한 조사가 끝난 뒤 밝히겠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아프리카 '불교센터' 연 스님 願은…

우간다 승려 반트 스님 "불교문화 뿌리 내리길"

최초의 아프리카 불교 승려 중 한 명인 반트 부다락키타(Bhante Buddharakkhita, 52)가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전통적인 아프리카 문화와 불교를 융합시키고 있다고 불교 매체 트라이시클(Tricycle)이 1월 31일 보도했다.

부다락키타는 처음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을 때 아프리카와 우간다에서 불교 전통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불교를 알리기 위해 힘썼지만, 가사를 걸친 그의 모습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선이나 숱한 암살 시도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러나 장고의 노력 끝에 그는 결국 미지의 대륙 아프리카에 불교센터를 설립하는 최초 아프리카인 중 한 명이 됐다.

사실 그는 1990년 인도 찬디가르(Chandigarh)의 한 대학교로 경영학을


아프리카 최초 승려 중 한 명인 부다락키타. 사진출처=tricycle

배우기 위해 유학을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가 있을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다고 한다. 캄팔라(Kampala) 지역에서 스티븐 카보고자(Steven Kaboggoza)란 이름으로 태어나 로마 가톨릭교인으로 성장한 그였다.

그러던 그가 동급생이었던 2명의 태국 스님에게 즉시 빠져 들었다. 그는 "스님들을 봤을 때 깊은 연결고리를 느꼈다"며 "불교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이후 수년간 다람살라, 네팔 · 티베트 · 태국 등 순례를 하면서 영적 탐구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회고했다.

특히 그는 티베트의 불교 · 문화 기관이 전 세계에 분포해 있지만, 아프리카에는 단 한 곳도 없는 점이 안타까웠다고 한다. 직접 그 '최초'를 열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쉽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달라이라마에게 직접 찾아가 조언을 구했는데, 당시 달라이라마가 "함께 할 친구를 찾아야만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8년만인 1998년 그는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함께할 도반이 마뜩지 않아 다시 해외로 나섰다. 그리고 남방불교의 한 스님과 인연이 돼 불교 센터를 설립할 기반을 닦아가기 시작했다. 그 스님과 인연을 시작으로 아시아의 많은 신도들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었고, 보시금을 모아 2005년 마침내 우간다에 불교 센터를 개설했다. 그는 해당 센터를 중심으로 우물 지원, 나무 심기 사업 등 각종 자비 나눔 사업에도 발을 뻗치고 있다.

이제 부다락키타는 수년에 걸쳐 그만의 불교 수행법을 단련시키는 한편, 아프리카 문화와 불교의 유사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나는 교육의 기초로서 아프리카의 '지혜'를 차용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를테면 '나는 네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고, 너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아프리카의 격언 등을 수행의 화두로 삼는다고.

마지막으로 그는 "비옥한 토양의 씨앗을 뿌리듯, 아프리카라는 대륙의 고유한 불교문화를 싹틔울 수 있길 바란다"고 웃어 보였다. 박정현 객원기자

로힝야족, 말레이시아 밀입국 시도 증가

불법 브로커 사기에 '강제 매춘' 끌려가기도

미얀마 군경과 극우 불교 세력과의 마찰로 난민이 된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족의 말레이시아 밀입국 시도가 더욱 잦아지고 있다.

2월 12일 AFP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로 밀입국을 시도하던 로힝야 난민, '보트피플' 22명이 방글라데시 국경수비대(BGB)에 검거됐다. 다수의 로힝야족이 보트를 타고 말레이시아로 밀입국을 시도하다 검거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4번째다.

로힝야 난민 약 70만 명은 2007년 미얀마 라카인주(州)에서 미얀마 군경의 로힝야족 반군 토벌 작전이 '인종청소'로 변질되며 방글라데시로 도피, 난민 캠프를 꾸리고 살아왔다. 그런데 이들은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간 로힝야 난민 본국 송환 합의에 '신변 안전'을 이유로 반발하며, 많은 로힝야족들이 말레이시아로 밀입국을 시도해 왔다. 보트피플의 밀항은 벵골만이 잠잠한 11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 주로 이뤄진다는 게 AFP통신의 설명이다.


말레이시아로 밀입국을 시도하던 로힝야 난민. 사진출처=AFP통신

방글라데시 당국자는 AFP통신에 "브로커들이 로힝야 난민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사기를 치는 행태가 빈번히 발생한다"며 "난민들이 불법 브로커들을 통해 하는 해상 밀입국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BGB 관계자도 "젊은 여성들은 종종 강제로 매춘부로 끌려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난민기구(UNHCR)은 미얀마 정부에 로힝야 난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알갱이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GM SOFT since 2015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마음을 다스리는 12가지 명상

강명희

〈1〉 수행이란 무엇인가

수행의 시작 '바라보고 수용하고'

복작복작한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화내고, 상처받고, 욕심내고, 번뇌한다. 셀 수 없이 많은 관계 속에서 나를 잊은 채 다른 사람에게 보일 모습에만 몰두한다. 그렇게 중심을 잃고 순간순간 흔들리며 불안한 삶을 보낸다. 이젠 그만 멈추자. 욕망에 흔들리고 분노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을 통해서 말이다. 불교명상수련원 '백화도량'에서 5정심관에 기반한 현실수행에 정진 중인 〈마음을 다스리는 12가지 명상〉 저자 강명희 씨가 수행법을 전한다.

정리=윤호섭 기자



수많은 관계 속 형성된 자아
내 존재 항복시켜야 지혜 돼
수행은 대상 아닌 나를 향해
예비수련으로 준비운동 해야

나를 향한 출발

수행은 대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살면서 대상이 문제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게 만만하지 않지요. 거친 파도에 부딪쳐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거친 파도를 헤쳐 나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다들 그 거친 파도라는 대상을 원망하지요. 그러나 거친 파도는 '너 자신을 좀 봐라' 하면서 밀려오는 것입니다.

수행은 이런 나를 잘 보는 것입니다. '나'가 너무 많습니다. 이 몸뚱이도 나니까 몸뚱이를 잘 봐야 합니다. 이 몸뚱이에 온갖 질병과 온갖 욕심과 온갖 느낌이 있는데, 그것도 나입니다. 나라는 몸을 잘 보는 것도 나입니다. 그리고 또 뭐를 잘 봐야 되나요? 감정이 끊임없이 올라오니까 감정을 잘 보는 것도 나를 보는 방법입니다. 나를 볼 때 나의 몸만 볼 수 없거든요. 몸을 보면 감정이 일어나고, 몸을 보면 느낌이 일어나거든요.

나를 관찰할 때 몸을 잘 관찰하고, 감정을 잘 관찰해 보세요. 나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온갖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 생각이 몸에서 일어나는지 감정에서 일어나는지를 관찰하는 것도 나를 관찰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행동하는 것을 잘 보세요. 누워 자는 것도 행동이요, 밥 먹고 말하는 것도 행동입니다. 행동하는 것을 잘 보면 나를 잘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보면 내 몸과 감정, 생각, 행동들이 나 혼자 만들어낸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도 나 혼자 만든 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운다든지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감정이 많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센 감정은 대부분 대상과 충돌하면서 일어나지요. 충돌 없이 감정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혼자서 팔팔 뛰고 그러지는 않아요. 수행이란 사실은 수많은 대상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대상을 보면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과정을 잘 관찰하는 것이지요. 대상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잘 보는 것이 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봅니다. 내 식이 있으니 대상의 모양을 내 식대로 봅니다. 대상의 모양과 형태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어떤 꼴을 하고 있어도 잘 보고 관찰하는 게 수행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잘 수용하면, 그게 연습이 돼서 다른 사람도 잘 수용하게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대상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거친 파도가 몰려오면 그냥 파도를 맞으세요. 내가 아스라하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대상이 소리를 내요. 그러면 그 소리를 어떻게 해요? 그냥 들어요. 대상이 화나는 소리를 내요. 그래도 그냥 수용하세요. 그게 수행의 핵심입니다.

수행은 첫째로 나를 잘 보고, 둘째로는 대상을, 경계를, 세상을 잘 보는 것입니다. 잘 보고, 잘 겪고, 잘 인정하고, 잘 수용하는 것이지요. 내가 이렇게 있으면 대상이 와서 나를 툭 쳐요. 내가 흔들리지 않고 빳빳하게 서 있으면 경계가 나타납니다. 내가 꼿꼿하면 경계는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칼을 들고 나타나고, 어떤 때는 이만한 돌이 날아와서 나를 팡 칩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잘난 척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눌러요. 대상 속에서,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수많은 너와 접촉하면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내려놓는 것이 수행입니다.

세 번째로, 수행은 대상을, 자연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항복시키는 것, 내 존재를 항복시키는 것이야말로 수행의 핵심이지요. 항복하면 뭘 얻겠어요? 내 마음이 비어서 진짜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대상이 수용돼서 나한테 쓱 들어오면 그때야 지혜가 생겨납니다.

마음이 다 비었어요. 깨끗하게 내 마음을 비워서 내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空)이 지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지혜가 되나요? 마음의 경계에서 대상이 나한테 쑥 들어올 때, 대상이 들어오는 것을 아는 그 인식이 지혜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 변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수용성, 자연에 대한 수용성'이지요.

예비수련–좌선과 바디스캔

불교의 명상법에는 행주좌와어묵동정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걷고 머물고 앉고 눕고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내 편 네 편, 올고 그름, 높고 낮음, 오른쪽 왼쪽을 분별합니다.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것도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수행할 때는 겸수(兼修)가 좋습니다. 행주, 좌와, 어묵, 동정이 반대 개념이니 관찰할 때 묶어서 하는 것이 좋아요. 행선을 하면 주선을 같이 하고, 좌선을 하면 와선을 같이 하고, 어선을 하면 묵선을 같이 하고, 동선을 하면 정선을 같이 합니다.

수행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가 좌선입니다. 좌선을 통해서 행선까지 가야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좌선을 통해서 배우는 게 좋지요.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아야 마음을 관찰할 수 있거든요. 좌선이 중요한 것은 집중이 잘되는 삼각형 자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떠 있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중하는 포인트를 잡기에 좌선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요.

좌선하는 기본자세는 이렇습니다. 먼저 다리는 반가부좌해서 한 발을 다리 사이에 끼웁니다. 어깨는 긴장을 풀어서 떨어뜨리고 턱은 몸 쪽으로 살짝 당기고 팔은 그냥 편하게 두세요. 중요한 것은 허리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모든 신경계가 척추를 타고 내려오니, 척추를 곧추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랫배가 나오고 등이 약간 들어가서 에스 라인이 되지요. 척추가 유연하지 않으면 이 자세가 안 나옵니다. 처음에는 방석을 3분의 1 정도 접어서 엉덩이에 받치고 앉으세요. 떠 있던 무릎이 바닥에 닿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수련의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자세를 하는 게 힘들어서 절로 힘든 몸을 바라보게 되지요. 하다 보면 자꾸 허리가 구부정해지는데, 그럴 때마다 알아차리고 허리를 바로 세웁니다.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하려고 하면 힘들어집니다. 이 자세를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 유지하는 것만 하세요. 힘들면 벽에 기대거나 다리를 움직여도 됩니다. 그래도 힘들면 잠깐 누워도 됩니다.

이제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가만히 있다 보면 들뜬 마음이 가라앉아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런저런 생각으로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이니까 눈을 감고 시작합니다. 자, 눈을 감고 5분만 그 상태를 유지해 보겠습니다. 가만히 있다 보면 조금 편안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관찰에 들어갑니다. 먼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의식으로 몸을 천천히 훑으면서 살펴봅니다. 이것을 바디스캔이라고 하지요. 먼저 의식을 정수리 백회에 두고 백회 약간 위에서부터 스프링 모양으로 뱅글뱅글 자기 몸을 훑어 내립니다. 의식 자체가 흐르는 모양이기 때문에 물이 흐르듯이 뱅글뱅글 훑어 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속에서 스스로 몸을 관찰하는 기능이 살아나기 때문에 천천히 몸을 타고 내려오면서 스캔합니다. 스캔하는 중에 몸 어디에 느낌이 있어도 그냥 느낌을 훑으면서 내려갑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한두 번 스캔하면 마음이 안정되어 예비수련 상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디스캔을 세 번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눈에 의식을 집중합니다. 오른쪽 왼쪽 상관없이 한쪽에 집중해도 되고, 양쪽을 통으로 관찰해도 됩니다. 의식을 눈에 두고 눈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그대로 집중하세요. 눈이 뻣뻣하다면 뻣뻣한 상태, 피곤하다면 피곤한 상태, 까끌까끌하다면 까끌한 상태를 알아차리면서 관찰합니다. 아무 현상이 없어도 그냥 눈에 의식을 집중합니다. 이제 수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강명희는

동국대 불교학과서 유식 수행법을 연구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논문 〈설일체유부와 유가행파의 수행론 비교 연구〉에서 초기불교, 아비달마, 대승유식의 수행론을 정리했고, 이후 불교수행법과 관련한 논문들을 쓰며 경론에 의거해 현실에 필요한 수행법을 만들었다. 동국대 불교학과와 명상심리상담학과, 중앙승가대, 서울불교대학원대학, 연세대 등에서 명상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이 글은 강명희의 〈마음을 다스리는 12가지 명상〉(담앤북스)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전법사교육원 학생모집 안내

2019. 01. 21 부터
2019. 03. 11 까지

한국불교태고종
전법사교육원
www.taego.kr
문의처 02)739-3450

대승교화종단인 한국불교태고종 전법사교육원에서 아래와 같이 전법사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전국 사찰의 교임, 관리인 및 전법사 수계 후 교육 미 이수자는 반드시 교육원 입학을 하시기 바라며, 전법사에 뜻이 있는 재가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모집학과 및 전형
• 학과 : 전법사교육원
• 모집인원 : 00명
• 교학과목 : 1년(2학기)
• 수강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2시~5시
• 전형방법 : 서류심사

응시자격
• 전국 사찰 교임, 관리인
• 전법사 수계 후 교육 미 이수자
• 연령 25세 이상의 전법사 희망자

전형일정
원서교부 및 접수
• 일자 : 2019. 1. 21(월) ~ 3. 11(월)
• 구비서류 안내
1. 총무원 교무부 교부, 접수
2. 입학원서 : 종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www.taego.kr)
3. 사진 2매(3×4cm)

합격자 발표
• 일자 : 2019. 3. 11 월요일
• 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보 예정

입학 및 개강일자
• 2019년 3월 중
• 장소 및 일시 추후 개별통보
• 입학식 후 개강

등록금
• 50만원(1학기)

문의처
• 총무원 교무부 02)739-3450



대행 스님

물질을 보고 끄달리지 말고 내 마음부터 뚫어 보라



그림 · 최주현

왜 주인공이라 하시는지요

질문 이제 마음공부를 막 시작한 초보 불자입니다. 대행 큰스님께서는 늘 "주인공에 관하라." 하셨는데 그 주인공이 참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왜 주인공이라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여러분 앞에 했던 말을 또 되하게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생활하는 것도 만날 되풀이하고 있는 거니까요. 불교다 하면 불은 영원한 생명을 뜻하고 교라는 건 아주 옳고 바른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라고 하면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 지구 안에서, 즉 독 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 거라고 평이 됩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사는 것이 아마 인간인 것 같습니다. 지붕에서 벌레가 하나 뚝 떨어지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이대로 갈 수는 없으니까.' 하니까 뭐가 됐느냐 하면 매미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매미는 전자에 자기가 벌레로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또 자기가 매미가 됐다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간도 자기가 전자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또는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해 가지고 또 이 세상에 어떤 옷을 입고 나올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우리는 지금 한 발 한 발…, 평소에 사람들은 죽는다고 그러죠. 그러나 저는 옷을 벗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옷을 벗으려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세상에 생겨났다면 벌써 "나는 옷을 벗기 위해서 생겨났다." 즉 죽기 위해서 생겨났다. 또 죽는다면 "살기 위해서 죽는다." 이렇게 하겠지마는 그걸 첨보해서 둘이 아니게 생각을 한다면 생사윤회도 벗어날 수 있다고 보죠. 끄달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떠한 말을 해서 여러분한테 이해가 가도록 말을 하느냐. 첫째 내 몸, 둘째 가정, 셋째 사회, 넷째 국가, 다섯째 세계 전체에 우리가 너무도 하는 일도 많지만 오늘은 우리 몸으로부터 얘길 잠깐 해 드리죠.

우리가 이 세상에 몸이 태어날 때는…, 보통 우리가 말을 할 때 삼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삼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즉 말하자면 나 자체, 그러니까 모든 이 마음의 근원이라고 할까요? 그 근원 자체가 한데 합쳐져서, 정자와 난자가 한데 합쳐지면 어린애가 되듯이, 이렇게 정자와 난자가 한데 합쳐져도 씨가 없으면 안 되는 이치가 있다고 봅니다. 삼합이 한데 합쳐지니까 인간 하나가 나온다고 보는데 그것을 일컬어 삼신이라고 우리가 전자부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태어날 때 말입니다, 물주머니에서 터져서 나오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지수화풍에서부터 이 세상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지수화풍이 한데 합쳐지니 그것이 바로 큰 성을 이루었고 성을 이루었으니 온기가 거기 등장을 했고 모든 것이, 이 삼라만상이 벌어졌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생명이 생겨났다고 봅니다. 우린 지금까지도 지수화풍을 떠나서는 못 삽니다. 지금 몸도 지수화풍이니까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 들어 있는 모든 물질이 무엇인가? 내가 억겁 광년을 거쳐 오면서 태초에 생긴 자체가 무슨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에 바로 여러분의 그 몸속에 있는, 갖은 각색으로 해 가지고 있는 세균, 그 생명들입니다. 그 생명, 모습이 바로 태초의 자기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로 인해서 생긴 것들이 그렇게 각각 제 모습을 해 가지고 지금 수만 개가 돼 가지고 이 인간의 별성 하나가 형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나왔는데, 내가 나오고부터 이 세상은 생긴 겁니다. 불교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삼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어요. 후로 갈 것도 없고요. 대충대충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 참작해서 들으십시오.

그래서 내 태초의 모습이 하나가 수만 개가 돼 가지고 지금 몸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체들이 운행을 하고 있는 그 겹겹의 세포의 모든 것이 있는데 선장은 누구냐 하면 자기의 모든 마음, 즉 말하자면 공생이다. 우리가 전체 합치면 공생이다, 공용이다, 공체다, 공식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따져 본다면 내 몸 하나가 은하계도 될 수 있는 건가 하면 바로 혹성이기도 하고 별성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한시반시를 그냥 머무르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구가, 이 세상 우주가 전체 돌아가는 것이 우리 몸이 자도 깨도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운행을 하고 있죠. 여러분이 그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의 그 마음 하나를, 한생각을 잘하면 자기 몸을 잘 끌고 다닐 수가 있고, 한생각을 잘못하면 자기 몸을 구덩이에 빠뜨릴 수도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차를 운전하고 가실 때에 잘 끌고 가면 차도 성하고 일이 잘 성사가 되고, 잘못 끌고 가면, 어디 꼬라박기라도 하면 몸이 다치고 이러듯이 사람 몸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어떠한 쇼크를 받았다거나 이래도 그 몸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화기가 치밀어서 말입니다. 병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 자체를 어떻게 먹어야만 되느냐. 내가 나고서부터 세상은 일어난 거니까 나로부터 화두가 되며 나로부터 근원을 밝혀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사대성인이 이렇게 말을 했죠. 자신을 알라고요. 자신을 알아야 남을 알고 남을 알아야 서로 공생하는 거를 알고 공용하는 거를 알죠. 그럼으로써 한마음이 선장이라고 한다면 모든 이 중생들을 지금 배에 태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어느 종교를 나누어서 찾을 게 아니라, 전체 우리는 바로 공생이며 공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밥이나 해 놓고 떡이나 해 놓고 비는 것이 불법이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고등 동물이라고나 할까. 인간은 90%, 99%가 부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불쌍한 걸 보면 불쌍하게 여길 줄 알고 생각을 낼 줄 아니 그게 부처가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 몸으로부터 마음을 움죽거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몸을 움죽거리면서 오관을 통해서 우리가 움죽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태초도 내 몸에 있고 화두도 내 몸에 있고, 참선이라는 것은 생활에서 똥을 누든 밥을 먹든 자든 깨든 참선입니다, 그대로.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한다 하고 펜대를 붙들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참선입니다. 그건 자기 주인공으로 인하여 자기가 움죽거리고 있는 겁니다. 자긴 바로 자기 주인에 의해서, 즉 운전수에 의해서 차가 움죽거리듯 그럴 뿐입니다. 인간은 이 오온으로써 바깥 경계를 보고 안으로 들입니다. 안으로 들여서 또 가미해 가지고 안에서 만법을 또 냅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이렇게 찰나찰나 우리가 쉬지 않고 가는 그 도리, 하나도 고정됨이 없이, 눈도 고정된 게 없고 귀도 고정된 게 없고, 말도 고정된 게 없고 만남도 고정된 게 없고, 가고 오는 것도 고정된 게 없습니다. 그런 관계상 주인공이라고 한 겁니다. 내가 어느 때에 걸어갈 때에 나라고 할 수 있으며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날 때 내가 만났다고 할 수 있으랴. 그래서 이름해서 주인공이라고 한 겁니다.

내 안에 부처가 있다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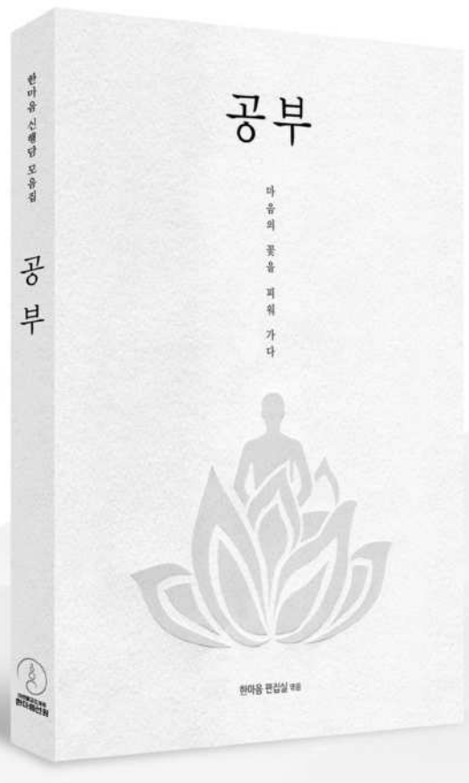
질문 저는 오랫동안 기복으로 기도하는 습이 있어서, 내 안에 부처가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가르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옛날에 약초를 캐는 착한 나무꾼이 하나 있었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약초를 캐면서도 항상 그 어머니를 잊지 못한 채, 나오면 몇 며칠이 걸리니까, 한 달도 걸리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위해서 항상 마음의 기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약초를 캐다가 그만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져서 아주 몹시 다쳤습니다. 산골에서 다쳐서 내려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엉엉 울었습니다. 울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어느 대선사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하는 소리가

☞ A18면으로 계속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판매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운주사 02-3672-7181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

마음이 옹졸하고 가난하다면 언제나 살림살이도 가난하다

☞ A17면에서 계속

"너 나기 이전 너의 아비는 지금 네가 다친 꼴을 보고 울고 있구나. 아비는 울고 있고 아들은 아파하는구나."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립니까?" 하고 울다가 말고 여쭈니 "바로 네가 생기기 이전의 너는 지금 울고 있는 그 마음이니라. 네 몸이 아파하면 네 마음이 의욕이 없어지는 것도 네 아비가 자식을 위해서 의욕이 없어지느니라. 네가 의욕을 잃지 않는다면 그 아비도 의욕을 잃지 않느니라. 그것은 왜냐하면 아비는 더하고 덜함이 없기 때문에 너 하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고는 간 곳이 없어졌으니, 그 말을 들은 그 약초 캐는 나무꾼은 그러자마자 일어나도 다리가 안 아프더랍니다.

그래서 그 나무꾼은 인제는 나무를 하러 다니든 약초를 캐든, 어떠한 짐승이 있든 불쌍한 걸 보든 항상 창문을 통해서, 이 두 눈을 말하는 겁니다. '창문을 통해서 아버지가 똑똑히 보시고 이것 좀 살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했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본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창문에 지나질 않아요. 눈이 아닙니다. 창문에 지나지 않고 그 창문 속에는 진짜 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비의 눈이라고 했어요. 아들은 자기의 눈은 눈이 아니고 창틀이고, 그 창틀 속에는 바로 아비의 눈이 시퍼렇게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부랴사랴 약초를 캐러 또 가다 보니까 덫에, 이렇게 깊이 흙을 파고 선 덫을 놓고 풀을 덮어 놓지 않습니까? 그 풀을 딛고 가다가 산돼지가 그만 거기 덫에 걸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빠졌는데 이 나무꾼이 가다 하는 소리가 그걸 보고 "아버지!" 대답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자기가 그런 겁니다. "저 돼지가 덫에 걸려서 저렇게, 저 생명도 생명이거늘 어찌 그냥 보고 가겠습니까. 보지 못했다면 모르지마는." 하니까 "그럼 네 맘대로 살려 주려무나."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죠." 이렇게 자기가 또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선 저 떨어진 나뭇가지 기다란 걸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는 거기에서 그걸 밟고 나왔습니다.

예전에 산돼지는 사람도 잡아먹고 그랬답니다. 그러나 나무꾼은 산돼지더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비가 너를 살려 줬거늘 앞으로 네 모습을 벗고 사람이 되려면 사람을 해치지 마라." 그랬습니다. 돼지가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그래서 그 돼지는 그 후에 산에서 으뜸가는 맹수인 사자가 됐습니다. 사자가 됐는데도 글쎄, 돼지는 그때의 그 나무꾼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모습을 바꿔서 맹수가 됐는데도 그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꾼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몸까지 그 나무꾼에게 바쳤다는 얘깁니다. 그건 뭐냐? 그 나무꾼을 못 잊은 그 마음과 이 맹수의 마음은 항시 둘이 아니어서 그만 이 모습도 벗고, 이 모습을 벗으니까 아주 이 세상에서 으뜸가는 대인이 됐다는 얘깁니다. 대인이 돼서 어진 정승으로서 중생들을 많이 제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딴 데 있어서 그 말을 했습니다. 살아나가면서 여러분이 몸이 아프거나 또는 어딜 다치거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이런다면 살 의욕이 없어지는 듯합니다. 여러분을 볼 때 참 내 가슴이 아플 때도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만 고치는 게 부처님 법인가?" 이러지마는 그게 아닙니다. 보석이나 뭐나 다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죽게 된다면 아무 의욕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 얼마나 묘합니까? 그러니 자기 몸을 자기가 얼마나 사랑하는 겁니까? 야, 몸뚱이가 좀 아프다고 하면 그 마음은 얼마나 의욕이 없어지고 슬프고 눈물이 나고 이러는지 모릅니다. 생각 한번 해 보세요, 모두. 얼마나 자기를 자기가 사랑하나.

사회 상식과 교양, 교육이 풍족하다 할지라도
한 인간의 대쪽 같은 그 한마음!
그거는 누구도 말리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프면 서로 같이 아파 주고 울면 같이 울어 주고 의욕이 없어 하면 같이 의욕이 없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자기가 못 믿어서, 자기를 자기가 업신여기고 못 믿고 따르지 않고 이러면서도 저 먼 데 부처님이 계시다 하면 만날 그냥 '부처님, 날 좀 도와주시오. 이 몸 아픈 것 좀 낫게 해 주시오.' 하고 빌곤 합니다. '우리 남편 낫게 해 주십시오. 우리 남편 잘되게 해 주시오. 자식 잘되게 해 주시오. 나 몸 좀 안 아프게 해 주시오.' 하고선 빌고 있다 이 소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멉니까, 그게?

나에게 참 사랑하는 바로 내 자부처가, 자신(自神)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일체 신이 바로 한마음에 계신 거를 알면서도 그것을 못 믿고 그렇게 빙빙빙빙 돌아간다면 앞으로 어떻게 내 몸과 내 가정 또 내 국가, 사회 이런 거를, 내 자식을 어떻게 길러 나가면서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까? 지금 현재뿐만 아닙니다. 세세생생에 끝 간 데 없이 말입니다.

몰락 믿고 맡기려면

질문 주인공에 관한다고 나름 열심히 하는데 잘 안됩니다. 믿음이 부족한 탓일까요? 어떻게 해야 몰락 믿고 맡길 수 있을는지요.

답변 요새 너무 아는 게 많아서 그런지 혼란을 일으키고 말입니다, 남의 소리나 듣고…. 부처님이, 석가세존이 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석가세존의 몸뚱이를 믿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진짜 믿는 것은 그 부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항상 서리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물질을 보고 끄달리지 말고 그 마음을 뚫어보기 위해서 내 마음부터 뚫어 봐라 이 소리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나를, 나라는 존재를 버려라. 버리는 게 아니라 맡겨 놔라. 아집을 버리고 말입니다. 그것은 왜냐? 여러분이 여직껏 살면서도 고정되게 보신 게 있습니까? 들으신 게 있습니까? 또 말하는 게 있습니까? 가고 오는 게 있습니까? 먹는 것이 고정됩니까? 하나도 고정된 게 없어요. 그런데 자동적으로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 만나는 대로 뜻과 행과 말이 나가고, 저 사람 만날 땐 저 사람 만나는 대로 뜻과 행과 말이 나가니 그건 무슨 연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믿고 맡겨 놔라. 한군데서 들고 나는 거다." 이겁니다. 역대를 한군데서 들고 나면서 이렇게 해 왔는데 우리가 모르고 바깥으로 방황하기 때문에, 그 한군데로 들고 나는 걸 모르기 때문에 돌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좋은 인간관계 맺고 싶습니다

질문 회사를 다니는 청년입니다. 제 주변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은 거의가 기독교 신자들이 많습니다. 종교가 달라도 서로 잘 통하는 친구도 있지만 서로 생각하는 점이 다르니 대화를 하다 보면 꼭 종교적 부분에서 부딪치게 되어 관계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종교를 떠나 모든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답변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요런 걸 한 번 대비해서 얘기해 드릴까요? 어떤 사람이 아주 나보다 모자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나라고 한다고 또 난 줄 알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다 똑같습니다. '나' 하면 벌써 여러 나라는 게 어딨는가? 누구 만날 때 내가 만났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부처는 없는 게 부처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관하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게 관하는 건지 그것조차도 모른다면 나를 어떻게 발견을 하며 내 습을 어떻게 녹일 수 있으며, 내가 생동력 있게 모든 생물들과, 즉 사생(四生)과 더불어, 우주와 더불어 대천세계를 막론해 놓고, 내 몸뚱이 집과 대천세계의 집과 도량이 둘이 아닌 걸 어떻게 알 겁니까? 그래서 알게 되는 도리를 이끌어 주기 위해서 자기부터 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진짜로 일차적으론 믿어야 한다,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를. 둘째는 모든 일체를 거기서 해 나가니까 거기에 믿고 맡겨 놔라. 셋째, 거기서밖엔 일체를 할 수 없으니까 다가오는 대로, 아프면은 의사가 돼 주실 거고, 즉 약사가 된다 이거죠. 가난하면 관세음이 돼 줄 것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한다면 부처님의 마음, 한마음 안에서 그 모든 내 몸뚱이에 있는 중생들이 화해서 보살이 천백억화신으로 나투니, 털구멍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고 들면서 모든 중생들을 건진다 이겁니다, 생사에 뛰어들어서. 그래서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니니라.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생사에 뛰어들듯이.

분과 더불어 같이 나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예전에 예수가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나를 믿으란다고 그냥 전부 예수를 믿듯이 말입니다. 그건 나를 따르란 거지, 나를 믿으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똑바로 알아들어야지, 잘못 알아듣는다면 그것이 바로 오산이죠, 오해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잘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부처님도 바로 나를 믿고, 나는 이게 물질이기 때문에 따르랬지 믿으란 게 아니거든요. "너를 발견하라. 너를, 각을 이루라. 너를 깨달아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물리가 터진다면 대중 생활을 할 때도 능숙합니다, 그것만 알면. 왜냐? 내가 만약에 저 못난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아주 빈약하고 그릇이 작고 폭이 좁고 졸렬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아, 저거는 과거의 바로 나였구나.' 하니까 이건 과거의 자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끌어서 길러 줄 생각만 했지 '너는 작다', '너는 졸렬하다' 이러고 내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저 포근하고 따뜻하게 이끌어 가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이겁니다. 자기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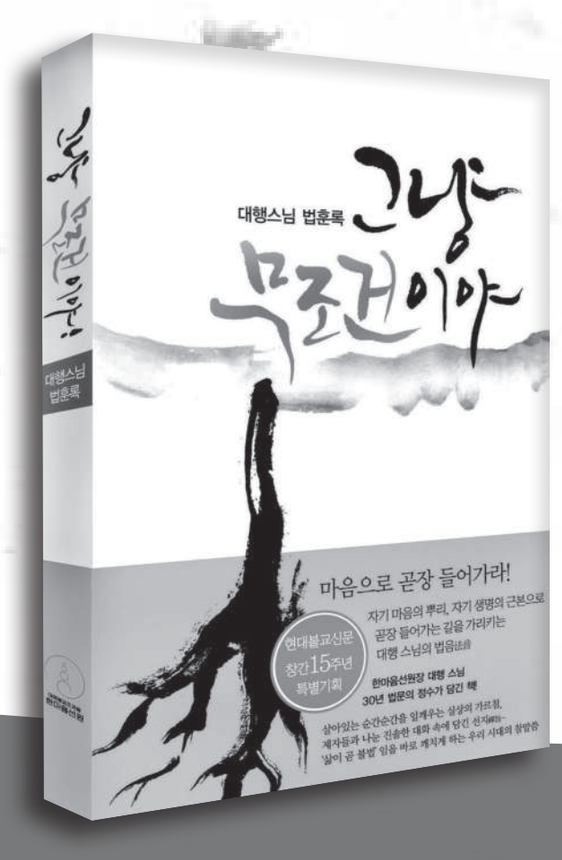
그랬고 윗분을, 아주 능숙하게 익은 분을 봤습니다. 그랬을 때에 존경하면서 바로 자기의 자(自)노승, 즉 말하자면 자기의 스승으로, 미래의 자기로 알기 때문에 또 숭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어디 가나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지금 내가 얘기해 드린 거, 대중 생활이든지 대중 생활 아니든지, 내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어떠한 정치인들이든지 다 요런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둘이 아닌 이 폭이 넓은 그릇이 돼야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가정에서도…, 내가 항상 그러죠, 여러분한테. "아무리 못났든 잘났든 인연이 돼서 만난 사람, 이걸 그르면 그르다고 생눈을 뜨고 보지 마라. 가화일화니 바로 저 성주와 같은 거다. 네가 만약에 서까래라면 성주와 같은 거야, 대들보. 대들보를 올리지 않았다면 서까래를 올릴 수가 없으니 그것을 대들보로 믿고 나쁜 여건이 있으면 안으로 굴리고 좋은 여건이 있으면 얘기를 해서 좋게 서로 웃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져봐라. 그런다면 마음의 자가발전소의 그 불은 가설이 본래 돼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불이 들어온다. 그래서 항상 밝은 방을 가지면서 어디나 우리 있는 데는 다 밝다. 밝기 때문에, 컴컴하질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웃고 즐기고 살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이 옹졸하고 가난하다면 언제나 살림살이도 가난해요. 배도 고프고. 이러니 본래 배부르게 가진 고등 동물이 제 밥을 찾아 먹지 못한 채 배가 고파서 만날 허덕이고 남의 심부름을 항상 해야만 하고, 남이 하던 거 따라가야 하고 자기가 생산은 못하고, 항상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좀 더 욕심 아닌 욕심도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다른 거는 다, 사랑하고 인정 있고 도의, 의리와 이 사회 상식과 교양과 교육과 이것이 풍족하다 할지라도 바로 내가 살아오면서 한 인간의 대쪽 같은 그 한마음, 이거는 누구도 말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풍족하게 가면서 이것을 밀고 나간다면 그것은 말할 수 없이 좋은 참, 봄에 꽃 피는 일이라. 새가 우는 것도 꽃이 피는 것도 계곡에 물이 흐르는 것도, 길이 이렇게 아스팔트로 돼 있는 것도 산 너머 계곡으로 넘어가는 길도 평전이 될 것이다 이 소립니다. 우리가 아스팔트는 다니기 좋으니 몸으로 다니고 계곡을 넘어갈 때는, 산이 높아서 못 갈 때는 내 한생각이 바로 계곡을 넘어갈 수 있고, 강이 있어서 못 건너가는 데는 내 한생각이 그렇게 강을 건너서 훌쩍 가게 되면 그 강 건너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인 거죠. 산을 넘어서 가면 그 산 너머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 병을 고치고 그 사람의 가난도 그 사람이 바로 조화를 이루어서 잘된다 이겁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 현불 논단 |

명상도 표현해야 합니다



선업 스님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

습관 정착된 말과 행동 'Tells'
불교의 삼행 · 삼업과도 맞닿아

명상, 가만히 앉아 있기로 오해
문제를 명상 통해 회피하기 때문
해소하기 위해 '표현명상' 등장해

명상하면 현상 나오고 이를 표현
현존하는 긍정적 기능 활성화시켜

명상을 하면 몸과 마음에 '접촉' 아니 할 수 없고, 몸짓과 맘짓으로 '표현' 아니 할 수 없다. 쉼 없이 대상에 접촉하고 접촉을 통해 마음에 나타난 심상을 표현하면서 사는 것이 명상적 삶이다.

마음에 나타난 심상을 영국의 사회심리학자 피터 콜릿은 '텔(Tells)'이라고 부른다. '텔'은 'Poker-tell'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는 용어로, 반복에 의해 구별 가능한 습관으로 정착된 몸과 말과 마음의 반응이나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수많은 이야기 중에 자신이 꽂혀있는 현상인 핵심감정, 핵심욕구, 핵심 사고를 'Mental-tell'이라고 하며, 단순한 몸짓을 포함하여 옷차림 · 서 있는 자세 · 눈짓 · 걸음걸이 · 생김새 · 땀 · 홍조현상 · 물건을 쥐는 방식 등 모든 몸의 습관을 'Physical/Bodily-tell'이라 한다. 또한 사람의 성향이나 속마음을 드러내는 말투 · 음성의 높낮이 · 특정 용어 사용을 비롯한 언어적 습관을 'Verbal-tell'이라고 한다. 또한 특정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맥락을 'Social-tell'이라고 부른다.

불교적으로 보면 심리적 내재화 상태인 삼행(身行 · 口行 · 意行)이 바로 텔(Tells)이며, 삼업(身業 · 口業 · 意業)으로 외현화되는 '표현'의 대상이 또한 텔(Tells)이 된다.

명상을 '가만히 입 다물고 앉아만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있다. 이런 관점이 확대되어 일부에서는 명상이 "자신의 오래된 '방어를 합리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또는 개인적인 혹은 감정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우회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명상에 대한 우려 섞인 시각을 '영적우회(Spiritual Bypass)'라고 하는데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명상 안으로 숨기는 형태를 말한다. 이런 '잘못된 돌아감'을 해소하기 위해 '내면의 심상을 외현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 명상'인 표현명상이 등장한다.

고든(2008)에 의하면, 표현명상이란 '내재화된 것들을 외현화하는 것으로, 돋우어 올린 힘으로, 감정과 생각, 두려움과 고통을 밖으로 표출시켜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명상활동이며, 또한 이를 통해 '오랜 심리패턴의 고리를 끊어 미활용 감정을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심리적 기능을 현재화하여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이다.

존 웰우드에 의하면 영적인 우회의 성향인 '시시때때로 변하는 나약한 자아와 같이 어렵고 불쾌한 것을 외면'하는 성향은 표현을 통해 나타난 모습을 직면함으로써 해결가능하다. 또한 문제를 내사하여 내적으로 상처(內傷)를 입는 경향성을 '명상적 표현하기'를 통해 완화시킬 수 있으며, 반대로 문제를 밖으로 투사하여 남 탓을 하는 왜곡된 표현 양식을 '적절한 표현하기'를 통해 전환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표현 중심의 명상을 하면, 인지 · 정서적 감옥에서 풀려나 몸이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 행복해지며,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경향성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서 분노 에너지를 창조적인 자애와 기쁨의 에너지로 변화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 안에 현존하는 긍정적인 내적 기능을 발견하여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한다.

명상을 하면 현상이 일어난다. 그것을 드러내어 표현하기 시작하면 현상의 영향력은 소멸된다. 본래 무상(無常)하기 때문이다. 무상한 것은 괴롭고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이렇듯 명상하면서 경험한 '텔(Tells)'을 인터뷰, 선문답 등을 통해 점검하다보면 우리는 바른 길에 우뚝 서게 된다. 중도 정견의 바른길, 표현으로 드러낸 본래의 마음 길 바로 그곳에.

社 說

신계사 템플스테이를 기다리며…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한반도에는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하는 대중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북불교계 지도자들이 금강산에서 만나 구체적인 교류사업을 논의한 것은 큰 성과로 평가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 조계총림 송광사 주지 진화 스님, 사회부장 덕조 스님은 2월 12일부터 1박2일간 남북 민간단체가 공동 주최한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에 동행했다. 행사에는 북측에서 강수린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장과 차금철 서기장 등이 참석했다.

후문에 따르면 원행 스님은 총무원장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의지를 피력해 온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의 가능성을 직접 점친 것으로 전해진다. 강수린 위원장과 템플스테이 체험관이 들어설 만한 부지를 살펴보고,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넓은 범위에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강산 신계사는 개성 영통사와 함께 한국불교계가 정성을 쏟아 복원한 중요한 부처님 도량이다. 한국불교계는 남북관계가 악화되기 이전까지 매년 신계사를 방문해 북한불교도들과 합동다례재를 봉행하고, 남북불교계가 정치색 없이 통일을 향한 같은 의지를 되새기는 뜻 깊은 장소였다.

정치상황으로 인한 수년간의 단절에 이어 교류의 물꼬를 튼 현재, 신계사 템플스테이 사업은 첫발을 내딛은 셈이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조계종이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잘 이끌어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

'생명나눔 운동' 적극 동참 바란다

본지가 2월 12일 생명나눔실천운동본부와 생명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진행하는 장기기증 희망등록,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환자치료비 지원, 자살예방 교육 등 다양한 생명나눔운동을 대중에게 적극 알릴 예정이다.

생명나눔운동은 장기기증 등 타인에게 가장 소중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베푸는 일이다. 말 그대로 한 생명을 살리기도 하며, 직접적으로 생명과 연관이 없는 경우에도 수혜자의 삶의 질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시켜준다.

장기기증 경우 기증자가 사망했거나 최소 뇌사 상태이기에 기증으로 어떤 직접적인 손해나 피해를 보는 것도 없다. 이로 인해 사회에서는 장기기증을 비롯한 생명나눔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보다 많은 부분의 장기기증이 가능해지고 있다. 조혈모세포 기증과 같이 생전 기증도 가능하다.

하지만 불교계에서 장기기증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불교계 통계를 보면 장기기증 건수는 소폭 늘었지만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보다 많은 동참이 필요한 이유다.

불교에서는 자신의 성불뿐만 아니라 타인의 성불도 이루는 자리이타를 강조한다. 자신의 신체 일부를 기증하는 행위도 보시바라밀에 속한다.

불교계에서 생명나눔운동이 활발히 펼쳐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장기기증과 조혈모세포 기증 등 생명나눔운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아름답고 따뜻한 자비실천에 대한 많은 불자들의 참여를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천미희의 **환경칼럼**

과대포장의 옷을 벗어라

법당 꽃꽂이 소임을 맡게 되면서 아름다운 꽃을 자주 만나는 호사를 누린다. 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꽃 한 송이 안에 온 우주가 다 들었다는 걸 그냥 느낄 수 있다. 그만큼 꽃은 그 자체로 아름답다.

그런데 꽃을 선물할 때면 우리는 꽃보다 더 화려한 포장지로 꽃을 싼다. 꽃을 비닐로 싸고 그 위에 더 원색적인 포장지를 보태고 그것도 모자라 알록달록 리본까지 단다. 꽃뿐만 아니라 겹겹이 싸고 또 싸는 포장은 과자, 화장품, 과일 등 모든 상품들에 넘쳐난다.

때로 포장은 꼭 필요하다. 음식을 차갑게 유지할 수 있으며 유통기한을 늘리고 운송을 편리하게 하는 등 긍정적인 기능도 있다. 그러나 내용물에 비해 포장재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과대포장은 엄청난 낭비와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

가장 먼저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만든다. 2011년 환경통계연감의 통계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중 포장 폐기물 차지 비율이 35%에 달한다. 그 비율은 해마다 7~8%씩 꾸준히 늘어나 2014년에는 62%에 달했다.

과대 포장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긴다. 실제로 포장 거품만 줄여도 30~50%의 가격을 내릴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구 환경에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2중, 3중의 과대 포장 후 버려지는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되고, 약 4천 톤의 탄소가 배출된다. 스티로폼, 플라스틱, 알루미늄 등은 완전 분해까지 약 500년 이상이 걸린다.

포장으로 소비자를 유혹하려는 기업과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식의 소비를 이어가는 소비자들의 상호 작용으로 과대포장의 고리는 쉽사리 끊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도 다행히 세계 곳곳에서 지구를 위해 과대 포장의 옷을 벗으려는 노력들이 시작되고 있다. '포장재'를 과하게 사용하는 포장 '죄'를 짓지 말자는 각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진행되는 '그린마일리지 캠페인'도 하나의 예다.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대형마트에 가서 관심 있게 둘러보면 '그린마일리지 캠페인' 코너를 발견할 수 있다. 그 코너에서 포장 없이 낱개로 사면 할인도 받고 별도의 마일리지 적립도 해준다.

과대 포장의 옷을 벗겨내는 흐름을 주도하며 아예 포장을 없앤 상점도 있다. 런던에서 뜨고 있는 '포장하지 않는(Unpackaged)' 가게다. 유기농 식품 매장인 이 가게에는 모든 제품이 포장되어 있지 않다. 집에서 직접 용기를 가져와 필요한 만큼 담아 지불하는 방식이다. 필요한 만큼만 담아서 사니 음식물 쓰레기도 줄고, 포장 쓰레기는 거의 없다.

〈이기적 이타주의〉의 저자 앨런 패닝턴은 "소비자는 이제 나 자신만을 위해 소비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소비가 환경과 생태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도 입히지 않으며 동시에 다른 사람을 돕는 소비인지를 고려하는 '이기적 이타주의'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이기적 이타주의' 시대를 열어가는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 또 지구를 위해 포장의 옷을 과감히 벗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과대 포장으로는 결코 담아낼 수 없는 본질을 보는 안목을 길러야 할 것이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이 책은 참마음, 참나, 참자기, 본래면목, 불성, 자성, 진여일심, 한마음을 찾는 달마선법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풀이(주해 및 강의)한 책이다. 저자인 이창우 거사는 조계종 한마음선원장 대행 선사의 재가 제자로서 오랫동안 대행선사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고 마음공부를 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오늘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냈다. 저자는 "마음을 몰록 놓는 삶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 같지만 발 가는 곳에 마음이 머무는 곳에 진리(부처)가 있으므로, 생활을 도량으로 삼으면 살아서는 안내자가 되고 죽으면 구세주가 되므로, '참자기'를 스승으로 삼고 '참마음'을 등불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 구입문의 : 02)2004-8216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사전에 禪學을 망라하다



정원 스님은… 1969년 일우 스님을 의지해 출가했으며, 1980년까지 일우 스님으로부터 선교를 배웠다. 1984년 8월 천안 광덕면 매당리에 평심사를 창건하고 11년 간 칩거하며 〈고려대장경〉 〈대정신수대장경〉 〈대일본속대장경〉 〈한국불교전서〉 〈조선불교통사〉 등 내전을 두 차례 열독했다. 이후 〈현구집〉을 비롯해 〈태화당수세록〉 〈대장사원(大藏辭苑)〉 〈선림송구집(禪林頌句集)〉 〈선문염송집표주(禪門拈頌集標註)〉를 간행했다. 2014년 6월에 〈태화선학대사전〉을 한문본으로 출간했으며, 2016년 〈선종천자문〉을 발간했다. 올해 1월에는 〈태화선학대사전〉을 증보 · 한글화 한 〈국역태화선학대사전〉을 10권으로 완간했다.

INSIDE

B3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마하시 선원의 입방과 공양

B5 문화
허회태 '심장의 울림' 展

B6 학술
동국대 2019년 상반기 불교 박사논문

산문 밖의 禪

정원 스님 천안 평심사 주지

천안 · 글=신성민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사전(辭(事)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사와 함께 했다. 어문을 익히는 데 기본이 되는 단어의 의미 · 품사 · 용법 · 어원 · 표기법 등을 해설하거나 일련의 사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들을 사전은 제공했다. 그런 의미에서 사전은 인류 지식의 요체를 모은 결집이면서 확장을 도모하는 교보재이기도 했다.

불교에도 이 같은 사전들이 고래(古來)로 존재했다. 송나라의 선향(善鄕)이 선지식의 어록에서 어려운 낱말 2400여 개를 꼽아 풀이하고 그 출전을 밝힌 〈조정사원(祖庭事苑)〉은 일종의 불교 선학 사전이다. 근현대에 들어오면서 불교가 학문 체계를 받아들이면서 불교사전들이 발간되기 시작했음에도 유독 〈조정사원〉과 같은 선학사전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진짜 선학사전이 나오기까지

하지만, 근자에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세계 최대 규모의 선학사전인 〈국역태화선학대사전〉이 10권으로 완간됐다는 것이다. 이를 편찬한 사람은 천안 매당리 평심사라는 작은 사찰의 주지인 정원 스님이다.

스님이 편찬한 〈국역태화선학대사전〉은 2014년 내놓은 한문본 〈태화선학대사전〉을 증보 · 한글화 한 것으로 무려 5년에 걸친 역경불사였다.

10권에 걸친 분량만 10,024쪽에 달하며, 사목(詞目)은 42,235항(項), 예문은 34,068조(條)이다. 보주(補註) 역시 1,315목(目)에 이른다.

이는 중국과 일본에서 나온 선학사전을 뛰어넘는 분량으로 스님 스스로 세계 최대 규모라고 자부하는 이유가 허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실제 일본의 〈선학대사전(1985)〉과 중국의 〈선종대사전(2010)〉은 표제어도 없고 분량도 1800여 쪽과 614쪽 정도다.

정원 스님은 〈태화선학대사전〉이야말로 선학을 제대로 배울 수 있게 돕는 중요한 사전임을 강조했다.

"불교를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입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쉽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됐음에도 선학 관련 사전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중국과 일본에 사전이 있기는 하나 너무 빈약합니다. 하지만 〈국역태화선학대사전〉은 한글뿐만 아니라 원문 예문과 출처가 함께 있어서 한자 문화권 사람이면 누구나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정원 스님은 2014년 〈태화선학대사전〉까지만 불사를 할 생각이었다.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기 때문이다. 〈태화선학대사전〉 발간에 도움을 준 이철교 前 동국대 출판부장이 이번에도 불을 붙였다. 그는 한음순(韓音順)으로 정렬한 사전을 이메일로 보내왔다. 스님은 결국 고민 끝에 한글화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늘 그렇지만 스님의 출판 불사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인터뷰뿐만 아니라 서문에도 밝히고 있지만, 스님의 출판은 모두 어느 누구의 도움없이 사찰 요사채 안에서 혼자 작업해 이뤄진다. 편역, 수교는 물론 컴퓨터 문서 작업과 조판까지 모두 혼자서 한다. 세납이 70세지만, 어지간한 젊은 사람보다 컴퓨터 문서 작업에 능숙하다. MS워드와 한컴오피스의 장단점까지도 줄줄이 꿰고 있을 정도다.

"혼자서 하니까 너무 힘들죠.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평균 14시간을 작업해서 지금의 국역본 사전을 편찬할 수 있었습니다. 자금이 없으니 학자나 출판업체에 맡길 수 없습니다. 1만여 쪽에 대한 타자 작업 비용만 1억 5천만 원이 들어요. 제가 편역부터 컴퓨터 조판까지 1인 4역을 하는 이유입니다."

공부는 좋은 스승과 사전 있어야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져야 함에도 정원 스님이 사전 편찬 불사를 오롯이 해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부는 좋은 사전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평소 스님의 지론 때문이다. 스님은 공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첫째는 '좋은 스승' 이고 둘째는 '좋은 사전' 이라고 생각한다.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회자되는 이야기이지만 정원 스님은 1992년부터 2002년까지 11년 동안 〈고려대장경〉 〈대정신수대장경〉 〈일본속장경〉 〈한국불교전서〉 〈조선불교통사〉 등을 2회 열독했다. 대장경 등 내전을 2차례 읽어가는 데 선학 쪽 용어가 막혔다. 그래서 사전을 찾았는데 명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사전 편찬 계기를 묻는 질문에 스님은 이렇게 짧게 답한 것이다. "내가 답답해서. 답답해서 못 살겠더라."

정원 스님은 대장경과 어록을 보면서 출처와 예문들을 모두 정리했고 이는 국역에 앞서 내놓은 2014년 한문본 사전에 모두 담겼다. 사전 안에 "쓸데없는 말이 없다"고 자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 사전에는 경전과 어록에 대한 출전과 원문 예문까지 친절하게 수록돼 있다.

'선학사전'이라는 대작불사

〈국역태화선학대사전〉 10권 완간
2014년 태화선학사전 증보 · 韓譯
1만 페이지 · 4만 2천여 사목 자랑
경전 · 어록 근거 예문 3만 4천條
中 · 日 사전보다 방대 · 질도 우수

매일 평균 14시간 간경 · 번역 작업
디지털 문서 · 조판 직접… 1인 4역

그렇다면 장장 11년동안 두문불출 내전을 간경한 계기는 무엇일까. 스님은 경전 역경을 꼽았다. 출가 이후 경전 번역을 시작했지만, 하다보면 오류가 많은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대장경을 통독하자는 원력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30년 전부터 경전 번역을 했죠.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으니 모두 붓으로 썼습니다. 대장경 간경을 발원하고 〈고려대장경〉을 구해 읽었는데 이는 오픈게임이었어요. 〈고려대장경〉을 다 읽었는데도 모르는 것이 나와서 〈대정신수대장경〉을 구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대정신수대장경〉은 오자도 많고 어록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속장경〉을 구해서 읽었어요. 이를 반복한 것입니다."

스님의 번역은 직역이다. 시문이나 소설은 의역이 가능하지만, 불교 경전은 의역을 하면 안된다는 게 정원 스님의 주장이다. 한 글자(一字)의 해석만으로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원문을 복기할 수 있어야 잘된 번역이라고 본다. 그래서 스님은 이번 국역 사전의 서문에 이렇게 썼다.

B2면에 계속

“불립문자? 공부 포기한 사람이 하는 말”

‘정원 스님’ B1면에서 계속


컴퓨터 앞에서 조판을 하고 있는 정원 스님. 편역, 수교, 타자, 조판 등 출판 작업을 모두 혼자 진행한다.

내가 사전을 만든 이유는

1992~2002년 대장경 등 2차례 열독
의문 해결할 좋은 사전 없어 시작
원문 복기 안되는 경전 번역은 잘못
정신 · 물질 힘들어도 후학위해 노력

나의 수행 · 원력의 뿌리는 스승

일우 스님을 은사로 1969년 출가해
첫 배움 선문염송… 선 · 교 모두 중시
붓 1천 필 소모한 사경 수행도 시작
좋은 스승 만난 것도 사전 편찬 도움

한국불교, 공부 좀 하세요

옛 스님들 경전 통달… 교학에 밝아
10년 집중해야 깨달음 일견에 이르러
“옷은 새 옷이, 책은 고전이 좋습니다”
사부대중 모두 고전에 관심 갖기를

“한문불전의 역한가(譯韓家)들은 직역하는 자가 드물게 있다. 그러나 많이들 이르기를 나는 직역한다 하거니와 정원이 이르나니 만약 능히 번본(飜本)으로 방불하게 원본을 복기(復記)하지 못한다면 직역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오번(誤飜)이 있을까 염려스럽다고 이른다.”

모든 것은 스승에게 배웠다

11년간의 간경 안거부터 사전 편찬, 요즘에는 드문 직역체의 번역 스타일. 이는 모두 스승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정원 스님의 은사는 일우 스님이다. 오두막 한 칸에 기거하며 수행한 일우 스님은 당시 숨겨진 선지식으로 회자되고 있었다고 한다.

정원 스님은 1969년 일우 스님을 친척 소개로 찾아가게 된다. 이미 불교에 뜻이 있던 터라 곧장 질문을 던졌다. “스님, 생사는 열반이죠.” 그러자 일우 스님이 “이놈아 말은 누가 못하냐”고 일갈하며 폭포수 같은 법문을 쏟아냈다. 당시 속인 정원은 한 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다. 결국 일우 스님을 쫓아다니다가 출가를 하게 됐다.

출가한 정원 스님에게 스승은 사집이나 율장을 가르치지 않았다. 제일 먼저 던져준 것이 〈선문염송〉이었다. 스승이 번역하면 제자를 이를 받아썼다. 이는 정원 스님에게 선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다. 직역 스타일의 번역도 당시 스승에게 배운 것이다.

또한 일우 스님은 제자 정원 스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선문염송〉 30권을 모두 사경하면 깨달을 수 있다.” 이를 믿고 정원 스님은 1978년부터 사경 수행을 시작했다. 〈선문염송〉은 물론 〈금강경〉을 1000번을 서사했고, 이후에는 여러 경전과 어록을 사경했다. 이를 통해 약 1000필의 붓이 닳아 없어졌다.

“사경 수행의 이익은 집중입니다. 모든 수행은 오롯이 10년을 집중해야 합니다. 은사 스님도 그러셨습니다. 기도가 들어오면 1주일 간 잠도 자지 않고 염불을 하셨습니다. 석달 정도는 자지 않고 공부할 수 있다고 하셨고요. 스승님의 이 같은 모습을 배우고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선사가 더 경전을 보았다

경전과 선 수행을 모두 강조했던 일우 스님의 가르침은 정원 스님에게 그대로 이어졌다. 그래서 정원 스님은 경전을 보지 않는 현재 한국불교의 상황에 대해 비판적으로 본다. “뛰어난 선사가 되고 대강백이 되려면 대장경을 봐야 한다”고 인터뷰 내내 강조했다.

“불립문자(不立文字)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불교 공부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경전과 어록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옛 스님들에게는 일상이었지만, 지금의 한국불교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당장 일본불교의 재가자들은 〈벽암록〉 원전을 찾아봅니다. 한국은 이를 보지 않아요. 가르쳐달라는 사람이 없으니 스님들도 배우질 않는 것이죠. 안 보니 불교 수준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원 스님은 옛 선사들이 박학다식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제가 사전에 유교나 도가 등의 주석을 단 이유는 선어록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옛 선사들은 경전뿐만 아니라 외전까지도 지식이 있었던 것이죠. 분양선소는 대장경을 6번 보았고, 영명연수도 3번을 보았다고 하죠. 선사도 강사보다 더 경전을 보았습니다. 선종을 공부하면서 교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부만 한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방편이다

정원 스님은 자신이 발간한 모든 역 · 저서들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한 명이라도 더 읽었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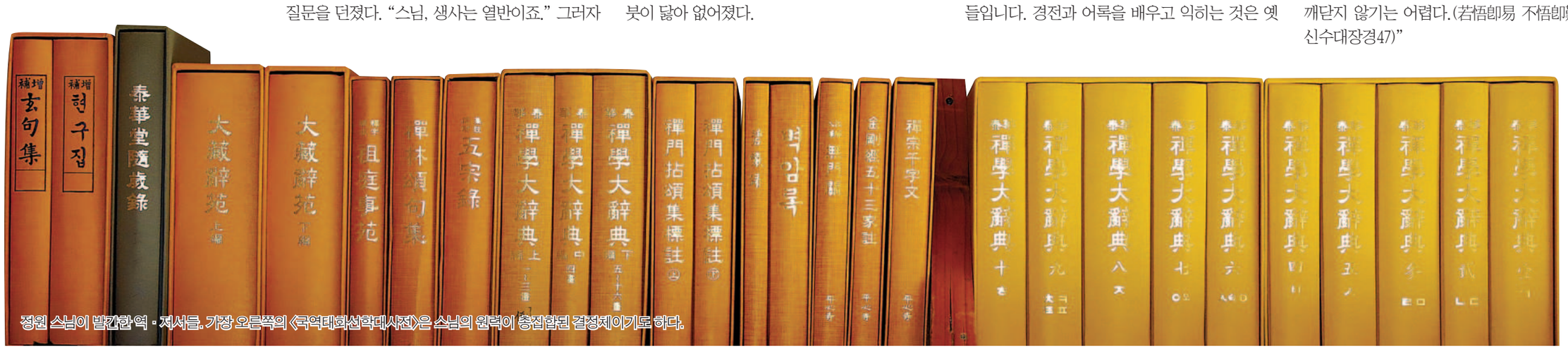
“어차피 사는 사람도 없어요. 굳이 자료를 가지고만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공개하면 한국불교 대중이 좀 읽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고전을 봤으면 합니다. 옷은 새옷이 좋고 책은 고서가 좋은 법입니다.”

인터뷰의 말미, 불교는 무엇인지 물었다. 스님은 ‘방편(方便)’이라고 곧바로 대답했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그 소질에 따라 임시로 행하는 편의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미하는 방편이 왜 불교일까?

“정해진 것은 없어요. 맞고 옳은 것도 없습니다. 이를 알면 시비가 사라집니다. 방편을 몰라 시비하고 우열심을 갖는 것입니다. 깨우치겠다는 것도 집착입니다. 깨우치면 좋겠지만, 못 깨우쳐도 상관없습니다. 그에 맞춰 부처님은 방편법을 설하셨습니다.”

스님은 자리에 앉아 다시 조판 작업을 시작했다. 책상의 한 켠에는 스님의 손때가 묻어 이제는 해어진 낡은 사전이 있다. 어쩌면 스님은 사전과 저서를 통해 후학들에게 선학을 배우기 위한 방편을 전하고 있을지 모른다.

창밖으로 풍경소리가 들린다. 스님이 던진 일구(一句)를 다시 곱씹어 본다. “깨닫기는 쉬워도 깨닫지 않기는 어렵다.(若悟卽易 不悟卽難, 대정신수대장경47)”


정원 스님이 발간한 역 · 저서들. 가장 오른쪽의 〈국역태화선학대사전〉은 스님의 원력이 총집합된 결정체이기도 하다.



이계호 교수의 굿모닝 생청국장이란?

청굿 굿모닝 생청국장 44g X 2개입
|주문배송| 02-568-1611

한국형 글로벌 장건강 프로젝트란?

전통과 과학이 만나 완성된 “생청국장”

전통문화융합연구사업 연구기획과제로 선정된
국가 R&D 프로젝트입니다.

이계호 교수가 참여한 연구팀
2016년 ~ 2020년 54개월간 청국장의 과학화, 표준화 작업

표준화(균주 및 제조 공정) → 활용다양화

유해물질 최소화: 바이오제닉 아민,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 독소, 유해미생물, 냄새
유익물질 최대화: 이소플라본, 아미노산, PGA, 비타민 K2

활용다양화: 제품의 기능, 모양, 질감, 맛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성별, 세대별, 국가별 수요 확대

특허번호 (제10-1860836호)

떠먹는 생청국장, 왜 더 좋은가?

특허받은 전통 우리 균주 바실러스 아밀로리퀘파시엔스균

유해물질을 최소화하고 유익물질을 극대화하여 청국장의 특유의 냄새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일본의 바실러스 낫토균을 능가하는 '바실러스 아밀로리퀘파시엔스균' 1,000억마리를 담았습니다.

과학화/표준화 → 유익 물질 최대화 / 유해 물질 최소화 → 청굿

순창 전통 장류에서 발굴한 장 건강에 좋은 균주로 뛰어난 내산성, 내담즙성, 혈전분해활성, 유해 미생물에 대한 항균효과가 뛰어나며 바이오제닉아민과 같은 유해물질을 생성하지 않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더 잘 맞는 우리 식품

늘어나는 장 속 유해균 관리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에 꼭 맞는 균주!
청국장에서 찾았습니다.

순창군 (재)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과 5개 대학의 공동연구 프로젝트
안전 먹거리 기본 회복 전도사 이계호 교수 주도 연구
발효 공정의 과학화, 균주표준화, 제조공정표준화
논문 13건, 특허 9건, 다양한 학술지 발표 / 수상 (22 / 2)
장내 미생물 균총 변화 분석을 통한 장기능 개선 기능성 검증

지금 공양은 어디서 비롯됐을까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③ 마하시 선원의 입방과 공양

다음으로 찾은 수행처는 미얀마 양곤의 마하시 선원이다. 마하시 선원은 외국인에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선원이다. 이 선원 이후에 많은 선원들이 연달아 외국인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수행처로 발전하였다. 이 선원은 마하시 스님을 초대 선원장으로 1949년에 개원하였다. 양곤의 도심지에 계단(戒壇) 건물, 법당과 설법전, 출재가, 남녀와 외국인 구분의 여러 선방과 숙소, 공양간과 기념관 등이 도량 곳곳에 산재해 있다. 현재는 약 500여 명 대중이라지만 많게는 약 3천여 명의 수행자가 상주한다.

미얀마 도착 후 처음 찾은 선원이다. 이 선원이 미얀마의 관문에 위치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미얀마 수행처의 대표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랫동안 미얀마인은 물론 전세계인이 가장 많이 거쳐 간 미얀마 수행처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얀마 각지는 물론 거의 전세계에 분원이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에도 가장 먼저 마하시 수행처의 위빠사나가 소개됐다. 미얀마 선원에 오래 머물며 공부하는 한국의 스님이 알려 준 바에 의하면 마하시, 쒜오민, 빠옥, 모곡, 빤디따라마, 참메 등의 선원이 중요한 수행처라고 가르쳐줬다.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들이 번갈아 가며 가장 많이 찾는 수행처라 한다.

언젠가 점심 공양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툰툰(TunTun)을 만났다. 그는 미얀마인으로 한국에 체류한 경험으로 한국말을 잘한다. 한국 수행자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차량을 운행했다. 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인들이 주로 찾는 수행처 순위를 물어보았다. 그의 답변은 의외였다.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빠옥총림이라고 했다. 다음이 쒜오민, 빤디따라마 그리고 현재 이곳의 마하시라고 한다.

이외에도 참메에 대해서도 알려줬다. 그는 이러한 수행처에 머물렀던 한국의 여러 스님들과 재가자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는 이름이 많다. 어떤 이는 한 수행처에 오래 머물기도 하고 어떤 이는 여러 수행처를 두루두루 거치며 공부한다고 한다. 나는 여러 이유에서 빠옥을 마지막 거쳐야 할 수행처로 계획하고 왔지만 빠옥에 많이 가고 마하시가 네 번째라는 이야기는 의외였다.

마하시 선원은 지난 2011년 12월 14일에 입방해 이듬해 1월 22일에 빠옥총림으로 떠나기까지 약 49일 머문 도량이다. 오후에 도착하여 바로 자띨라(Jatila) 선원장 스님께 방부를 들였다. 삼배를 하고 미얀마식으로 앉아 스님의 지도를 받았다. 스님은 먼저 삼귀의와 오계 그리고 팔재계를 빠알리로 선창하시며 따라 낭송하게 하였다. 그리고 의미를 설명해 주시며 이어서 위빠사나 수행에 대한 지도가 이어졌다.



마하시 선원의 스님들이 탁발을 하고 있다. 시주자들은 도로변에 대기하고 있다가 각자 준비해 온 음식물 등을 스님들께 올린다. 미하시 선원에서는 이 같은 탁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다시 시봉 드는 재가자를 따라 선원 사무실로 안내되어 외국인 숙소인 4호실을 배정받았다. 1인 1실로 화장실에 모기장 침대와 책상과 탁자가 비치되어 있다. 이렇게 독방을 배정받는 것은 의외였다.

선원의 하루 일과표는 수행처 건물의 입구와 로비 등 여러 곳에 게시되어 있다. 일과표에 따라 일상이 반복적으로 시작되고 종료된다. 새벽 3시에 일어나 2시간 동안의 좌선과 경행, 그리고 5시 아침 공양 후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좌선과 경행을 한다. 다시 12시부터 좌선과 경행을 반복하다 밤 9시가 되면 선방의 공식 일정은 모두 종료된다.

외국인 선방에 감독 스님과 관리 스님이 있지만 선방에서 같이 좌선하지는 않는다. 말 그대로 감독과 관리만 한다. 선원의 규정을 어기면 시정할 수 있도록 알려주거나 선방에 지각할 때 찾아와 문을 두드려 주기도 한다. 이러한 생활이 매일 반복된다. 또한 일주일 단위로 정기 수행점검일은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3시 30분에 있다. 정기법회는 일요일 오후 3시 30분에 행해진다. 또한 선원 청소일은 월요일 아침공양 이후로 모두가 선방 곳곳을 쓸고 닦는다.

이곳 외국인 남성 선방은 대략 15명 정도로 유지됐다. 방글라데시 스님, 말레이시아 스님과 싱가포르 스님, 한국 스님 4명, 일본 스님이었다. 가끔 유럽인 스님도 오갔다. 한국의 재가자는 3~4명 정도였다. 여성 선방에는 한국인이 약 6~7명으로 비구니 스님과 재가자가 거의 반반이었다.

새벽 3시가 되면 도량의 곳곳에서 기상 신호의 소리가 들린다. 바로 간단한 세수만 하고 2층의 선방에 오른다. 입실과 동시에 부처님께 삼배만 드리고 바로 정해진 자신의 좌복에 앉는다. 예불은 드리지 않는다. 좌복은 천장에 매달린 모기장 안에 준비되어 있다. 미얀마는 어느 선원이나 모기장이 주어진다. 불살생 지계와 모기에 방해받지 않으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에 잘 알려진 마하시 선원
새벽 3시부터 밤 9시까지 수행
다른 수행처보다 경행 비중 높아
선원 스님들과 탁발 참여 가능
서민들의 시주에 감사 마음 들어

출가와 재가가 함께 앉고 일어서 경행을 한다. 경행처는 선방과 연결되어 바깥에 설치되어 있다. 초기경전에서 부처님은 좌선과 함께 경행을 닦을 것을 자주 말씀하신다. 인도불교 수행전통에서는 평지에 20보에서 45보 이내로 반복하며 도는 방향도 정해져 내려온다. 이는 우리나라 선방과 비교되는 점이 있다.

마하시도 독립된 경행처를 설치하고 있음은 나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이는 현재에도 인도 불교 유적이나 문헌에도 증명된다. 인도 유학 시 미얀마 스님들은 강의 중간 중간에도 일정한 장소를 잡아 놓고 경행을 한다. 마치 동물원의 사자가 우리에서 반복적으로 왔다갔다하는 모습처럼 여겨졌다. 이는 나 또한 습관이 되었다.

이처럼 마하시는 좌선과 경행이 각각 1시간씩 반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어떤 요기(수행자)는 경행하지 않고 좌선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어떤 요기는 경행을 더 하기도 한다. 나의 경우는 경행보다 좌선하는 데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였다.

마하시 선원의 특징은 경행의 시간이 다른 선원에 비해 많이 배정되어 있다. 경행처가 다른 선원과 달리 독립공간으로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다. 경행처에서 또는 도량에서 많은 이들이 아주 천천히 움직인다. 마음속으로 '오른발, 왼발' 의 동작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면서 걷는다. 이러한 경행의 모습과 함께 일거수일투족이 아주 진중하다.

공양을 위해 줄을 서는 데에도 아주 천천히 동작을 알아차리며 공양간을 향해 움직인다. 공양간 문턱을 넘는 데도 식탁에 앉는 데도 숟가락을 사용하는 데도 천천히 알아차리며 움직인다. 좌선 시에는 주로 호흡에 따른 복부의 움직임을 관찰하도록 하는 것이 마하시 공부의 특징이다. 마찬가지로 선방을 나와 침대에 들 때까지 그리고 취침 후 기상부터 바로 동작에서 주의를 놓치지 않고 계속 알아차리는 것을 훈련시킨다.

미얀마 수행처는 어느 곳이나 불교 전통에 따라 오후 불식한다. 저녁을 먹지 않고 대신 오후 5시 즈음에 주스 등을 함께 마실 수 있도록 제공된다. 이 때문에 공복을 적응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고통이 따른다. 거의 한 달가량 오후가 되면 공복에 시달렸다. 계속되는 공복감에 집중은 안 되고 오로지 먹는 것밖에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었다. 침대에 들며 내일 일어나면 먹을 수 있다는 기대로 잠들기도 하였다.

하지만 왜 수행 중에 많이 먹지 못하게 하는지, 그 이유를 차츰 알게 되었다. 배부르면 졸음도 문제일 수 있지만 세밀한 포착 능력이 무디어진다. 배고프면 무척이나 예민해져 우리의 심신 현상을 아주 세밀하게 포착할 수 있게 된다. 먹는 것으로 잠에 취하거나 떨어지지도 않는다. 좌선이 잘 되면 공복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신진대사를 최소화한 가운데 오랫동안 먹지 않고 잘 수 있는 것과 같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사유 활동을 하거나 많이 움직이면 공복감에 무척이나 힘들고 괴롭다. 특히 틈틈이 메모하는 습관이 나의 공복감을 더욱 가중시켰다. 부처님이 왜 수행 중에 오후 불식하도록 하였는지 이제야 몸으로 알게 되었다. 적게 먹고 적게 자면 심신의 현상에 대한 맑고 세밀한 안목이 생기고 성적인 본능으로부터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가 지속된다.

선방에 머무르며 매우 인상적인 불교전통 가운데 하나는 공양과 탁발문화였다. 직접 참여하여 체험해 볼 수 있었다는 것이 큰 공부였다. 공양청에서 공양은 말 그대로 대중공양이었다. 선원장 스님은 물론 선원의 모든 스님들과 재가자들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음식을 들었다. 국내에서는 청화 스님 주석 시의 태안사가 생각났다. 음식은 우리나라와 달리 생선과 육류도 올라왔다. 이러한 음식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게 된 것은 탁발을 참관해 본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아침 6시 이전에 공양을 마치면 스님들은 곧바로 가사를 수하고 도량의 정중앙에 일렬로 선다. 발우를 가슴에 안은 채 맨발이다. 정면에 고정된 시선과 침묵으로 단정하게 서면 감독 스님이 한 스님 한 스님의 위의를 점검한다. 탁발 행렬은 합장정례로 독경 후 일주문을 지나 민가로 내려간다. 어찌나 장중한지 처음에는 탁발 행렬의 뒤쪽에서 조심스럽게 따라다니다 언제부터인가는 중간과 앞을 다니면서 탁발의 전모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시주자들은 도로변에 대기하고 있다가 각자 준비해 온 음식물 등을 스님들께 차례차례 공손하게 올린다. 시주자 또한 신발을 벗고 주걱으로 쌀밥을 한 스님 한 스님께 정성스럽게 배분한다. 어떤 이는 보시 후 스님들이 떠날 때까지 합장한 채로 있거나 또는 땅바닥에서 삼배를 올리기도 한다.

스님들의 발우에는 주로 쌀밥을 올리지만 반찬과 찌개류는 정인(淨人)이 뒤따르며 수거한다. 이렇게 탁발로 수거된 음식물은 점심공양으로 선원의 수행자나 정인들에게 평등하게 재분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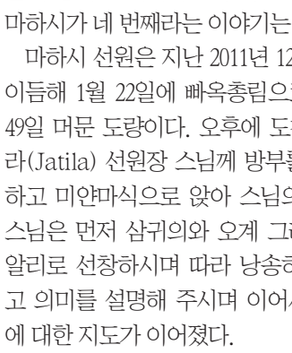
그리고 보시자들 또한 이를 안다. 왜냐하면, 탁발하는 중간 중간에 사찰의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가 밥과 과일 또는 다른 보시물을 큰 용기로 모아 가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양물은 대부분 그 날 소비할 수 있는 조리된 음식과 간단한 생필품이다. 보시물을 축적할 수 없도록 하는 계율 때문이다. 또한 스님들의 편의를 위해 보시물을 한꺼번에 선원으로 배달하지는 않는다. 언제나 모든 스님에게 똑같이 차례차례 배분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매일 그리고 여러 스님에 보시하는 것으로 공덕을 두루 짓는다. 그래서 스님들도 쌀밥 한 덩이씩 여러 보시자에게 받지 한 사람으로부터 한꺼번에 모두 받지 않는다. 또한 돈을 바로 올리는 경우도 드물게 볼 수 있는데 곧바로 따르는 정인이 수거해 버린다. 원래 계율 상 스님들이 직접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돈은 따로 사찰운영에 사용된다.

마하시 선원에서 선방과 함께 대중공양과 탁발이라는 살아있는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 무척 기뻤다. 무엇보다도 미얀마 서민의 피와 땀이 나의 일용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그러한 일용식이 스님의 탁발을 통해 나에게 이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마음은 한층 무거워졌다.

성공하고 싶다면, 자신만의 때(Timing)을 찾아라!
동국대 GFCA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제8기

• 성공과 실패의 시기, 자신만의 때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과정!!
• 과학화된 역학, 현대사주명리학 마스터, 검증 가능한 작명법, 성명학 마스터
• 동양미래예측학, 논리로 푸는 사주학 '석하명리' 마스터
• 왕초보도 1년이면 OK, 왕초보부터 고수까지, 성공을 위한 필살기!!
• 석하명리는 미신적 요소의 역학이나 점술이 아니고, 논리적인 이론을 통해 성공 시기를 예측 할 수 있는 동양미래예측학
• 암기가 아닌 원리 위주 공부, 전 과정 마스터까지 추가비용 없이 무료 반복 수강
• 명리진로적성 상담자 자격증 취득(소정의 절차)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통해 선천적성 및 성공시기 분석 용이
• 개강 : 3. 6(水) 부터 매주 수 18:30 ~21:00 (1년 과정)



주임교수 석하(奭廈) 소재학 박사
• 동양미래학자, 미래예측학 박사 1호
• 한국동양미래예측학회(KOFS) 회장
• 미래융합인재아카데미(GFCA) 회장
• 동국대 GFCA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및 풍수지리(+관상) 최고위과정 주임교수
• 성공과 실패 시기 규칙적으로 예측 가능한 동양미래예측학 '석하명리' 창시
• 재)하원정미래학회, 한국성명작명학회(KNS) 회장
• 국회미래정책연구회 및 국제미래학회 동양학 위원장
• 국제뇌교육대학원 명리미래예측전공 주임교수

유튜브 채널
〈동양미래학자 소재학 교수의 때를 찾는 지혜〉
☎ 02-585-0079

자연과학 풍수지리, 풍수도 논리로 푼다.
동국대 GFCA 풍수지리(+관상) 최고위과정 제5기

• 대한민국 풍수지리학계 큰 스승, 최고의 교수진 직강
주임교수 : 소재학 교수, 지도교수 : 최명우 교수, 정경연 교수, 최병용 교수, 세준 교수, 지종학 교수, 노승우 교수
• 평생 허비하며 수만금 들여도 답 안나오는 풍수지리, 이론 따로 실제 따로 아닌, 제대로 된 원리 위주 공부
• 개강 : 3. 11(月)부터 매주 월 18:30 ~21:00 (1년 과정)



서울매장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11길 12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 기 도 경기도 하남시 산곡북로 49-50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

윤회, 부처님이 남긴 행복 처방전



일묵 스님이 들려주는 초기불교 윤회이야기
일묵 지음/불광 펴냄/1만 3800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초기불교 가르침으로 알아본 윤회 개념과 원리

지금 삶의 행복과 다가올 다음 삶의 행복을 위한 부처님의 바른 처방전인 윤회(輪廻)를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윤회란 무엇이고, 그 원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윤회하는 삼계란 어떤 세계인가, 윤회하는 삶속에서 업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생과 내생의 행복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등등.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한다. 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 그 이유는 행복한 삶으로부터 멀어지는 불선(不善)한 행위를 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 스스로 짓는 매순간의 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지 못하니 많은 이들은 이생의 끝을 두려워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과 번뇌의 원인 중 하나를 무명(無明)이라 이야기한다. 마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매듯 진리의 빛을 얻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현생과 내생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이생의 끝을 마무리해야 하는가? 그것은 윤회(輪廻)의 가르침 안에 모두 담겨져 있다.

이 책의 저자인 일묵 스님<사진>은 1996년 서울대 수학과 박사 과정 중 출가해 성철 큰스님의 제자인 원택 스님을 스승으로 모셨다. 이후 불교 명상에 관심이 있는 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국내외 여러 수행처를 다니며 지속적인 수행을 했다. 그리고 현재 초기불교 수행법을 전하는 수행공동체인 제따와나 선원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선원장이기도 하다.

스님의 저서인 이 책은 초기불교 가르침을 중심으로 윤회의 개념과 원리에 대해 설명한다. 지난 2010년 출간된 스님의 첫 책이자 많은 이들에게 사랑 받은 〈윤회와 행복한 죽음〉의 개정판인 이 책은 새로운 옷과 새로운 구성으로 그동안 허황된 내세관으로만 치부된 윤회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독자들로 하여금 선명하고 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한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윤회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윤회는 다음 몇 가지로 인식된다. 먼저 허황된 이야기라는 측면이다. 스님은 이 책의 머리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제따와나 선원을 개원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새삼 알게 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윤회를 믿지 않는 불자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윤회가 우리의 삶과 수행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것을 알고 바른 실천을 행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얻고, 궁극적으로 열반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 전반 곳곳에 들어 있는 일묵 스님의 메시지이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윤회는 삶의 끝자락서만 작동하는 원리가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지금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작동한다는 것이다. 윤회의 원리로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즉 '연기(緣起)'를 설하신 부처님 가르침을 다시금 되새겨봐야 한다.

둘째, 짐짓 죽음과 연관되어 무겁거나 어두운 개념으로 인식된다. 언젠가는 누구에게나 닥칠 죽음이다. 하지만 '나'에 대한 집착은 끝내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일으킨다. 또한 한 번도 가 본 적 없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 **"윤회, 지금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작동"**
> **초기불교 가르침 중심으로 '윤회' 설명해**
> **윤회는 삶과 수행 이끄는 구심점 역할**

이 책을 한 줄 한 줄 읽다 보면 그 공포나 두려움은 결국 나로부터 시작되고, 나로부터 극복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 삶의 태도를 바꾸고 더 나은 길로 향하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의 삶과 다가올 다음의 삶의 행복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생과 내생의 행복 위한 윤회 강의

우선 알아야 한다. 윤회란 무엇인지, 윤회가 계속 반복된다는 삼계(三界)란 세계는 어떤 공간인지, 윤회와 부처님의 핵심적 가르침들, 이를테면 업과 십이연기 등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하지만 어렵고 딱딱하기만 할 것만 같다.

이 책의 특징 중 하나는 간명하고 깔끔한 서술로 하여금 이전의 그 어떤 책보다 쉽고 명확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동안 윤회를 다룬 많은 책들은 학제적 성격을 갖거나 일반 독자들이 접하기에 다소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 책은 불교 교리에 해박하지 않은 독자들도 알기 쉽게 서술되어 있다. 윤회와 윤회를 둘러싼 개념에 대해 친절히 설명하고 있는 스님의 강의법도 그러하거니와 초기불교 경전과 주석서 등에서 길어 올린 인연담, 혹은 스님의 개인적인 인연담을 빌려 전달함으로써 초심자인 독자들도 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도운다.

다음으로 실천해야 한다. 이 책은 단순히 개념을 설명함에 머무르지 않고 왜 수행을 해야 하는지, 윤회의 순간순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준다. 예를 들어 불자로서 즐거움이 가득한 선처(善處)에 태어나기 위해 무엇을 수행해야 하는지, 생의 마지막 순간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임종을 앞둔 가족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충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다.

오직 당신을 위한 일묵 스님의 강의 계획안

이 책의 각 장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우리가 윤회하는 세상인 삼계, 즉 욕계 · 색계 · 무색계에 대해 풀었다. 우리는 윤회할 때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 삼계의 서른한 가지 세상 중 한 곳에 태어난다. 이 서른한 가지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알게 되면, 우리는 다음 생에 악처가 아닌 선처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항상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제 2장은 업과 윤회에 대해 다루었다. 업에 의해 윤회가 일어난다는 것은 알지만 업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업의 역할, 과보를 생산하는 장소, 업이 결과를 맺는 순서와 시기 등에 관한 폭넓고 정확한 이해를 통해 업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버릴 수 있다.

3장서는 죽음 직전의 인식과정에 나타난 업에 의해 내생의 첫 의식, 즉 재생연결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가 일생에 지은 업 중 가장 뚜렷한 업이 죽음 직전의 인식과정에서 업이나 업의 표상, 태어날 곳의 표상 중 한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그 업에 의해 내생에 태어날 세상이 결정되고, 그곳에서 최초로 재생연결식이 일어난다. 이 과정을 잘 이해하면 깨끗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4장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연기에 대해 풀어썼다. 3장의 윤회의 원리를 십이연기의 가르침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부분이다. 연기를 이해하면 그릇된 견해를 버리고 바른 견해를 갖추어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5장에서는 무아(無我)인데 윤회하는 이유가 존재는 연기, 즉 조건을 의지해서 태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에 관해 이야기했다. 연기를 통해 존재의 발생과 윤회의 원인을 이해하면 존재들은 서로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자비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가르침인 연기와 사성제(四聖諦) 등은 윤회를 기반으로 설해져 있다. 이 같은 점을 통해 윤회를 이해함이 불교를 이해함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다. 더구나 일묵 스님의 윤회 강의를 한 장 한 장 읽다 보면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고, 그 잘못된 생각이 우리 안에 얼마나 뿌리 깊이 박혀 있는지 깨닫게 된다. 또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경각심도 생긴다.

우리는 일묵 스님의 이 책을 통해 윤회를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부처님께서 남기신 행복을 위한 또 하나의 처방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결국 우리에게 남은 건 행복뿐일 것이다.

"기도하는 삶은 복되고 행복하다"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현 지음/조계종출판사 펴냄/1만 7천원



한 해 동안 사찰에서는 다양한 기도가 이루어진다. 새해가 되면 정초기도를 하고 관음기도, 지장기도, 화엄성중기도 등 애초의 목적이 구복에 있든 천도에 있든,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기도든 상관없이 수많은 형태의 기도가 행해진다. 그럼에도 불교에서 기도란 무엇인지, 기도의 요건과 마음가짐, 기도를 하는 방법과 요령을 체계적으로 설명해주는 이렇다 할 안내서를 보기 드물다.

종교의 본질은 기도에 있다. 하지만 기도하는 방식은 종교마다 다르다. 삶이 괴로울 때, 변화가 필요할 때,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을 때면 막연히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자녀의 입시나 취업, 승진이나 매매가 걸린 일을 만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 마주쳤을 때 어떤 기도가 해법이 될까. 누구는 관음기도가 좋다 하고 누구는 지장기도를 하라고 하는 등 스님들마다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불교가 이른바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복잡성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이며, 따라서 가이드북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불교에서 기도란 무엇일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 불교계에서 '전방위 지식인'으로 통하는 자현 스님<사진>은 특히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재미있고 유익한 강연으로도 인기가 높다. 저자는 기도의 원리부터 마음가짐, 절 기도를 하는 방법, 가피의 종류와 체험, 사경 기도를 하는 법, 석가모니 · 아미타불 · 관세음보살 등 불보살에 대한 기도, 신중기도와 다라니기도 등 우리가 평소 막연히 알고만 있던 기도 방법과 성취에 관하여 각종 경전의 근거와 유래와 함께 알기 쉽고 분명하게 설명해준다. 실용적인 기도 방법과 요령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탄탄한 배경 설명이 뒷받침되어 책의 깊이를 더한다. 또한 염불 및 관불과 칭명염불의 차이, 기도 장소는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기도할 때 향은 꼭 피워야 하는지, 절 기도는 어떤 사람에게 적합한지, 참회 기도와 사경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진언의 의미를 꼭 알아야 하는지 등 시시콜콜한 궁금증까지 친절히 풀어준다. 이른바 불교 기도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총망라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교는 수행의 종교이다. 기도를 통해 일행삼매에 들어가고 심리적 · 정신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도는 참선과는 또 다른 형태의 수행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기도는 내면을 정리하는 수행과는 다르다. 그보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부처님께 자신의 일을 부탁하고 이루어지게 해주십사 하는 간절한 요청이다. 그러하기에 기도의 목적이 불투명하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언제까지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정확하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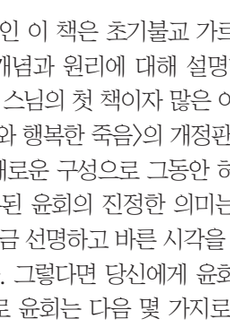
기도는 마땅히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 마음이 흐트러지기 쉬운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를 통해 수행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올바른 기도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저자는 절하는 법을 포함하여 분향, 발원, 정근, 회향 등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각종 기도법의 순서와 요령은 물론, 기도할 때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행복과 성취를 이룰 수 있는지 기도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하거나 혹은 몰라도 되는 이모저모를 꼼꼼하고 친절하게 일러준다. 무엇보다 누구나 집이나 사찰에서 책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따라 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꼼꼼히 설명한 것이 이 책의 미덕이다. 난행도와 이행도를 배낭여행과 패키지여행에 비유한다든지 집에서 하는 기도와 달리 사찰 기도의 장점을 독서실에서 공부가 더 잘되는 것에 비유하는 등 자현스님의 책에서만 볼 수 있는, 머리에 쏙 들어오는 쉽고 재미난 예들이 즐비한 것은 이 책이 가진 또 하나의 매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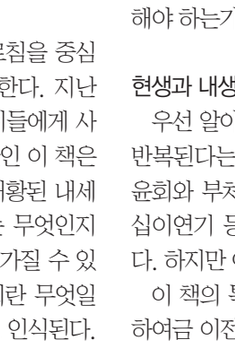
> **기도 원리부터 신중, 다라니까지**
> **한 권에 담은 불교기도 총 백과사전**
> **불교 기도 거의 모든 것 총망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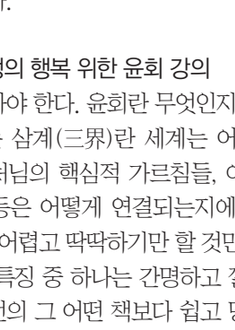
부록에는 우리나라의 대표 기도처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남북보궁과 오대보궁의 역사와 유래, 한국불교에서 중요한 사리들은 어디에 있는지, 3대 성산과 3대 관음도량, 삼보사찰, 전불시대 사찰과 최고 명당 사찰 등 특히 기도에 효험이 있는 사찰에 얽힌 이야기들이 촘촘히 소개되어 재미를 더한다. 또한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1년 기도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누구나 실생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주일 기자

2018년 도서출판 운주사 우수도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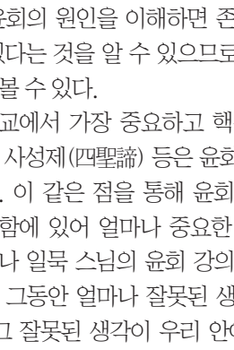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2018 세종도서 학술부문



2018 세종도서 교양부문

소유, 행복의 터전인가 굴레인가
권석만 외 저/신국판/416쪽/값 22,000원
소유가 인간 삶에서 지니는 의미와 역할, 소유의 본질과 전개 등에 대해 초기불교, 선불교, 서양철학, 경제학, 심리학의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조명!

송시의 선학적 이해
박영환 저/신국판/536쪽/값 27,000원
중국문학의 최고봉으로 평가되는 송대의 시가詩歌를, 선종의 관점에서 회통과 융합이란 주제로 치밀하게 연구한 역작!

다문화 사회와 철학
이정은 · 이병욱 · 정창호 저/264쪽/값 13,000원
200만 외국인 시대를 맞이한 한국 사회가 '함께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철학적으로 성찰하였다!

참여와 명상, 그 하나됨을 위한 여정
이정배 외 저/신국판/256쪽/값 13,000원
사회참여와 개인의 내적 성장(명상)은 함께하는 것이 가능한가? 대표적 종교의 전문가들이 이 둘의 상관관계와 공존 가능성을 성찰한 책.

삼계교 연구
수당시대에 선종, 정토종 등 불교종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400여 년 간 영향을 끼친 삼계교 대한 연구 성과들을 총 정리한 역작!
서본조진 저/박부자 역/716쪽/값 35,000원





붓다와 프로이트
서양의 심리학과 붓다의 가르침은 양립할 수 있는가?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고, 뉴욕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저자가 양자의 상호융합의 길을 모색한다.
마크 엡스타인 저/윤희조 · 윤현주 역/
336쪽/값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 자유문고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서예와 조각의 만다라 '이모스컬퓨쳐'

허회태 '심장의 울림' 展
예술의 전당 2월 19~27일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회화적 서예의 세계를 열어가고 있는 허회태 작가의 '심장의 울림' 전이 2월 19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 제7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모그래피(Emography)라는 새로운 장르의 개척으로 서예의 확장을 알렸던 허 작자가 이번에는 '이모스컬퓨쳐(Emosculpture)' 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서예의 확장을 또 한 번 보여준다.

이모그래피란 감정을 뜻하는 '이모션(Emotion)' 과 서예라는 의미의 '캘리그래피(Calligraphy)' 를 합성한 단어로, 서예와 그림의 결합이었다면, 이모스컬퓨쳐란 '이모션(Emotion)' 과 조각품을 의미하는 '스컬퓨쳐(Sculpture)' 를 합성한 단어로, 서예와 조각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이모그래피 전시에서 인간사회의 희로애락을 한 번의 붓질로 찰나의 세계를 가장 단순하게 축약하여 표현했다면, 이모스컬퓨쳐를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허 작가의 철학을 직접 붓으로 쓴 메시지가 담긴 입체조각을 선보이는 전시로 우주와 생명의 원초적 현상에서 비롯된 세계를 그리고 있다.

허 작가의 이모스컬퓨쳐는 이미 매월 20만 명이 방문하는 영국 Art Jobs Gallery에 소개되어 호평을 받았으며, 미국 CNN 'Great Big Story' 채널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장인으로 소개되는 등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대 조형회화와 조각설치작품은 2차원의 평면을 벗어나 3D 작품으로써 관객의 곁으로 다가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우리 삶의 이야기가 소재가 되는 작품들은 그 변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관람객에게 새로운 해석을 부여하는 작품들은 심오한 매력으로 대중의 호평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생명의 근원에 접근하는 철학적 경지를 보여주는 소통의 확장을 이루고자 한다."

허 작가가 근래 집중하고 있는 작품의 내용은 '위대한 생명의 탄생' 에서 시작하여 '생명의 꽃' , '심장의 울림' , '헤아림의 잔치' 로 확장해가는 세계관을 담고 있다. 형식은 정비된 콘셉트와 양식으로 진화하여 유기적 관계가 잘 나타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번 '심장의 울림' 은 본래 실체가 없어서 형상이나 색깔이 없지만 끝없이 오묘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조정하고 움직이는 '마음' 을 표현한 것이다.



허회태 作, 생명의 꽃 · 운석 및 혼합재료 117X91cm.

"마음이 세상의 모든 세계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만든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이며, 유심소현(唯心所現)이다. 그러나 한자를 처음 만든 사람들은 마음의 작용이 심장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심장의 모양을 따서 '심(心)' 자를 만들었다. 우리 마음의 작용은 심장의 울림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마음은 끊임없이 작용하며, 마음 안에서 밖의 세계로 확산되어 간다. 심장은 정밀함을 싫어하지도 않으면서 심장의 언어로 말하는 그것이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나 '심장의 울림' 으로 작품에 투영되고 이입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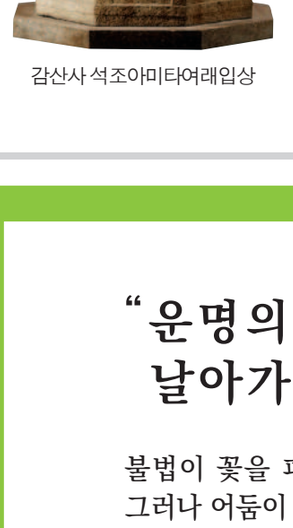
허 작가의 이모스컬퓨쳐는 '心' 에서 출발하여 확산된다. 균제와 균형을 잃지 않는다. 동서남북 4방위로써 인류의 질서를 구현한다. 따라서 그의 작품은 생명의 탄생에서 존재의 근원으로 파고든 세상의 소용돌이를 표현한다. 한 가지 구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조합으로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어 끊임없는 창조의 과정을 보여준다. 심일경성(心一境性)의 경지에서 시각적으로 마음과 우주가 하나가 되어 끝없이 팽창 · 확산되어 소우주의 무궁함으로 표현된다. 선정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부처의 세계를 그림으로 표현한 만다라의 세계와 우주의 삼라만상과 인간의 세계가 서로 끝없이 이어지는 인드라망의 그물코처럼 무한하게 펼쳐진다.

허 작가의 예술은 끊임없는 창조와 도전이다. 허 작가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내용은 각자의 고유 영역의 벽을 허무는 융합적 사고를 통해 새로운 창조의 기기(器機)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미래예술의 방향도 동서양의 예술세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창조적으로 융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02)580-1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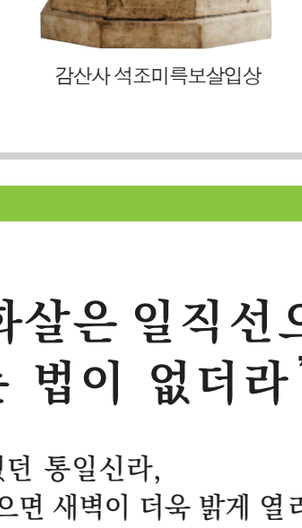
신라인의 효심으로 빚은 불보살상

국립중앙박물관 감산사 아미타여래상 · 미륵보살상
조성 1300주년 기념 연계강연회, 전시설명회 개최

강연회 / 2월 20일 오후 2~4시 대강당
설명회 / 2월 27일 오후 6시 불교조각실



감산사 석조아미타여래입상



감산사 석조미륵보살입상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상설전시관 3층 불교조각실에 전시중인 감산사 석조아미타여래입상(국보 제82호)과 석조미륵보살입상(국보 제81호)의 조성 1300주년을 맞아 학술적 가치와 의미 등을 조명하기 위해 연계강연회와 전시설명회를 개최한다.

연계 강연회는 2월 2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강사는 허형욱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학예연구관이다.

전시설명회(큐레이터와의 대화)는 2월 27일 오후 6시부터 6시 30분까지 국립중앙박물관 3층 불교조각실에서 열린다. 강사는 최선주 국립중앙박물관 연구기획부장이다.

감산사 석조아미타여래입상과 석조미륵보살입상은 조형적으로 중국 당나라와 일본 덴표시대의 불교조각과 공통점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넓적한 얼굴형이나 약간 경직된 몸의 표현은 인체의 관능적 아름다움을 강조한 중국이나 이를 답습한 일본 불상과는 다른 점이다. 따라서 감산사의 불상들은 8세기 전반 동아시아 불교조각의 국제적 양식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신라인들이 추구하는 미술세계와 탁월한 표현 감각이 발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러 면에서 우수한 작품으로 손꼽히는 여래상과 보살상은 광배 뒷면에 조성에 관한 여러 가지 사료를 적고 있는데, 기록에 따르면 719년(통일신라, 성덕왕 18년) 2월 15일, 김지성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여래상과 보살상을 조성했다. 김지성은 신라 17관등 중 여섯 번째인 아찬보다 높은 중아찬까지 올랐고, 벼슬은 오늘날 행정부의 차관에 해당하는 집사시랑을 지냈다. 그는 705년(성덕왕 4)에 당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그곳 황실로부터 상사봉어라는 관직을 받는 등 외교적으로도 비중 있는 역할을 수행했다. 김지성은 평소에 산수를 좋아하고 중국의 노장사상을 흠모하여 67세에 은퇴한 뒤에는 전원으로 돌아가 노자의 〈도덕경〉을 읽었고, 인도 스님 무착이 지은 불교철학서 〈유가사지론〉을 보며 불법(佛法)을 깊이 연구했을 만큼, 불교의 교리에도 상당한 식견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그는 감산사 여래상과 보살상을 조성한 이듬해(720, 성덕왕 19) 4월 22일에 세상을 떠났다. 김지성은 말년인 719년 가족친지와 주변 지인들이 진리를 깨닫고 부처님의 경지에 오를 것을 기원하며 자신 소유의 감산장전(甘山莊田)과 산을 시주하여 서라벌 동남쪽(오늘날의 경주시 외동읍)에 감산사를 열었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여래상과 보살상을 조성했다. 여래상과 보살상을 모신 날짜는 2월 15일인데 이는 석가모니부처님의 열반일이다.

훗날 고려시대 일연 스님(1206~1289)은 〈삼국유사〉의 남월산조에서 이 여래상과 보살상을 소개한다. 이에 따르면 미륵존상이 감산사 금당의 주존이었다고 한다. 마치 현장을 둘러보고 남긴 듯한 일연 스님의 기록은 오늘날 이 여래상과 보살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신라 불교미술의 특징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02)2077-9000. 박재완 기자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한국불교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

인물·불교사·생명윤리… 분야·주제 '다채'

동국대 2019년 상반기 불교 박사학위는 (上)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총장 보광)에서 올해 상반기 불교 관련 박사가 14명이 배출됐다. 석사 학위자는 48명이 나왔다. 본지는 2회에 걸쳐 박사학위 논문을 정리해 기재한다.

'대승보살도' 만해의 사상 기반

철우 스님(대학원 선학과)의 '만해 한용운의 대승보살사상 연구'는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만해 스님의 일련의 활동들이 대승보살사상에 사상적 기저를 두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철우 스님은 만해는 대승보살사상은 사회실천 운동뿐 아니라 수행과 사상철학에서도 고찰된다고 봤다. 스님은 만해의 선수행관은 △선기에 따른 정진과 견성관 △임제의 할과 덕산의 방 △방편으로서의 화두선으로 요약했다. 또한 만해 선수행관의 특징으로 △유심론에 입각한 정신수양으로서의 선 △일체중생 실유불성의 견성관 △선교진흥 요문으로서의 선교회통사상으로 정리했다.

시대 변화를 정확하게 인지했던 만해는 △사사무애에 바탕한 진리관 △도생본지로서의 세계 평화론 △인본주의에 바탕한 범종교론의 구세의지를 통해 중생들을 구제하려 노력했다.

이같은 만해 스님의 의지는 〈불교대전〉, 〈조선불교유신론〉 등의 저서와 독립운동, 대중불교운동을 통해 나타난다.

철우 스님은 "만해 스님의 독립운동은 대승보살관에 입각한 인류평화운동"이라고 정의하며 "만해의 독립운동은 고통 받는 세상 속에 뛰어들어 온몸을 희생하며 이룬 독립운동과, 글로써 대중들에게 독립심을 일깨우며 일제에 대항한 운동이란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됐다"고 설명했다.

포살은 어떻게 형성됐나

도문 스님(대학원 불교학과)의 '초기불교 교단의 포살 연구'는 고대 인도에서 시작된 포살이 어떻게 실행됐고 궁극적인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고찰한 논문이다.

스님에 따르면 포살은 고대 인도에서 브라만교의 종교 행사인 '우빠와사타(uposatha)'에서 유래됐으며 붓다 당시 자연스럽게 불교교단에도 도입됐다. 불교교단의 포살은 출가포살과 재가포살로 나눠 발전됐다. 출가포살은 '바라제목차의 암송', 재가포살은 '팔재계의 준수'이라는 독특하고 차별된 행사로 변화시켰다.

도문 스님은 계행은 열반을 지향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선법(善法)임을 분명히 했다. 바라제목차로써 계행을 구족하게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며, 화합을 실현하는 승가 행사가 바로 포살이라는 것이다.

스님은 "〈디가니까야〉의 '마하빠리닙바나 숫따'에서는 비구가 향상하고 쇠퇴하지 않는 법들로 칠불쇠퇴법이 설해지며 포살이 이를 실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포살은 청정과 화합을 실현하게 함으로써 비구가 법과 율에서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라고 강조했다.

불살생 · 자비는 생태위기 대안

지현 스님(대학원 선학과)의 '선의 생명관과 실천윤리 연구'는 불살생과 자비는 생태위기의 환경을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경전과 선어록, 불교설화를 중심으로 고찰했다.

스님은 "모든 생명체와 세계의 존재 원리인 연기 법칙을 바탕으로 생명의 문제를 인간 이외의 존재로까지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모든 생명의 존귀함과 평등성에 대한 이해와 생명을 해치지 않는 불살생(不殺生)이 첫 번째의 윤리덕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전과 선어록에 나타난 부처님의 말씀과 선사들의 말씀은 자연과 더불어 공존한 흔적과 무정물에까지 생명력을 부여하는 폭넓은 인식을 담고 있어 전통적인 생태윤리 의식을 고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불교윤리의 최고 덕목은 '생명 존중'이며, 실천원리는 '자리이타행'임을 지현 스님은 분명히 했다. 또한 현 시대에 맞는 실천적 방안 모색도 주문했다.

스님은 "불교생명윤리는 전통적인 계와 율을 무조건 따를 것을 강요하기보다는 21세기적 윤리 환경에 부응하는 전략적 사고와 적절한 경전 해석과 적용을 통해 새롭게 정리해야 한다"면서 "과학 · 생명공학 · 윤리학과의 상호 회통과 융섭을 통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국유사 효선편의 불교적 의미

〈삼국유사〉는 고려후기 고승 일연 스님이 찬술한 역사서다. 국존(國尊)의 위치에 있던 일연 스님은 삼국의 정사에서 '빠진 이야기(有史)'를 저서를 통해 담아냈다. 〈삼국유사〉는 5권 9편목 138조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각 주제에 맞는 사상과 설화들이 수록됐다. **명계환(대학원 불교학과)의 '인각 일연의 효선 사상 연구'**는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효선' 편을 불교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앞선 연구들은 일연의 개인적 효행이나 고려시대의 불교적 효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하지만 명계환은 대승보살도의 실천과 완성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실천 덕목인 '회향(廻向)'이 효선편에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살이 둘이 아닌 이치(不二)를 펼쳐 깨달음에 이르는 〈화엄경〉의 '진여상 회향(眞如相廻向)'에 대해 주목했다.

명계환은 "효선편에서는 유교의 효와 불교의 효(善)를 통해 양자의 공존과 화합을 모색하며 하나로 나아가려고 하는 효행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다"면서 "특히 효선 편에서는 출가문제로 야기되었던 유교의 비난에 대한 불교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신라의 '효선쌍미(孝善雙美: 유교의 효와 불교의 선이 둘 다 아름답다)'의 효행 사례들을 담아 유교와 불교, 세간과 출세간의 공존과 조화를 모색했다"고 강조했다.

미얀마 불교의 모든 것을 살피다

정기선(대학원 불교학과)의 '미얀마의 불교 문화양상 연구'는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미얀마불교의 문화와 수행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핀 연구이다.

그에 따르면 11세기 중엽 버마의 평원을 차지했던 버간왕조는 하부 버마의 따톤으로부터 상좌부불교를 도입하여 미얀마 불교의 기틀을 세웠다. 군주들이 세운 "불탑과 사원들은 상상과 관념 속에서 존재하던 수미산을 지상에 구현된 실체적인 장소"로서 만들었으며, 현재까지 미얀마인들의 신심과 수행의 열망이 가득한 불국토를 상징하는 공간이 됐다.

정기선은 미얀마불교가 한국불교와 대비되는 특징으로 '일불의 불타관'을 들었다. 또한 두 번의 걸친 경전결집의 역사는 출가를 장려하는 문화를 만들었고, '공덕 추구의 불교'의 확립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정기선은 '공덕 추구의 불교'를 자리이타의 정신이 바탕에 형성된 행위로 봤다. 그는 "내가 지은 이 공덕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존재들과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사무량심(四無量心)의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불교수행의 한 방법"이라며 "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상좌부불교는 소승불교'라는 일반적인 관념을 신행적인 차원에서 간단히 해결한다"고 강조했다.

만해 스님 '심우장' 사적 지정된다

문화재청, 12일 지정예고
이봉창 의사 유물 문화재로


사적으로 지정 예고된 만해 스님의 주석처 서울 성북구 심우장 전경.

만해 스님의 마지막 주석처였던 '심우장'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항일독립 문화유산인 '만해 한용운 심우장'과 '이봉창 의사 선서문 및 유물'을 각각 사적 지정과 문화재 등록을 예고한다"고 2월 12일 밝혔다. 또한 '인제성당' 등 2건은 문화재로 등록했다.

이번에 사적으로 지정 예고하는 서울 성북구의 '만해 한용운 심우장'은 독립운동가인 만해 한용운(1879~1944) 스님이 1933년에 건립해 마지막까지 주석한 곳이다.

'심우도(尋牛圖)'에서 유래한 '심우'는 선불교에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과정을 나타내는 말이다. 심우장은 집의 좌향(坐向)을 총독부의 방향을 피하여 동북방향으로 잡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 한용운 선생의 독립의지를 엿볼 수 있다.

문화재청은 "독립운동 활동과 애국지사들과의 교류 등에 대한 흔적이 남아 있다는 측면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면서 "전반적으로 원형이 잘 보존돼 있으며, 사적으로 지정되면 2017년 10월 등록문화재 제519호로 등록된 '구리 한용운 묘소'와 함께 항일독립운동 정신을 기릴 수 있는 뜻 깊은 장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등록문화재로 예고된 이봉창 의사(1900~1932)와 관련된 유물은 '이봉창 의사 선서문', 백범 김구에게 보낸 '이봉창 의사 친필 편지와 봉투', '이봉창 의사 의거자금 송금증서' 등 3건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만해 한용운 심우장'과 '이봉창 의사 선서문 및 유물'은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지정 · 등록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불교학술원 한문아카데미 연수생 모집

오는 2월 22일까지 기본 · 심화과정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승석) 한문아카데미에서 2019년도 1학기 '심화과정'과 '기본과정'의 연수생을 모집한다.

4학기 동안 30학점을 이수하는 심화과정은 2019년 1학기부터 1과목 증설돼 총 5과목이 운영된다. 강의는 △불조역대통재2(월, 박해당) △능엄경(화, 선암 스님) △불가문집 번역연습(수, 성태용) △한시특강(목, 이상하) △서장(금, 문광스님)이 진행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한문아카데미는 기본과정 수강생도 모집한다. 학기당 16주 강의가 진행되는 기본과정은 4학기 동안 30학점을 이수하여 수료하는 '선발연수생'과 한 과목씩 선택해 수강하는 '일반연수생'으로 나뉜다. 강의는 △보조법어 수심결(월, 선암 스님) △금강경 삼가(화, 금천 스님) △범어-한문 경전강독3(수, 현진 스님) △기초한문법(목, 박영록) △임제록(금, 박영록) 등이 이뤄진다. 강의 시간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모두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이다.

아울러 지난해 1학기부터 시작한 '산스크리트어 문법 스터디'는 올해에도 계속 이어진다. 불교 고전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번 스터디는 현진 스님의 법보시로 무료로 운영되며, 3월 6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된다.

원서 접수는 오는 2월 22일까지며,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의 선발연수생에 대한 면접 및 필기 전형은 2월 23일에 실시된다. 기본과정 선발연수생은 불교 및 한문불전 공부에 관심이 있는 4년제 대학 재학 이상 이면 지원 가능하며 정원은 30명이다. 심화과정 선발연수생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거나 그에 준하는 경력 및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필기고사 전형을 거쳐야 하며 정원은 10여 명이다.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의 선발연수생 수업료는 학기당 60만원이고, 기본과정 일반연수생 수업료는 과목당 20만원이다.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의 수강료는 기본과정은 선발연수생 42만원, 일반연수생 14만원, 심화과정 선발연수생 30만원이다. 조계종 스님의 경우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모두 선발연수생은 수강료가 면제된다.

신성민 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1등 숯침대

숯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취급 품목
◆ 숯침대
◆ 숯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

박재완의 PhotoEssay



월동

마침내
나무는 계절을 깨닫고
그리하여 숲은 게송으로 그득한데
부처의 수기는 끝나지 않는가
지울 수 없는 글자는
석탑 위에 다시 쌓인다
그렇게 수없이 부처를 만나온 것을
돌고 도는 석탑의 그림자가 만다라였음을
탑전에 찬바람이 스친다



삼중 스님의 남기고 싶은 인연
㉗ 무기수 김희로 (상)

'한인 차별 철폐' 외친 숲의 전쟁

1968년 2월 일본 시즈오카현, 한 남자가 야쿠자 두목과 부하 1명을 총으로 쐈다. 그 남자는 재일교포 김희로 씨였다. 김 씨는 사람을 죽인 뒤 근방의 여관에서 투숙객들을 인질로 잡은 혐의로 인해 무기수가 됐다.

김 씨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갖은 멸시와 모욕을 겪으며 다사다난한 삶을 살았다. 남들보다 깊은 반일감정을 품은 그는 '여관 인질극'으로 일본사회의 반향을 일으킨 인물이다.

김 씨를 알게 된 건 TV에 생중계된 88시간의 인질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나는 여관에서 일어난 재일교포의 인질극을 영화처럼 보고 있었다. '저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저러나' 하며 막연한 생각을 할 뿐이었다.

김 씨와의 인연은 일본에 가게 된 후 이어졌다. 1983년 나는 처음 일본에 갈 일이 생겼다. 알고 지낸 일본인 스님과의 연으로 재일교포 수감자들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 때 다시 김 씨 생각이 났다. 그동안 김 씨는 장장 7년간의 재판 끝에 무기형이 확정된 상태였다.

당시 김 씨에 대한 양국의 생각은 엇갈렸다. 한국인의 눈엔 야쿠자를 죽인 의인이지만, 일본인이 보는 김 씨는 악인 중의 악인이었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본에서 영향력 있는 스님들에게 무기수 김 씨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미결수에서 무기수가 된 그는 구마모토 형무소로 이감됐고 김 씨를 만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 김 씨의 면회를 주선해달라고 부탁받은 스님마다 "그 김희로? 그런 요주의 흉악범은 아무나 만나기 힘들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그런 상황에서 김 씨를 만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다가 김 씨 어머니 소식을 들었다. 날마다 면회를 했던 김 씨의 노모가 3년 전부터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였다. 김 씨의 어머니는 중풍으로 쓰러진 뒤 홀로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다. 나는 김 씨의 노모가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측은지심이 들어 돕고 싶었다.

나는 김 씨의 어머니가 있는 지역이 '가케가와'라는 것밖에 몰랐다. 통역을 해줄 사람과 무작정 가케가와로 갔다. 김 씨가 수감된 형무소와 멀리 떨어진 지역이었다. 주소는 물론이고 요양원 이름조차 모른 채로 길을 떠났다. 나는 몇 사람의 인연을 통해 겨우 김 씨의 어머니가 있는 요양원을 찾아갈 수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살인죄로 잡혀간 무기수를, 심지어 면회도 하기 어려운 김 씨를 구명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렇게 나는 김 씨보다 그의 어머니를 먼저 만났다. 김 씨의 어머니 박덕숙 씨는 팔순이 넘은 할머니였다.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박 씨를 만난 나는 애절한 모정에 이끌리고 말았다. 박 씨는 병세가 깊어 정신이 온전치 못했다. 하지만 자기 아들의 이름을 듣자마자 통곡했다. 박 씨는 내 장삼자락을 잡고 "아들이 나오는 것을 봐야 눈 감을 수 있다"면서 "스님이 좀 데리고 나와달라"고 빌었다. 명백한 중범인 김 씨를 석방시킬 방법은 없었다. 그 상황에서 나는 희로를 꼭 데리고 오겠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헛소리 같은 약속 때문에 김희로에 묶인 셈이 됐다.



삼중 스님이 김 씨가 인질극을 벌인 후미여관을 방문했다.

조선인 출신이란 이유로
학교 중퇴, 이혼 겪어…
일본사회 만연한 차별
부당함 알리려 인질극

김 씨가 3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폐지를 주워 팔며 생계를 꾸렸다. 1933년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의붓아버지의 성을 따 권 씨에서 성을 바꿔 '김희로'란 이름으로 불렸다. 김 씨는 재일조선인으로 극빈층의 삶을 살았다. 학창시절 김 씨는 의붓아버지의 구박과 소학교 동급생들의 차별을 겪으며 학교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13살 나이에 돈을 벌겠다며 집을 나갔다. 김 씨는 배가 고파 음식을 훔쳐 먹은 것을 시작으로 수차례 구치소를 드나들며 젊은 시절을 보냈다.

김 씨는 의붓아버지와 사이가 몹시 나빴다. 집을 떠난 것은 어머니가 의붓아버지 사이서 낳은 동생 셋과 가정을 일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하지만 유년시절부터 '조센징'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김 씨였다. 어머니에게는 지극한 효자였지만 집을 나간 뒤로 김 씨는 변변한 직업도 구하지 못한 채 건달의 삶을 살았다.

김 씨와 결혼한 일본인 아내는 그의 출신을 알고 자신을 속였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김 씨는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이 만연한 일본 사회에 신물이 났다. 일본인에 대한 부당함과 삐뚤어진 마음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다.

그런 그는 1968년 자신을 쫓던 야쿠자 둘을 죽이고 도망쳤다. 그리고 도주하다 맞닥뜨린 여관에 들어가 일본을 상대로 1인 전쟁을 선포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의 한인 차별에 항거한 재일교포 김 씨의 인질극 사건의 배경이다.

김 씨가 인질극을 벌인 모도가와네 온천 후미여관. 일본 경찰은 헬기를 띄우고 여관 건물 주변을 포위했다. 김 씨는 당시 벌떼같이 모여든 취재진을 향해 말했다.

"나는 민족차별의 피해자다. 가해자는 일본이다. 일본은 나를 '더러운 돼지 새끼'라고 불렀으며 조국을 욕되게 하고 멸시하는 언행을 일삼았다. 그들이 공식 석상에 나와 나에게 진심으로 참회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나는 인질들을 절대 풀어주지 않겠다. 여관 안으로 나를 잡으러 온다면 내 몸에 두른 이 폭탄으로 모든 것을 끝내겠다."

협박이자 절규였다. 나중에 특별면회를 통해 김 씨를 만나 직접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김 씨는 애초부터 자결할 마음으로 인질들을 해칠 생각이 없었다. 실제로 김 씨는 인질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결코 해치지 않겠다며 안심시켰다. 인질 가운데 한 명이 공무원 시험을 치르기 위해 잠시 빠져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일도 있었다. 김 씨와 인질로 잡힌 이들 사이에 충분한 대화를 했고 신뢰하게 됐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대치상황이 길어지자 일본 경찰은 김 씨를 설득하기 위해 어머니 박 씨를 데려왔다. 마이크를 손에 쥔 박 씨는 김 씨에게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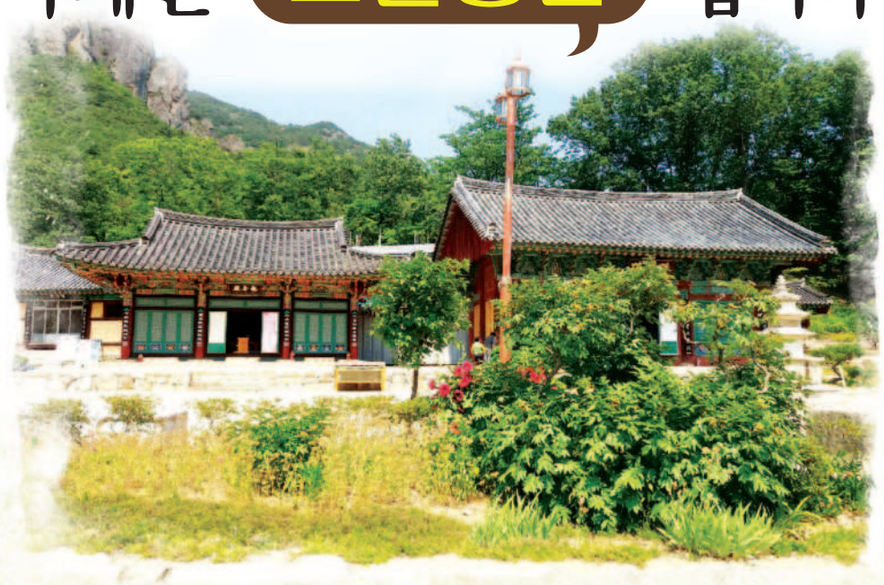
"너는 한국인이다. 일본 경찰에 붙잡혀 모진 고문을 당하며 목숨을 잃는 모습은 이 어미가 보고 싶지 않다. 그러니 자결하라."

어머니의 단호한 말을 들은 김 씨는 곧바로 자결할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김 씨는 88시간 만에 검거됐다. 기자로 위장한 경찰을 피하지 못했던 것이다.

한편 일본의 한국인 차별 철폐를 외치며 인질극을 벌인 이 사건은 영화 〈김의 전쟁〉으로 제작돼 더욱 알려졌다. 〈계속〉

정리=김지원 기자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 합니다.
☎ 문 의 : 민성기업(구,대진기업) 010-2628-9944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